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제주도 처녀당신의 죽음과 신앙의 의미

강경민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2023년 7월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The Death of *Cheonyeodangshin*
and Its Devotional Significance

Kyoung Min Kang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Th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July 2023

제주도 처녀당신의 죽음과 신앙의 의미

이 논문을 문학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강 경 민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지도 교수 허 남 춘

강경민의 문학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심사위원장	현 승환	인
위 원	김 현선	인
위 원	권 태호	인
위 원	강 소전	인
위 원	허 남춘	인



목 차

I. 서론	
1. 문제 제기와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방향	5
1) 선행 연구 검토	5
2) 연구 방향	9
3. 연구 자료 정리	12
II. 제주도 처녀당신의 죽음 형태	19
1. 자살의 양상	19
1) 입무에 대한 거부	20
(1) 비루함-심방, 첩	25
(2) 이씨할망의 분노 표출	27
2) 입무에 대한 순응	30
(1) 입무의 미완성과 좌절	32
(2) 현씨일월의 분노 표출	35
3) 신분차이에 따른 혼사장애	36
2. 타살의 양상	41
1) 왜구의 위협	42
(1) 금남의 당	44
(2) 박씨할망의 분노 표출	47
2) 왜구의 겁탈	48
(1) 겁탈당한 오씨아미	51
3) 섬에 버려짐과 공희	58
4) 성에 바쳐짐과 공희	64
III. 처녀당신의 직능과 성격	72
1. 필요에 따른 직능으로의 변화	72

1) 산육과 치병의 직능	74
2) 시험 및 송사의 직능	79
2. 조상신에서 당신으로의 확장	82
1) 조상신과 당신의 성격	82
2) 분파 양상	85
IV. 제주도 처녀신의 특징	94
1. 여성 인신의 보편성	94
2. 제주도 처녀당신의 특징	100
1) 여성 원혼의 강조	101
2) 처첩 관계에 따른 서사	107
3) 심방 역할 강조	110
4) 개별적 의례화	115
5) 원초적 서사 확장의 가능성	118
V. 신격화의 요인과 신앙의 의미	124
1. 신격화의 과정	124
1) 억울한 죽음	126
2) 고통 공감 정서	129
2. 신앙의 의미	133
VI. 결론	138
[참고문헌]	142

[Abstract]

<표 차례>

[표1] 처녀당신 자료 현황	13
[표2] 여성의 죽음 경위와 제향	16
[표3] 토산 알당 서사에 따른 각편별 비교	50
[표4] 겁탈/득병 주체	51
[표5] 처녀당신의 직능	73
[표6] 육지 해안지역의 여성 원혼 당신화	94
[표7] 가해자와 신앙민의 관계	130

제주도 처녀당신의 죽음과 신앙의 의미

강경민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요약

이 논문은 제주도 당신본풀이 중에서 처녀당신을 대상으로 처녀의 죽음과 신앙의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처녀당신은 억울한 죽음을 겪고, 신격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공통된 서사이다. 따라서 제주도 원혼 신격을 처녀당신으로 정의하고, 죽음의 형태와 성격을 살펴본다. 또한 육지 지역과의 원혼 신격을 비교함으로써 제주도 처녀당신이 지니는 특수성을 밝히는 작업을 한다. 이는 처녀당신에 대한 가치 정립과 평범한 여성의 신격화 요인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최근 개별적 당 신화 연구에만 머물렀던 논의에서 범위를 확장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데 의의를 둔다.

그동안 제주도 당신화 연구 방향이 신의 성격에 따른 계보화 및 개별적 본풀이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제주 당신화 연구의 확장성 기여를 기대하며 여성 당신화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처녀당신 본풀이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원혼 당신화의 개념을 처녀당신으로 정하고, 현씨일월, 불래낭 박씨할망, 토산 요드레한집, 진안할망, 마라도 아기업게, 골르락 오씨아미, 호근이무루 으드렛당 이씨할망을 처녀당신으로 범주를 정하여 논의를 펼쳤다. 이 본풀이의 공통 서사는 억울한 죽음에 의한 신격화이고, 그에 따라서 여성들의 죽음에 따른 경위, 신의 성격 및 신앙의 의미를 살피려고 하였다.

처녀당신과 관련한 연구가 그동안 미진했기에 본풀이의 서사 및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처녀당신 본풀이의 서사 구조에 따른 죽음의 양상과 심층적 전개를 통하여 깊은 내면에 숨어 있는 제향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핵

심이다. 처녀당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처녀의 죽음에 따른 인과관계에 주목하여 죽음의 형태를 자살과 타살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입부 실패에 따른 죽음, 사회체제로 인한 죽음, 왜구의 겁탈에 의한 죽음, 인신공희로 인한 여성의 죽음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들의 죽음은 내면적 갈등으로 인한 죽음과 사회적 갈등으로 공동체와 관련된 죽음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 분류에 따라 여성들 죽음의 요인을 분석하여 제주 역사적 사건 및 시대상이 본풀이 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녀당신은 제주 여성 당신에서 작은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작은 범주에 속하는 처녀당신으로 제주 여성 당신 전체의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는 직능과 성격은 여성 당신의 그것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여성신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성격을 살필 수 있었고, 이는 신앙이 신앙민의 필요에 따른 성격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당은 여성들의 공간이고, 그들을 중심으로 당의 성격도 변화된다. 따라서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맞추어 신앙도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처녀당신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피는 일은 자료적 가치를 찾는 작업이다. 육지 지역과의 공통된 서사를 지니는 신화와 견주었더니 인신공희의 흔적과, 남성의 부재 및 결핍에 따른 죽음이 공통적이다. 또한 남성의 겁탈로 인한 죽음, 풍농·풍어의 신으로 생산성 증대와 관련한 기능을 담당하면서 보편성을 대표한다. 제주도 처녀당신의 특수성은 여성성의 강조, 처첩의 서사, 심방 역할의 강조를 들 수 있다. 의례의 측면에서도 공동체적인 의례보다는 개별적으로 의례가 진행되며 독자성을 띠고 있다. 또한 처녀당신의 죽음과 재생이라는 서사를 통해 서사 변용 및 확장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처녀당신의 신격화 과정에서 억울한 여성의 죽음과 신앙민과 여성의 관계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처녀당신은 고통에 의한 죽음과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은 신앙민들로 하여금 여성들이 겪었던 고통의 감정을 공유하게 한다. 공유는 신앙민들이 겪는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 신앙민은 처녀당신의 기원을 통해 위무하고, 위로받는 신앙 형태가 된다. 이처럼 제주도 처녀당신의 신앙은 억울한 죽음을 겪은 여성들의 고통 공감이라는 정서와 사회적 시대상의 투영이라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그동안 개별적 본풀이를 중심으로 논의했던 당신앙 연구의 범위 확장 차원에서 여성 당신의 한 범주에 속해 있는 처녀당신을 주목하였다. 평범한 여성의 신격화가 지역적 시대상의 투영으로 인해 더욱 특별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당신 신앙의 가치와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주제어: 제주도, 여성 원혼, 처녀당신, 신앙, 자살, 타살, 죽음, 신격화, 입무, 왜구, 인신 공희, 처첩, 심방, 의례, 처녀신, 호근이머루 으드렛당, 불래낭 할망당, 현씨일월, 토산 알당, 토산 요드레한집, 마라도 아기업게당, 진안할망당, 골르락당 오씨아미, 여성 당신

I. 서론

1. 문제 제기와 연구목적

이 논문은 제주도 당신본풀이 중 처녀당신 본풀이의 서사 및 신앙의 의미에 대한 연구이다. 처녀당신의 죽음에 따른 형태를 제시하고, 여성 인물이 죽음에 이르는 경위와 신으로 좌정하기까지의 과정 및 직능을 두루 살핌으로써 평범한 여성이 신격화하는 요인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제주도 처녀당신의 특징 분석과 함께 당신앙 영역 중 처녀당신 신앙의 의미를 두루 살펴볼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도 당신본풀이와 관련한 연구는 당신의 성격을 분류하고, 계보화하거나 개별적 당신본풀이와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제주도 당신앙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최근 십 년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중에서도 여성신만 따로 연구한 자료는 송당의 백주또와 토산으드레한집 등과 같이 개별적인 여성신과 관련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외에 여성 원혼과 관련한 연구로 조상신본풀이나, 당신앙 부분에서 인신 계열의 범주로 소략하게 다루고 있을 뿐이다.

제주 여성신 전부를 계보화 하거나, 여성신의 본풀이를 살피는 것보다, 대상을 좁혀서 억울한 죽음을 겪은 후 신격화가 이루어지는 여성 당신의 경우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여성 당신에서 평범한 인물이 죽음을 겪고 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여성들은 원혼이라는 공통 화소가 있는 당신으로 선행 연구자들은 처녀신의 범주에 넣고 있다.

현용준은 당신의 성격을 조령·생업 수호신·산육·치병신·재앙신·토지신적 성격으로 나누면서 이 중 조령이 원혼이라고 하였다. 원혼 중에 처녀의 사령을 모시는 전승으로 김녕리 광청할망, 남원읍 예촌 양씨아미, 현씨일월 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¹⁾

고광민은 처녀인 나이에 비명에 죽은 처녀의 원령을 당신으로 모시며, 이들의 당을 처녀당으로 명명하고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며 정의를 내리고 와 범주를 정하고 있다.²⁾

1) 현용준, 「제주도 무신의 형성」, 『담라문화』창간호, 제주대학교 담라문화연구소, 1982, 5쪽.

2) 고광민,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3쪽

문무병은 처녀의 몸으로 죽어 당신이 된 억울한 원령을 당신으로 모신 경우라고 정의한다. 조천읍 신흥리의 볼래낭할망, 성산읍 신천리의 현씨일월, 서귀포 중문동 불목당요왕또, 안덕면 감산리 호근이무루당, 대정읍 마라도 애기업저지당, 서귀포 시 대포동 비바리당이 이에 속하는 경우임을 밝혔다.³⁾

이러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고 부연하면서 죽음의 양상과 당신의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처녀당신의 정의를 정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다. 첫째, 여성신의 존재이다. 둘째, 혼인 적령기에 생식성과 혼사 장애를 통하여 죽음이 주어지는 양태를 고찰한다. 셋째, 처녀신의 억울한 입무담에 대한 형태가 제주 당신의 독자성을 말한다. 처녀의 원혼 존재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단골을 수호하고 단골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지게 된다. 넷째, 이러한 처녀당의 본풀이 형태가 육지부 일반의 서사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보편성 속에서 이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고 판단한다.

선행 연구자들이 분류한 제주도 처녀당신은 평범한 여성이 죽음을 거쳐서 신으로 좌정하는 공통의 서사를 갖는다. 그간 처녀당신이 제주 전역에서 전승되는 이유, 죽음의 요인에 따른 유형화, 신앙의 현장성 등에 관한 연구는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⁴⁾ 이처럼 처녀당신의 연구가 미흡한 사정에 따라 처녀당신에 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자들은 호근이무루 으드렛당의 이씨할망까지 처녀신의 범주에 넣고 있다. 이는 출산을 하지 않은 젊은 여성까지 처녀신에 포함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처녀신 범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억울한 죽음을 겪은 젊은 여성이라는 점이다. 즉 원혼이라는 요소가 처녀신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은 선행 연구에 의해 이미 정리된 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혼의 성격을 지니는 당신으로 현씨일월, 볼래낭 박씨할망, 토산 으드레한집, 진안할망, 마라도 아기업게, 골르락 오씨야미, 호근이무루 으드렛당 이씨할망을 처녀당신으로 정하고 논의를 펼치려고 한다.

처녀당신 본풀이에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여성들이 등장한다. 그들이 어떠한 사

3) 문무병, 「제주도 당신양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46쪽.

4) 처녀당에 대한 논문은 두 편 뿐이다. 고광민,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강순희,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에 나타난 서사 구조와 제의 양상」, 『실천민속학연구』 32, 실천민속학회, 2018.

건을 직면하고 죽음에 이르며 신격으로 모셔진다. 이 본풀이에서 여성들이 겪는 사건은 제주 사회의 역사적 사건 및 제주 생활사와 관련이 있다. 처녀당신 본풀이는 제주 무속 신앙이 품고 있는 제주의 역사와 제주도민의 생활사, 그중에서도 제주 여성 생활사에 대한 소중한 자료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규정하는 처녀당신은 억울하게 죽은 여성의 서사를 주된 내력으로 삼고 있다. 평범한 여성이 억울한 죽음을 겪고 신격화되는 서사이다. 이러한 서사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죽음을 통한 신성성 획득이라는 일반적인 신화의 보편성과 함께 그 존재가 평범한 여성이라는 제주 신화의 특수성이 어떻게 중첩적으로 처녀당신 본풀이를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보고자 한다.

이는 처녀당신 본풀이에 담겨있는 신격화의 풍부한 양상과 신앙의 의미를 찾아가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의와 범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펼치려고 한다.

첫째, 여성이 갖는 원초적인 가능성을 함의한다. 여성의 무한한 능력과 친화력은 신적인 주술성을 많이 예견하게 한다. 여신만이 대상은 아니었지만 생명을 담지하고 가임력을 통해서 생식력을 드러내는 동굴벽화나 여신상 등의 유적은 무한한 생명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제주도에서 이러한 원형질적 면모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그것이 당신앙으로 소중하게 드러나며, 이는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금 환기한다.

둘째, 혼인적령기의 생래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이 주어진다. 생식력의 고조를 위기로 맞이하게 된다. 그것은 새로운 능력을 현시한다. 주술적인 생명력을 전환하여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주어진 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발휘한다. 일상인의 관점, 일반적인 남성의 관점에서 여성을 수탈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여성의 비가시적인 능력을 말살하거나 마멸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이렇듯 능력의 발현은 차단되고 파괴되어 죽음에 이르게 한다. 비극적 원령을 가진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처녀당신 본풀이가 갖는 신화사적 차원의 의미를 살펴 본다.⁵⁾ 처녀신 본풀이가 품고 있는 다양한 직능을 짚어내는 가운데 중세적

5)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101쪽. 조동일에 의하면 처

서사에서 더 나아가 원초적 서사에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있는 심화된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보편서사의 원리를 자체에서 구하지 않고 육지부의 당신화와 비교하면서 비교 고찰한다. 서사의 원형과 지역적인 한정성이 만나서 새롭게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국면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면모라고 하는 점을 환기하게 된다. 따라서 처녀당신 본풀이 및 신앙의 특성을 살펴본다. 처녀당신 신앙은 신과 신앙민의 상생 작용으로 서로 위로하고 위무받는 관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양상이 평범한 여성의 신격화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넷째, 처녀당신이 가지는 새로운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원한을 가진 원령의 존재가 단골을 수호하는 것은 모름지기 상처 입은 자가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는 생각의 정점을 말하는 것이다. 처녀당의 당신이 결국 정상적인 인간의 내면 문제를 치유하는 것을 보게 한다. 이는 보편성의 서사이다. 상처를 입은 심방이 상처입은 신의 가피나 가호에 의하여 단골들을 거느리는 역설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선명하게 한다.

이러한 정의는 선행연구의 그것과 전혀 다른 면모를 가지게 된다. 자료는 동일하지만 관점을 새롭게 수립하여 처녀 원령의 보편 서사와 신앙적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가능하게 한다. 당신앙의 원형 서사를 통하여 상처를 입은 존재자 상처입은 단골들을 거느리는 보편 서사에 대한 내력을 말하는 것일 수 있음을 정의하고자 한다.

처녀신들의 여러 다양한 죽음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신격화된 신과 신앙민에게 신앙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작업이다. 신앙의 주요 관점은 기원과 화답이다. 기원과 화답의 궁극적인 목적은 치유에 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처녀당신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처럼 제주도 여성신과 관련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처녀당신 연구는 제주도 당신화 관련 연구의 범위를 넓혀가는 바탕이 될 것이다.

녀신은 생활서사시로 살아가면서 겪은 일을 다루는 서사시이다. 그렇지만 처녀신 본풀이에는 생활 서사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시·고대와 중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방향

제주도 처녀당신의 연구는 현용준, 문무병에 의해서 소략하게 다루어졌다. 이 마저도 소개만 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고, 그 외에 연구 논문도 두 편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연구가 미진한 본풀이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일은 제주도 신화 연구에 있어서 범위의 확장에 도움이 된다.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하여 검토하고 연구 방향을 세우고자 한다.

1) 선행 연구 검토

당신앙 중 처녀당신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당신앙 전반에 대한 검토에서하나의 영역으로 처녀당신을 다룬 경우와 처녀당신 본풀이만을 주목하여 다룬 경우이다. 연구의 대상 영역에 있어 차이를 갖기는 하지만, 처녀당신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볼 때 두 경우 모두 한계점을 갖는다.

당신앙 전반을 다룬 경우는 다른 당신과 구분하여 영역을 나누고 있으나 처녀당신이 갖는 특성을 바탕으로 한 구분을 정치하게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처녀당신 본풀이에 주목한 경우는 대상 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처녀당신 신앙의 다양한 양상을 밝히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죽음을 통한 신격 좌정이 핵심적 요소라고 할 때 죽음에 대한 분석이 가장 기본적인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구자들은 당신본풀이 전반에 걸쳐 계보화를 하거나, 당 신앙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일렛당, 으드렛당, 송당 백쫓도, 남성신의 경우 한라산신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⁶⁾ 이 가운데 처녀당신은 주요 연구 자료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고광민, 강순희에 의해 처녀당신 본풀이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

6) 현용준, 「무속신화본풀이의 형성」, 『국어국문학』26, 국어국문학회, 1963;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허남춘, 『제주도본풀이와 주변 신화』, 보고서, 2011;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2; 김현선, 「제주도 당본풀이의 계보 구성과 지역적 정체성 연구」, 『비교민속학』 29, 비교민속학회, 2005; 고광민, 「당본풀이에 나타난 갈등과 대립:송당,세화,서귀당 본풀이의 경우」, 『탐라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 권태효, 「제주도 서귀본향계 본풀이의 자료적 성격과 양상」, 『한국민속학』, 한국민속학회, 2011.

다.

고광민은 처녀당 본풀이에서 죽음의 원인과 당신으로 모시게 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본풀이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였다.⁷⁾ 이에 따라 처녀당 본풀이에 등장하는 여성이 실재 인물이며, 이들의 죽음이 사회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처녀당신과 신앙민들의 감정에 따른 동일시와 신앙민의 제향이 신과 신앙민들이 한을 푸는 방법임을 밝힌다. 이 연구는 처녀당 신앙에 대한 현장성을 제시한 점에서 소중하다. 하지만 신에게 제향하는 것이 신과 신앙민의 한을 푸는 행위로만 해석하는 것은 모호한 처리 방법이다. 제향의 요건을 좀 더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전개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평범한 여성이 신격화되는 요인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

고광민은 처녀 원혼의 원인을 왜침, 국마 진상, 신분 갈등, 인신공양 네 가지로 구분하고 사회적 요인에 따른 죽음에 있다고 하였다. 이는 신격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면적 갈등으로만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여성의 죽음이 갖는 의미나 사회적 요인이 아닌 내재적 갈등에 따른 죽음은 간과하고 있다.

강순희는 처녀당의 성격 및 지역적 분포의 요인을 밝히기 위해 본풀이의 서사 구조를 고찰하고, 제의적 특징을 구명하였다. 처녀당본풀이의 서사 구조를 원혼맞이형과 해원요구형으로 나누어서 서술하고 있다.⁸⁾ 처녀에게 제의를 올리는 이유를 밝히는 제향 경위담은 원혼맞이형이라 명명하고, 원혼의 억울함과 분노가 신앙민에게 흥함으로 표출되는 경우를 해원요구형이라 명명하였다. 원혼맞이형은 신앙의 주체가 여성과 남성에 따라 다른 제의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고, 해원요구형은 치병제의로 처녀 원혼이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처녀 원혼이 흥함, 분노를 표출하여 제향 받는 본풀이들만 해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처녀신 본풀이만 직능을 차지한다는 내용은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논문 서두에 처녀당신의 신화가 확장되는 원인을 파악한다고 했지만 정작 이러한 당신앙의 전파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의 처녀당신에 대해서는 개별 본풀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상신본풀이와 관련해서 개별 본풀이의 특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원

7) 고광민,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8) 강순희,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에 나타난 서사 구조와 제의 양상」, 『실천민속학연구』 32, 실천민속학회, 2018.

흔의 성격이 입무 실패에 따른 조상신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있기에 조상신에 포함하여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강소전은 심방 관련 조상신본풀이 연구와 관련하여 현씨일월이 지닌 심방의 자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⁹⁾ 현씨일월 본풀이 관련 자료 6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심방의 자질과 전승과 관련한 논의만 언급하는 논문으로 본풀이 서사구조 및 신앙의 전파 등에 관련한 집중적인 논의를 펼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처녀당신 전체에 관한 연구는 미진하지만 개별 본풀이를 중심으로 토산 요드렛당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토산 요드렛당과 관련한 연구는 본풀이와 의례, 뱀신앙 및 나주기민창조상과 관련된 연구와 폭력적인 역사적 사실과 연관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토산 요드렛당 본풀이와 의례 관련 연구는 김동섭, 김현선이 진행하였다.¹⁰⁾ 서사와 의례에 집중한 연구로 방울품과 아기놀림이 있는 현장성 연구는 후학에 도움을 준다.

김동섭은 토산당 본풀이가 갖는 문학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본풀이의 구성적 특성, 변이의 양상, 문학적 의미를 밝히려고 하였다. 임재해의 현장론적 화소 분석 방법을 이용해 서사분석을 하고, 방울품에 따른 토산당 의례와 본풀이를 대비하여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서사 분석을 통한 결과를 알기가 어렵고, 방울품과 의례, 본풀이가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세히 알기 어렵다.

김현선은 토산 웃당 일뿔한집본풀이와 알당 요드레한집본풀이를 비교하면서 당 신앙의 근본적 차별성을 찾으려고 하였다. 당의 본풀이와 놀이가 보편화된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당곳의 일반굿화 현상을 설명하며 심화하고, 토산당곳의 의례에 대해 고찰하였다. 토산 웃당본풀이와 알당본풀이의 차별성을 논하는 것보다 보편성이 더 많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사신 신앙과의 관련성은 다음으로 미루었고, 당 직능과 관련한 풀이가 좀더 세밀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뱀신앙 및 나주기민창조상과의 관련 연구는 문무병, 현용준·현승환, 양영자, 허남

9) 강소전, 「심방 관련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탐라문화』 3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10) 김동섭, 「토산당 본풀이 연구」, 『제주도사연구』 11, 2002; 김현선, 「제주도 토산당 웃당본풀이와 알당본풀이의 비교」, 『한국사상과 문화』 19,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춘, 이현정에 의해 진행되었다.¹¹⁾ 제주도 뱀신앙과의 연관성에서 발전하여 토산한집이 사신 신앙에서 용사신앙의 성격까지 살피고 진척된 논의를 성과를 보인다.

문무병은 제주도의 당신앙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가운데 제주도의 사신 신앙을 정리하며 제주도의 사신 신앙권을 토산리 으드렛당 신앙권이라고 설명했다. 토산 으드렛당본풀이에 대해서는 신화적 이야기와 역사적 이야기가 결합된 서사라고 하였다. 토산당신과 방울푼 의례의 상관성을 설명하였다.

현용준·현승환은 제주도의 뱀신화와 신앙을 조상신, 당신, 일반신으로 구분하여 각기 그 신화와 신앙을 해명하고, 본토의 뱀신앙인 업신앙과 터쫓가리와의 비교를 통해 제주도 뱀신앙의 의식을 밝혔다. 조상신, 당신, 일반신의 성격에는 차이가 없으며 농경사회의 용사 신앙에서 풍농신 신앙의 분화라고 하였다.

양영자는 토산 으드렛당본풀이 서사를 금성산 뱀신의 영험, 좌정의 어려움, 당신 정착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으드렛당의 신격은 나주라는 곡창지대에 있던 농경신이 제주도로 유입되어 치병신의 성격으로 변모하였다고 하며 그로 인해 우월함이 약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토산한집이 치병신의 기능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부와 해녀를 위한 안전과 풍어의 직능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서 생산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손목 절단 사건은 식성 갈등이기 보다 남녀 갈등으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본풀이 상으로 보았을 때 정확한 식성을 알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으로 식성 갈등으로 풀기에는 무리가 있다.

허남춘은 토산 으드렛당신을 금성산신이자 용신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신이지만 바다를 가까이 두고 있어 해신의 성격을 함께 지닐 수 있었고, 뱃사람들이 순항을 위하여 치제하였다는 점에서 용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논지다. 더불어 나주기민 창조상 신앙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주 일대에 널리 퍼져 있었던 용신 신앙이 관여한 결과물이라 하였다.

이현정은 나주 민간 신앙과 용신 신앙의 관계를 살피며 나주 금성산 일대의 신앙적 저변과 용신 신앙으로의 흐름을 확인하였다. 나주와 제주의 교류로 인해 용신

11)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뱀신화와 신앙 연구」, 『탐라문화』 1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5; 양영자, 「토산 알당 한집 본풀이 연구」, 『영주어문』 7, 영주어문학회, 2004; 허남춘, 「찰성과 부군(府君) 신앙, 뱀 신앙」, 『비교민속학』 58, 비교민속학회, 2015; 이현정, 「제주도 나주 출자 뱀 신앙 연월 일고찰-조선조 나주목 일대 용신 신앙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5, 국문학회, 2022.

신앙에 뱀 신앙 체계로 편승되었음을 밝혔다.

폭력적인 역사적 사건과 연결시킨 연구는 김호성의 논문이 있다.¹²⁾ 김호성은 토산 여성 뱀신의 상징성인 치유와 재생을 통해 제주도에 여성 중심의 뱀신앙이 형성되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 치유와 재생으로 여성 중심의 신앙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처녀당신 논문은 많지 않고, 개별적인 본풀이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현재 처녀당신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물이다. 양적으로 현저히 적을 뿐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신격 좌정의 핵심이 되는 죽음의 양상에 대한 분석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그간 연구 성과의 바탕 위에서 처녀신의 죽음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이들 본풀이에서 핵심이 되는 화소는 죽음이며, 죽음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제향을 받게 되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처녀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죽음의 내력과 그것에 따른 제향의 양상을 밝히는 일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2) 연구 방향

이 논문은 제주도 당신본풀이에서 원혼을 지닌 여성 당신을 처녀당신으로 명명하고, 처녀당신 본풀이와 신앙을 통하여 여성의 신격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처녀당신에서 주요 서사인 여성의 죽음, 직능, 신앙민과의 관계, 독자성을 다각적으로 정리하고, 처녀당신의 신앙의 의미를 고찰하려고 한다.

선행연구와 문헌자료의 서사를 통해 처녀당신의 정의와 범주를 정한다. 제주도 처녀당신의 연구가 많지 않고 개념 정리가 명확하지 않다. 처녀당신에 대한 개념은 본풀이 서사 중 여성들 죽음의 과정을 통정리할 수 있다. 또한 죽음의 과정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죽음의 요인과 의미에 대해 고찰한다. 죽음의 요인은 내재적 갈등과 외재적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외재적 갈등의 경우 사회적 갈등과 맺는 연관성에 대하여 살핀다.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재적 갈등을 사회적 요인

12) 김호성, 「<토산으드렛당신본풀이>의 여성 폭력 양상과 의미」, 『한국무속학』 43, 한국무속학회, 2021.

이 갈등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핀다.

본문에서 처녀당신의 서사와 신앙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피는데 제주도 처녀당신의 신격화 요인에서 억울한 죽음과 직능에 주목한다. 이에 여성 당신화와 직능의 유사함을 살핀다. 이는 처녀당신과 신앙민과의 관계성을 살펴볼 수 있는 요소로 이들이 신격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처녀당신에서 신격화되는 여성들은 제주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성들이다. 이들의 죽음에는 제주의 사회적인 요인들이 내포되어 있으며, 그러한 요소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서 살피고자 한다.

제주도 본풀이는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나눌 수 있고, 일반신은 가신, 당신은 각 마을의 당에 좌정해 있으며 조상신은 가신과 더불어 집 안에 모셔진다.¹³⁾ 이러한 본풀이는 오랫동안 전승되면서 넘나들의 과정을 거친다. 그에 따라 신앙도 지속적인 변이를 거치면서 조상신 신앙이 당신 신앙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당신앙에 여러 관습이 섞이기도 한다. 이처럼 당신앙의 변화 양상은 문헌자료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당신앙 연구는 심방 인터뷰와 의례 현장 조사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위적인 상황을 포함하여 심방 인터뷰와 현장 조사를 반영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였다.

여성의 죽음은 개인적인 내부의 요인에 따른 자살과 사회적인 외부의 요인에 따른 타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제주 사회의 역사적인 사건 및 생활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죽음의 경위를 제주의 사회적 요건과 결부하여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제주 사회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으며, 역사성과 생활 환경이 본풀이 형성에 개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사건 및 시대상을 견주며 지역 사회의 생활환경이나 시대적 상황이 본풀이에 내포되는 정황을 살펴보고, 본풀이 형성에 사회적 환경이 개입되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신앙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살핀다.

역사적 사건 및 사회적 시대상이 본풀이에 반영된다는 연구는 이미 현용준, 김현선에 의해 진행되었다. 현용준은 당신본풀이를 성격별로 해신당계, 본향당계, 칠일당계, 팔일당계 당신화로 나누고, 본향당신화는 송당계, 한라산출생신계, 외래신계의 계보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¹⁴⁾ 김현선은 당신본풀이가 살아있는 신화

13)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20쪽.

14) 현용준, 「무속신화본풀이의 형성」, 『국어국문학』26, 국어국문학회, 1963; 현용준, 『문속신화와 문

의 서사시적 형태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당신본풀이의 구체적 내용은 마을의 구비역사일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지역적 측면을 명백하게 반영한 지역사인 동시에 제주도민의 신앙생활이나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신앙생활사로 기능하는 면모를 제시한다.¹⁵⁾ 따라서 당신본풀이에서 제주도의 역사와 문화를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도 처녀당신이 보편성을 기반으로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혀 제주도 처녀당신의 자료적 가치와 독자성을 알아보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 제주도 외에 육지부 원혼의 신격화와 제주도 처녀당신의 신격화는 성별의 차이와 죽음 요인 및 직능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서로 상이한 부분 또한 존재한다. 원혼 당신화의 비교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아볼 수 있는 일이며 이를 통해 제주도만의 독자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2장에서 서사 분석을 통해 처녀신의 근원이 되는 죽음의 유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자살과 타살이라는 큰 범주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분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풀이 속 여성들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가고자 한다. 고광민은 내적 또는 외적으로 인한 죽음과, 흥흥을 주는 행위로 인해 제향을 받는 당신으로 좌정한다고 했으나, 이는 단편적인 논의이다.¹⁶⁾ 여성이 죽음이라는 고통을 겪고 신이 되는 것은 보편적인 화소이다. 여성이 겪는 고난과 시련은 평범한 삶에서 신으로의 이행 과정이고, 기본적으로 생산성이라는 기능을 지닌다. 이처럼 여성이 겪는 죽음이라는 보편적 화소에 제주 사회의 시대적 환경이라는 요소가 보태지면서 제주도만의 당신화로 변이하는 것이다.

3장은 처녀당신의 직능이 제주도 여성 당신의 직능과 일치함을 들어 작은 범주인 처녀당을 고찰하는 과정을 통하여 큰 범주의 여성 당신의 양상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처녀당신의 직능과 성격을 고찰하는데 제주도 여성 당신과 견주어 살핀다. 처녀당신의 직능은 신앙민과 신앙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매개체다. 따라서 직능의 변화는 신앙이 변화한다는 것이고, 신앙민이 필요로 하는 직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밝힌다.

헌신화』, 집문당, 1992, 67-164쪽.

15) 김현선, 「제주도 안덕면 당신본풀이의 구비전승적 위상」, 『비교문화연구』 5,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9, 116쪽.

16) 고광민,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62쪽.

처녀당신의 직능이 여성들이 주로 기원하는 성격의 것과 남성들이 주로 기원하는 성격의 것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이 보여주는 서로 다른 신앙 특성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신앙 형태의 변화 양상까지 고찰한다. 4장에서는 제주도 처녀당신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보고, 제주도 처녀당신의 가치를 입증한다. 이를 위해 육지의 해안지역 인격신과 처녀당신을 비교하였다. 이들은 생산성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이 보편적이고, 제주도만의 여성 중심의 신앙이 강화함을 살펴볼 수 있다.

5장에서는 신격화의 요인을 죽음의 유형과 그로 인한 직능의 형성을 바탕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는 처녀신 신앙에 대한 의미를 구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신격이 갖는 직능의 표출과 그로 인하여 형성되는 단골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본다. 이러한 직능에 따른 분석 과정에서 당신과 조상신의 관계, 조상신에서 당신으로의 확장을 보이는 경우 등 처녀당 신앙의 변이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제주도 처녀당신의 본풀이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처녀당신의 신앙에 대하여 고찰하려는 것이다. 평범한 여성이 죽음을 통하여 신격화되는 서사와 신앙민들의 신앙을 살펴보는 것으로 그동안 미진했던 당신화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3. 연구 자료 정리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자료를 총 망라하기보다 당신본풀이 중에 처녀당신에 한정하여 자료로 다룬다. 이 논문에서 다룬 자료는 평범한 여신이 주인공이 죽어서 신으로 좌정한 처녀당과 당신에 대한 본풀이이다. 대상으로 잡은 당은 호근이무루 오드렛당, 신천본향당, 골르락당, 신흥 본향당, 토산 알당, 마라도 본향당, 진안할망당 등이다. 이 당에 대하여 보고된 본풀이는 총 23편의 이본이 보고되었다. 『조선무속의 연구』의 2편,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의 15편,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의 4편, 그 외의 4편 등이다.¹⁷⁾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처녀당신의 자료가 많지 않다.

17) 赤松智城·秋葉 隆, 심우성 역, 『朝鮮巫俗의 研究(上)』, 동문선, 1991;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제주대학교 국어교육연구회, 『백록어문』, 10, 199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제주도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1983.

하지만 서사가 비교적 잘 나타나 있는 자료가 있어서 본문에서 서술하기에 어렵지 않다.

제주 당신화 연구의 확장성 기여를 기대하며 여성 당신화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 처녀당신 본풀이에 주목하였다. 평범한 여성이 죽음을 겪고 신격화 되는 양상은 지역적 시대상의 투영으로 인해 더욱 역사적 사건 및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를 통해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당신 신앙의 가치 및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처녀당신의 자료로 제주 여성 조상신본풀이 및 당신본풀이의 범주와도 견줄 수 있어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본문에서 다룬 처녀당신 본풀이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1] 처녀당신 자료 현황

유형	당명	신명	구술자	자료집
자살	호근이 무루 으드 렛당	예리뉘뉘 밭 제상곡	고창학	제주도무속자료사전
		하로산 허자복이 상마을 허좌수 하 마을 향토나라 향 토부인		
	신천본향당	선씨일월	고옥순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선씨일월	신명근	"
		선씨일월	정두삼	"
		현씨일월	홍매화	"
		현씨일월	고산옥	백록어문
		현씨일월	신명숙	한국구비문학대계
	골르락당	궂느락당 오씨아미	오기영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상교 상청 골르락 당 오씨아미		송경순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타살	신흥본향당	볼래낭할망	정주병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박씨할망	김씨	"
	토산 알당	토산한집	박봉춘	제주무속의 연구
		토산한집	고봉선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으드레한집	한원평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여드렛도	안사인	"
		토산한집	박생옥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토산한집	조산옥	"
		토산한집	강만원	"
	마라도 본향당	아기씨 일뤼한집	정신송	"
	진안할망당	진안할망	조옥순	"

	진안할망	강유형	”
--	------	-----	---

[표1]을 보면, 여러 성씨의 처녀당신의 당 제일이 7일, 8일이 대부분이다. 제일만 보면 일뤼당, 으드렛당이다. 그런데 신앙민들은 처녀당신을 본향신으로 관념하여 모시기도 한다. 대부분 치병신의 직능을 보이는 것은 제주도 여성신의 변화와 인신의 위치를 견주어서 설명할 수 있다.¹⁸⁾ 직능을 보면, 입시 및 승진, 산육과 치병, 본향신 등이다. 처녀당신 신들의 직능은 제주도 당신본풀이 속 여성신들의 직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범한 여성이고 죽음의 과정을 거친 원혼이지만, 생업 수호신과 산육 치병신 등의 직능을 보이기도 한다.

호근이마루 으드렛당 자료는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 유일하게 실려 있다. 이 자료는 하나뿐이지만 서사가 잘 나타나 있어서 호근리에서의 가지가름, 이씨 할망의 신으로 좌정과 경위가 잘 보인다.

현씨일월 자료는 총 6편이다. 이 중에 신명순의 본풀이는 현용준, 고광민이 현씨 일월당 의례 현장에서 채록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현장상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 소중하다. 또한 단골 상황과 현씨일월의 병의라는 흥험 및 당 설립 유래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 그 외에 고옥순, 정두삼, 신명근의 자료는 현씨일월의 죽음 요인과 죽고 난 후에 단골들로부터 제향을 받는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고산옥의 자료는 남월읍 하례리 조사시 명신당과의 사례에서 언급된 것이기는 하나, 내용을 살펴보면 신천리 현씨일월당본풀이와 유사하다. 따라서 현씨일월당과 관련해서 다루기에 유용한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다른 자료에는 없는 현씨일월의 육간제비를 줌은 상황, 굿을 시작하게 된 사정이 상세히 나온다. 또한 현씨일월의 급병에 의한 흥험을 자세히 다루고 있고, 이 당의 확장 요인을 살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의례시 구송되었던 신명순 자료와 풍부한 서사를 다루고 있는 고산옥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토산 알당 자료는 7편이다. 이 자료들은 모두 서사가 풍부하여 당신의 좌정 경위를 잘 알 수 있다. 토산한집이 나주에서 온 뱀신이고, 왜구의 겁탈 내용 및 광증의

18)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2, 145-146쪽.

흥함이 크게 다르지 않다. 바둑돌로 변한 뱀신과 조우한 인물이 강씨, 한씨, 오씨 형방으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개로육섯도와 토산한집의 결연 여부, 왜구에게 겁탈당하는 주체 등이 조금씩 다르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7편의 자료들을 다 함께 다루면서 살펴보려고 한다. 위의 자료 중 조산옥 본은 토산 알당본풀이를 풀고 이어서 토산 옷당본풀이를 풀고 있다. 이는 토산당 의례와 관련한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례에서 토산 알당에 관한 제차와 본풀이를 풀고 이어서 토산 옷당 본풀이를 풀고 있다.¹⁹⁾ 여기에서는 제차 앞에서 풀고 있는 토산 알당본풀이만 다루기로 한다.

볼래낭 박씨할망 자료는 2편이다. 이 본풀이는 남성 심방과 여성 심방의 자료가 전승되고 있지만 이 당은 여성 심방만 가서 의례를 진행한다. 왜구의 겁탈이 강하게 남는 서사와 기억을 중심으로 하는 서사와 할망의 직능에 관한 기록만 볼 수 있다.

마라도 허씨 아기업게당의 자료는 1편이다. 이 본풀이는 전설같은 이야기를 가진 자료로 아기업게가 섬에 버려지고 죽은 이야기가 신화나 전설과 차이 없이 동일하게 전해진다. 본풀이로는 1편의 자료만 전하지만 전설로는 활발한 전승을 보인다. 마라도에는 당이 하나밖에 없다.

수산 진안할망당의 자료는 2편이다. 인신공희에 관한 이야기만 나올 뿐 내용은 소략하다. 전설로도 활발히 전승되지 않는다. 입시, 승진 등 여성들보다 남성들에게 적합한 직능이다. 인신공희는 제주 외의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이야기다. 신라 월성담을 쌓을 때 인신공희가 자행되었음은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기록으로 알 수 있다. 또한 해남군 산이면에도 중이 잠자는 사이에 흙을 파서 묻고 제방을 쌓았다는 서사가 전한다. 이처럼 인신공희 서사는 고대 제의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설화가 전승되고 있다.

위의 자료처럼 죽음을 겪고 신으로 좌정한 처녀당신 본풀이는 총 7개 각편이다. 이들 자료 외에 억울하게 죽고, 당신으로 좌정한 본풀이 중에 노형본향당 다랑굿 와당당 막개낭당은 서사가 빈약하여 죽음의 요인을 알 수 없어 대상 자료에서 배

19)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16, 479-500쪽. 현용준의 토산당본향풀이 석살림 제차에서 여드렛도 본풀이->방울뿔->산밭아 분부사뵈름->주잔넘김->상촉권상->일뿔도본풀이->아기놀림->산밭아 분부사뵈름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한다.²⁰⁾

제주도 외에 타지역 여성 원혼의 죽음은 자살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 남성의 부재와 결핍으로 인한 죽음의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제주도 처녀신의 경우에는 죽음의 요인이 내부적 갈등인지, 외부적 강압인지 확실히 구분된다. 그 요인에 있어서도 입부 실패, 인신공희, 겁탈, 혼사 장애 등 다양하다. 처녀당신에서 대한 분석에서 먼저 여성들의 죽음을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서 내부에 의한 죽음은 자살로, 외부에 의한 죽음은 타살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자살과 타살에 따라 죽음의 요인을 세분화하여 유형화한다. 이러한 유형화는 여성의 죽음과 요인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고, 신앙의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처녀당신의 본풀이를 여성의 죽음과 관련한 내용과 제향의 주체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표2] 여성의 죽음 경위와 제향

본풀이	중요 사건	죽음의 경위	흉험	직능	제향의 주체
호근이 무루 으드렛당본 풀이	이씨 할망의 첩살이	오씨 집안에서의 고난에 따른 죽음 (자살)	화재	치병	오씨 집안
현씨 일월본 풀이	무업 재능의 획득과 오라비 죽음에 따른 좌절	오라비 따라 죽음 (자살)	급병	치병, 해 원	현씨 일가 및 주민
굴르락당본 풀이	오씨 처녀와 향교 선비와의 사랑	신분 제약에 따른 죽음(자살)	-	향교 사람 들 수호 (시험, 송 사)	향교에 다니 는 사람
불레낭할망 당본풀이	마을에 왜구 출몰	왜구에 의한 겁탈 로 죽음(타살)	부스럼	어부·해녀 수호, 산 육·치병	여성
토산으드렛 당본풀이	나주 뱀신의 입도 및 토산	왜구에 의한 겁탈 로 죽음(타살)	광증	치병, 액 맥이	여성

20) 다음은 노형본향당인 다랑곳 와당당 막개낭당의 본풀이 내용이다.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514쪽. “옛날에 송씨 한집의 딸이 빨래를 하여서 다듬이를 하다가 어명이 딸을 막개로 뜨려, 죽으난, 어명은, 도시 그 막개로 주살을 하니, 동녘 사람들이 열녀라하여, 본향으로 모시게 됩네다.”

	좌정				
마라도 애기 씨당본풀이	어부와 해녀의 난관	허씨 아기업계 희생(타살)	-	육아, 생업 수호, 본향	어부와 해녀 및 주민 전체
진안할망당 본풀이	마을 진성 쌍기의 어려움	처녀 희생(타살)	-	시험, 송사	주민 전체

위의 표를 보면 처녀들의 죽음은 자살과 타살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살 유형으로 호근이무루 으드렛당의 이씨 할망과 신천본향당의 현씨일월, 굴르락당 오씨 아미, 타살 유형으로 볼래낭당 박씨할망, 토산 알당의 토산한집, 마라도 허씨 아기업계, 진안할망 등이다.

처녀당신 본풀이 속 여성들 죽음의 내용을 깊숙이 살펴보면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요인이 작용한다. 내적 요인이 아니라 외적 요인에 의한 자살인 것이다. 자살을 택한 호근이무루 으드렛당의 이씨 할망과 현씨일월은 입무 실패의 결핍과 좌절에 따른 죽음이다. 굴르락당 오씨 아미는 사회체제에 따른 약자로서의 여성이 죽음을 겪는 경우이다. 볼래낭당 박씨할망과 토산 알당의 토산한집은 왜구의 겁탈에 의한 죽음이고, 마라도 허씨 아기업계와 진안할망은 공체의 유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 강요된 죽음이다. 이처럼 다양한 처녀당신 여성들의 죽음에 대하여 다음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처녀당신들이 드러내는 개별적인 죽음의 요인이 제주도 전체의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생활 환경과 어떠한 상관성을 맺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죽음은 환생 및 창조와 연관이 있다. 가임기의 여성이 겪는 궁극적으로 자살과 타살은 죽음의 한 형식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친 여성들은 창조와 생산력을 지닌 존재로 거듭난다. 자살은 스스로의 내면적 갈등의 심화와, 완성되지 못한 결핍에 의한 것이다. 결국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에 대한 해소는 죽음을 통해 이루고 있다.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이루어진 자살이며 그 요인이 해소되며 신성성을 지닌다.

제주 여성 본풀이에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기보다 타인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조상신에는 입무 실패 유형들은 반대하는 가족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당신에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있다. 일반신에도 외부에 의해 죽음

을 당한다. 타살은 외부적 강압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여성 대부분의 죽음 형태가 이에 속한다. 외부에 의한 죽음은 여성들의 고난을 통해 재창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로 인해 여성성이 나타난다.

II. 제주도 처녀당신의 죽음 형태

평범한 여성이 죽음을 겪고 신으로 좌정하는 경우는 제주도 당신본풀이나 조상신본풀이에서 종종 보이는 서사이다. 당신본풀이에서는 처녀당신 본풀이가 이에 속하고, 조상신본풀이에서는 여성들의 원혼 신격들이 이에 속한다. 당신으로 좌정하느냐 조상신으로 좌정하느냐가 다를 뿐 죽음을 겪고 신으로 좌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죽음의 서사를 공유하고 있는 조상신본풀이의 내용도 견주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처녀당신 본풀이의 서사 구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하여 평범한 여성들이 신격화하는 과정에 주목하여 죽음의 의미를 찾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죽음의 양상을 구분하고자 한다. 서사 내용 중에 처녀의 죽음에 관한 인과관계에 주목하여 죽음의 양상을 자살과 타살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각 본풀이에서 죽음의 양상이 보이는 차이와 억울한 죽음에 따른 분노 표현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죽음의 양상은 죽음의 원인을 토대로 다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 내면적 갈등에 따른 자살과 사회적 강압에 따른 타살이다. 위의 분류와 분석 과정을 통하여 처녀당신 본풀이 형성에 제주의 역사적 사건 및 시대상이 개입되었음을 밝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심층적 전개를 돕기 위한 작업을 한다.

1. 자살의 양상

처녀당신에서 여성이 내면적 갈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본풀이는 호근이무루 으드렛당 이씨할망, 신천본향당 현씨일월, 굴르락당 오씨아미가 있다. 이 본풀이 속 여성들은 자신의 내적·외적 갈등으로 인한 좌절로 상처를 입은 자들이다. 호근이무루 으드렛당의 이씨할망과 현씨일월은 심방의 팔자를 타고 태어났지만 완성되지 못한 결핍과 좌절로 인해 죽음을 선택한다. 굴르락당 오씨아미는 사회적 신분차이로 인한 혼사 장애로 좌절을 겪고 죽음을 선택한다.

호근이무루 으드렛당의 이씨할망과 현씨일월은 심방 팔자라는 운명을 타고났다.

이에 호근이 무루 요드렛당의 이씨할망은 자신의 팔자에 대한 운명의 거부, 현씨 일월은 운명에 순응한다. 이 둘의 주어진 운명에 따른 행보는 다르지만 두 여성 모두 똑같이 죽음을 겪고 억울한 원혼이 되어 분노를 표출한다. 분노에 대한 표출은 흥함을 주는 형태로 신앙민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제향을 받는다. 골락당 오씨아미는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으나 죽음의 원인에 있어 외부적 요인이 존재한다. 사회적 신분 체제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그것이다. 여기에 분노 표출과 관련한 서사는 보이지 않고,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향교 사람들을 수호하며 제향을 받는다.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살의 양상에서 보이는 죽음의 원인이다. 여성들은 자기 내면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한다. 여기에서 여성들이 자기 갈등에 따른 죽음이라고는 하지만 그 내면적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외부적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자살의 결정 과정에 대한 내·외적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죽음의 경위를 밝히는 하나의 단계이다. 따라서 자살 양상을 보이는 각각의 본풀이 서사를 정리하고, 여성 인물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위를 사회적 요인들과 연관하여 분석한다.

여성 신격화 과정에 어떠한 죽음의 양상을 공유하고 있는지 살피는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죽음을 밝히는 과정을 통해 제주 사회의 시대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입무에 대한 거부

호근이 무루 요드렛당의 이씨할망은 무업을 해야 하는 팔자를 타고났지만 저항을 하다 결국 실패와 좌절을 겪고 죽는다. 이씨할망은 심방 팔자를 피해 보려고 집을 나와 떠돌다 오좌수를 만나 살림을 차린다. 이씨할망은 첩이라는 설움을 받다가 억울하게 죽고, 오씨 집안에 흥함을 주는 존재가 된다. 그러자 오좌수의 아들이 이씨할망을 조상으로 위하기 시작하며 당 올레에 좌정하여 얻어먹고 살라고 한다. 이씨할망은 오씨 집안의 개별 집안에서 일월조상으로 모셔지기도 하고, 오씨 집안 공동체에 의해 당신으로 모셔지기도 한다. 후자의 예로 감산리를 들 수 있다.

다음은 호근이 무루 요드렛당 본풀이의 내용이다.

예리똥똥 제상곡 하로산, 허사복이 상마을, 허좌소 하마을, 황토나라 황토 부인. 호근이 가지 갈라, 올라 하로산은 우으로는 선달피 감티에 황골피 발 에 신고 귀약통 남늘개 소리 좋은 마새조총 둘러메고 목 좁은 약도리 둘러 지고 총산쟁이 개산쟁이 짐패산쟁이 거느려 심심산중 올라가서 노리 대각록 조록사슴 마쳐놓고 간헐 석석 먹어놓고 거느리던 화로산은 상단굴은 오좌수 중단굴은 백좌수 하단굴은 허좌수 거느리던 으드레한집.

그 당 앞의 살단 이씨할망 몸을 받은 으드렛당은, 이씨 본풀이가, 오좌수는 정잇고을서 좌수 살고, 이씨할망은 조천 이훈장 딸인데, 훗일곱 설 신병 들어 그 헤 저헤 사는 것이 열다섯 십오세가 돼여지니, 감내 7 뜯 좋은머리 반돌 7 뜯 열레기로 굴리어 북편 낭저 둘러차고 남방사주 좁저구리 북방사주 봉에바지 물멍지 단속곳에 주응대단 훗단치매 둘러입고, 줄누니 꾀보선 숨메 미투리 둘러신고 오른손에 은가락주 왼손에 늦가락주 둘러찌고 석자오치 호 롬중치 훗일곱자 황패잘리 열대자 진가랑포 둘러메고, 부모양친 일가친척 이 별하고 집은 떠나 가호마다 마을마다 멘마다, 낮의는 네 나는 가호 밤의는 불 썩 가호, 비동녕을 술랍동녕 하면서 정잇골을 들어가서 상청 올레 사고 배래여보니

호근마을 오좌수를 배리고 샀더니, 오좌수는 흐르 삼시 식스흐레 가고 오 고 흐던 차에, “너는 어떤 처녀가 거길 샀느냐?” 처녀 말이, “오좌수를 보고 샀읍네다.” “너 어디 사느냐?” “저는 조천관 이훈장 딸입네다. 훗일곱설 신 병들고 열다섯 십오세가 됐었으니 원천강 빼기라고 이런 곤데 오고 보니 오 좌수를 만났수다.” 오좌수 흐는 말이, “너 불쌍하다. 주인으로 돌아가서 혼 상에 밥을 먹고 우리가 백년언약 무어보자.” “그럽소서.” 부베간이 돼여지고 연삼년을 살다가,

그때는 소첩을 아니흐는 때니, 오좌수가 술째기 도망혀여 집으로 돌아오 니, 처녀가, “오좌수 어디 간고?” 가호마다 방문흐멍 호근이를 들어오니, 오 좌수첩으로 먼정 밖의 사두서 사랑간을 배래여 보니 오좌수가 앓았구나. 처 녀가 오좌수에게 합장배례 하면서, “저를 모르겠읍네까?” 오좌수가 흐는 말 이, “너는 어찌허여 이 77장 왔느냐?”

오좌수 큰부인 흐는 말이, “오좌수가 이거 어떤 일입네까? 놈의 처녀 팔조 굿혀시니 살을 매를 따까줍서.” 먼 문 밖의 집을 짓고 처녀를 살렸고나. 그 리 저리 연삼년을 살다가 오좌수가 죽으니, 죽은 후로 오좌수 큰아들은 양반 의 집의 소처를 정혀여시니 배랜 채도 안흐시고,

처녀는 신병이 나서 처녀도 죽으니 당 올레에 묻혀놓고 “당에 온 사름에 게 서숙이나 얻어먹고 행세하라.” 묻으니 처녀가 오씨 집마다 송엄을 주고

얻어먹고 살아 오랐으니, 으드렛한집의 본풀입네다.²¹⁾

위 자료는 감산리에의 오씨 집안 공동체에서 모시던 호근이무루 으드렛당 본풀이 내용이다. 호근이무루 으드렛당의 주신은 하로산또이다. 그 앞에 좌정하고 있는 이씨할망에 대해서 쪽 서술하고 있다. 이씨할망은 오씨 집안이 감산리로 분파되어 정착할 때 호근이무루 으드렛당과 함께 가지갈라 온 신이다. 이씨할망이 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본풀이다.

우선 이 당의 계보를 본풀이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당은 으드렛당이라고 할 수 있고, 하로산도와 황토부인이 좌정한 서귀포시 호근리 마을 당에서 시작한다. 하로산도는 마세총으로 노루와 사슴을 사냥하는 수렵신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상단골로 오좌수, 중단골 백좌수, 하단골 허좌수를 거느리는 으드레한집이다.

감산리 호근이무루 으드렛당은 호근리에서 가지갈라 온 당이다. 이 당의 신은 제상곡 하로산또, 황토나라 황토부인과 호근리 본향당 앞에 살던 이씨할망이 더해진다. 호근리 본향당이 감산리에 가지가른 당으로 분화되면서 호근리 본향당 앞에 살던 이씨할망이 감산리 호근이무루 으드렛당에서 오씨 집안에 의해 모셔진다.. 안덕면 감산리에는 도그샘이 일렛당이 있고, 그 제단 맞은편에 호근이무루 으드렛당이 있다. 이 당은 원래 서귀포시 호근리를 설촌한 군위 오씨 일가의 일월조상을 모신 당이었다. 오씨 자손의 혈족들이 분파되고, 감산에 와서 일가를 형성하면서 이 당이 마련된 것이다.²²⁾

현용준은 이 당의 본풀이는 으드렛당으로 칭하고 있으나 사실상 일렛당의 변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이유를 서귀포시 호근본향당 신명에서 찾아보면, 남신은 호근리와 위미의 하로산또이고, 여신은 일렛할망인 서귀본향의 황토부인이이라는 이유를 든다.²³⁾ 호근에서 감산리로 거리상 멀리 분파되면서 일렛할망이 으드렛당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²⁴⁾

하지만 위에서 밝혔듯이 호근본향당에서 전파되었다면 호근본향당이 으드레한집

2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653쪽. 고창학 구술.

22) 고광민,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28-31쪽.

23) 다음은 강정과 월평본향당본풀이다. “비오나라 비오철리, 흥토나라 흥토부인이다. 비오나라 비오천리 흥토나라 흥토부인 할로영주산 유람 오랐다가 강정에 혈기가 비추와시니 강정 내려오라 좌정할 동백자 하로산 서당국서 일렛중저.”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648쪽.

24)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109쪽.

이니 이 당 또한 으드레한집일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호근이무루 으드렛당 본풀이를 살펴보면 이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풀이 초반에 이 당은 호근에서 가지갈라 간 당이라고 하고 있다. 호근본향당은 돌혹 으드렛당이라고도 하고, 신명은 애비국하로산도 또는 애비국하로산도와 으둡아기단마실청이다.²⁵⁾ 그리고 제일은 팔일이다.²⁶⁾ 이 모든 사항을 살펴봤을 때 처음에 일렛당이었지만 으드렛당으로 변형된 것이라고 하는 현용준의 논의가 맞는지 의문스럽다.

호근본향당본풀이 속에서 팔일과 관련한 제일 및 일렛할망의 별거에 따른 좌정과 으드렛당의 근거를 찾아보려고 한다. 다음은 호근본향당본풀이 내용의 일부이다.

호근본향당(서귀읍 호근·서호리)

에비국하로산도. 하로영산 설명옥땅서 을축 삼월 열사을날 즈시에 솟아나, 밤과 낮을 골리지 못흐는디, 천양독이 옮겨가고 지양독이 옮겨가니, 밤과 낮을 골리어전 시오름 상고지에 와 좌정허여 보니, 사슴 각늑이 줄을 짓언 감시난 체암 것은 내여불고 멘뒤엿 걸 하나 잡아 걸머지고 들레넷도에 완 모욕한다. 모욕하고 고공산을 치들안 브레여보니, 삼진서 삼백관이 앓안 바독장길 뛰염시난 하로산도가 말씀흐뉘,

(중략)

붉은빛이 좌정홀 만허여 붉은बाट이 가 좌정허연 보니 팽일치 아녀난 일렛중저 갈라 좌정시켜 두고, 돌혹기 와 좌정허야 보니 좌정홀 만흐다 허여 좌정하고,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 정하고 당하니를 정허여 사는다²⁷⁾

위의 본풀이를 보면, 하로산도가 좌정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서귀포시 하원동 붉은빛에 부인을 일렛중저로 좌정시키고 하로산도는 혼자 호근(돌혹)으로 와서 좌정한다. 본풀이 내용에는 하로산도와 일렛할망의 육식금기에 관한 서사가 나오지 않지만 그 부분이 생략됐음을 알 수 있다. 하로산도와 일렛할망이 부부신으로 좌정처를 찾다가 하로산도가 서귀포시 하원동의 붉은빛에서 육식금기를 어긴 일렛할망

25) ‘으둡아기 단마실청’은 칠일당(칠일당/일렛당)의 ‘일곱아기 단마실청’의 변형으로, 일곱아기 단마실청하면 일렛당을 설명하듯이 으드렛당임을 밝히기 위해 으둡아기 단마실청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26) (사)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 서귀포시권』, 2009, 424쪽;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627쪽. 호근본향당의 신명은 애비국하로산도, 으둡아기단마실청이고, 제일이 8일이다.

27)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636쪽.

과 갈라섰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호근본향당본풀이의 신명은 예비국하로산또이다. 제일이 팔일이며 으드레한집이다. 이 호근본향당에서 전파되었다고 하는 호근이무루 으드렛당의 본풀의 신명은 예리뉘뉘 밧 제상곡 하로산 허자복이 상마을 허좌수 하마을 황토나라 황토부인이다. 이 신명에 나오는 황토나라 황토부인인 일뤼할망과 하로산또의 좌정이 동좌형(同坐形)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왜냐하면 황토부인은 일뤼할망의 성격을 지닌 신으로 호근본향당본풀이에서 하로산또가 하월 붉은밧에 일뤼할망을 좌정시키고 혼자 호근으로 가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호근본향당본풀이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근본향당의 제일이 팔일인 점과, 으드레한집이라는 본풀이 속 화소, 으둑아기 단마실청이라는 신명은 호근이무루 으드렛당의 전승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호근본향당본풀이에서 일뤼할망은 하월에 좌정하고, 하로산또는 으둑아기단마실청과 호근본향당에 좌정한다. 일곱아기단마실청은 일뤼당의 성격을 보여주는 요소이고, 피부병인 허물의 직능을 가진다.²⁸⁾ 이 본풀이에서 으둑아기 단마실청은 일곱아기 단마실청에서의 변이다. 치병의 직능을 가진 으드레 당신과 직능이 섞이면서 일어나게 되는 사례로 일반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감산리에 오씨 집안이 모시는 신인 하로산또가 으드레한집이고, 하로산또가 신으로 좌정한 당 앞에 살았던 이씨할망 또한 하로산또와 함께 감산리 오씨 집안에서 모신다. 고창학이 구술한 호근이무루 으드렛당본풀이는 예리뉘뉘 밧 제상곡 하로산, 허사복이 상마을, 허좌소 하마을, 황토나라 황토부인이 신명이다. 본풀이는 서두에 이 신의 본을 풀고, 이 신과 함께 모시는 이씨할망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풀고 있다.

이씨할망이 심방의 팔자를 타고났고, 그 팔자를 거스르려고 노력하다 죽음을 맞이하지만 신으로 좌정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 이씨할망이 가진 심방 팔자라는 의미와 그것을 왜 거부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둘째, 이씨할망의 자살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셋째, 이씨할망이 죽음 이후의 행

28) 일곱아기 단마실청은 일뤼당에 있다. 토산 옷당의 일뤼한집본풀이에서 작은부인이 일곱 아기들 중 막내 아기를 잃어버리고 찾아보니, 물비리 갱비리 너벅제 흥허물이 되고, 이 아기를 달래는 의례를 행한다. 직능은 이 아기의 상태에 따른 피부병, 허물에 대한 치병이다.

보가 어떤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와 같은 의문에 해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이씨할망이 신격화되는 요인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

(1) 비루함-심방, 첩

이 본풀이에서 주목해 볼 것은 이씨할망의 심방 팔자에 대한 거부와 계속되는 고난, 신으로의 좌정이다. 무업의 팔자를 타고난 여타 여성들은 타인에 의해 입무 행위에 방해를 받고 저지당하지만, 이씨할망은 스스로 타고난 팔자를 바꿔보려고 한다. 이러한 운명에 대한 저항은 오좌수의 첩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고,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씨할망의 서사 내용을 간략히 풀면 다음과 같다.

- ① 오좌수는 정릿고을에 살고, 이씨할망은 조천읍 이훈장 딸이다.
- ② 이씨할망이 일곱 살 때 신병이 들고, 열다섯 살에 집에서 쫓겨난다.
- ③ 이씨할망이 떠돌다 정의에서 오좌수를 만나고 첩살림을 한다.
- ④ 삼년 후 오좌수가 집으로 돌아가 버린다.
- ⑤ 버림을 받은 이씨할망은 오좌수 집으로 찾아간다.
- ⑥ 오좌수 큰부인이 이씨할망 거처를 마련해준다.
- ⑦ 오좌수가 죽자 오씨 아들이 이씨할망을 푸대접한다.
- ⑧ 이씨할망이 신병이 나서 죽자 당 올레에 묻는다.
- ⑨ 이씨할망이 오씨 자손들에게 흠을 준다.
- ⑩ 이씨할망은 오씨 집안에서 제향을 받는다.

이씨할망은 일곱 살에 신병이 든다. 제주도 본풀이에서 입무(入巫)와 관련한 인물 서사는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에서 볼 수 있고, 조상신에 대한 자료가 더 많다. 강소전은 조상신으로 좌정한 심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²⁹⁾ 그 연구에서 입무 관련 본풀이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고 성별에 따른 입무 과정과 결과를 살핀다. 남성은 입무 실패가 없고, 뛰어난 심방임을 나타내며 조상신으로 모셔지고, 여성은

29) 강소전, 「심방 관련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탐라문화』 3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가족의 방해로 고난 후 죽음으로 귀결되고 조상신으로 모셔진다. 이 논문에서 밝힌 심방 관련 조상신의 특성 중 하나는 여성이 자신의 심방 팔자를 부정하지 않고, 그 운명에 순응하며 필사적으로 입무의 완성에 다가가려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호근이마루 으드렛당의 이씨할망은 심방 팔자라는 운명에 순응하지 않는다. 이씨할망은 열다섯이 되니 집을 나와 떠돈다. 훈장의 딸로 태어났으나 신병을 이유로 집에서 내쫓김을 당한 것이다. 이러한 내쫓김과 관련한 서사는 무업의 팔자를 타고난 여성들이 겪는 고난 서사의 한 부분이다. 양반의 집에서 태어나고, 심방 팔자로 인해 미치광이처럼 떠돌아다니거나, 죽임을 당하는 예는 일반적이다.³⁰⁾ 이씨할망은 집을 나와 집집마다 마을마다 낮에는 연기나는 집, 밤에는 불이 켜진 집으로 동냥을 하면서 정의고을로 간다. 무가 말명에 관습적으로 나오는 ‘낮엔 네난 가우 밤엔 불싼 가우’의 내용을 풀어낸 내용으로 이는 ‘굿 하는 집’을 가리킨다. 무업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징으로 읽어낼 수 있는 지점이다. 오좌수와 만남에서 대화 장면을 보면, “자신은 연천강을 썰기라고 이런 곳에 오고 보니 오좌수를 만났다.”라고 한다. 연천강을 썰긴다는 말은 팔자를 속이려고 한다는 것이고, 심방의 팔자에서 평범한 인생으로 고쳐보려 하는 것이다.

이씨할망이 심방 팔자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사회에서 심방이라는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전적본풀이에서 한양일월에 빙의된 딸이 죽어가는데도 아버지는 양반의 체면을 내세우며 딸 대신 종에게 굿을 하게 한다. 눈미 양씨아미본풀이에서는 양반집 딸이 심방질을 하려 한다며 방안에 가두고 개장국을 끼얹어 죽게 한다.³¹⁾ 이처럼 심방 일을 하는 것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양반의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만큼 사회적 멸시를 받는 일이라는 의미이다.

이씨할망은 자신의 운명에 적극적으로 저항한다. 하지만 입무 실패로 죽음을 겪는 다른 본풀이의 여성들과 결과는 같다. 조상신본풀이에서 죽음을 겪는 여성들은 집안 식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타살의 형태지만, 이씨할망은 자살을 선택한다. 그 이면에는 심방 팔자 거부의 실패와 첩이라는 고난, 계속되는 삶의 비루함 이

30) 초공본풀이의 유정승 떠넘어가는 광증으로 떠돌게 되고, 조상신본풀이 중 눈미 양씨아미는 오빠들에 의해 감금을 당하고, 개장국을 끼얹어 죽게 된다.

31) 김현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보고서, 2006, 276-314쪽. “양반의 집 후랜디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아기씨를 사랑방에 또 가두우니, 아기씨가 주수리남동이 7찌 움추려 앉아 푹푹 죽어간다. 악생지데 악생이 느진덕정하님이 상전 데리 나가 나사 노념을 흐오리다.”

자살이라는 상황까지 몰아간 것이다. 이씨할망은 연천강을 뺨기려고 집을 나왔다. 즉 운명을 속이려고 이씨할망은 오좌수와 살림을 차리고, 스스로 첩이 되면서까지 심방의 팔자를 거부한다. 하지만 오좌수는 이씨할망과 삼년을 살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다. 이씨할망은 오좌수에게 버림받는 고난에도 자신의 운명 바꾸기를 멈추지 않고 오좌수를 직접 찾아간다.

여성이 남성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위는 제주 본풀이 서사에 자주 등장한다. 이씨할망도 오좌수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자 주저앉거나, 한탄만 하지 않고 직접 오좌수의 집으로 찾아간다. 이씨할망을 본 오좌수의 큰부인은 이씨할망이 살 도리를 마련해준다.³²⁾

이씨할망이 오좌수 집에 찾아가고, 큰부인이 이씨할망을 대하는 태도처럼 제주도 당신본풀이에서 처첩간의 갈등은 잘 보이지 않는다. 당신본풀이 중 <토산 일렛당 본풀이>의 경우에도 작은부인이 마라도로 귀양 간 큰부인을 데려온다. 이씨할망의 경우에는 큰부인이 이씨할망에게 따로 살림을 차려서 도와주지만 오좌수 아들들은 이씨할망을 푸대접한다. 이씨할망은 오씨 집안 식구의 학대로 피하고 싶었던 신병이 도지면서 죽게 되고 당 올레에서 얻어먹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이씨할망의 적극적인 운명에 대한 저항은 계속적인 고난으로 실패하게 되고, 끝내 좌절되고 만다. 심방의 팔자와 첩이라는 사정에 따른 멸시는 비루한 처지의 끝날 것 같지 않은 삶의 고난으로 밀어 넣었고, 이씨할망의 이러한 운명에 대한 저항과 실패는 죽음을 선택하게 한다.

이씨할망은 심방 팔자의 운명에 저항하며 집을 떠났고, 오좌수를 만났지만 버림받고, 오좌수를 찾아갔지만 차별이라는 고난을 겪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한다. 오좌수 아들은 당올레서 얻어 먹으라며 이씨할망을 그곳에 묻는다. 이처럼 이씨할망은 죽은 후에까지 비루함을 겪는다.

(2) 이씨할망의 분노 표출

호근이무루 으드렛당의 이씨할망은 죽음을 겪은 후에 오씨 집안에서 제향을 받

32)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고창학 구술, 각, 2007. 큰부인 혀는 말이, “오좌수가 이거 어떤 일입네까? 놈의 처녀 팔즈 굿허시니 살 매를 따까줍서.” 먼 문 밖의 집을 짓고 처녀를 살렸고나.

게 된다. 그렇게 푸대접을 받던 이씨할망이 어떻게 오씨 집안에서 신격화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일차적으로 이씨할망의 분노 표출로 인한 흥힘과 그 흥힘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씨할망은 오좌수의 아들에게 푸대접을 받아서 죽고, 죽어서까지 모멸감을 느낀다. 죽은 후 이씨할망은 오씨 집안에 화재를 일으키며 복수한다. 오좌수의 집안에서 이씨할망을 푸대접하고 박대하자 이씨할망은 신병이 도진다. 이씨할망의 한이 폭발하는 시점은 죽고 난 후 처리방식에 있다. 이씨할망이 죽자 오씨 아들은 당올레에 묻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얻어먹으라고 한다. 이 지점에서 이씨할망의 비루한 인생이 끝으로 물리게 되며 응축되었던 이씨할망의 한이 폭발한 것이다.

이씨할망은 죽어서도 오씨 집안에서 제향을 받지 못하고, 당에 오고 가는 신앙민들에게 얻어먹는 처지가 된다. 이는 이씨할망의 가슴에 불이 붙는 고통과 한을 키우게 한다. 이씨할망의 한은 오씨 집안에 불을 일으키는 요소로 나타난다. 이씨할망은 심방의 팔자를 타고났지만 운명을 거스르는 쪽을 선택한다. 오좌수의 첩으로 살고, 버려지지만 오좌수를 찾아가는 적극성을 보인다. 하지만 오좌수 집안에서의 푸대접으로 자신의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는 좌절을 겪고, 분노한다. 죽음 후에도 더 큰 고통과 원한으로 가득한 이씨할망의 마음은 오씨 집안에 흥힘을 주고, 결국 이씨할망은 오씨 집안의 제향 실현에 성공한다. 제주도 신앙 중 첩이 제향을 받는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씨할망이 오씨 집안에 주는 흥힘은 화재이다.³³⁾ 이씨할망의 화재에 의한 분노 표출은 당신본풀이의 여성신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화소이다. 다른 치병신들은 급병 또는 신병 같은 병을 주는데 이씨할망은 불을 내고 있다. 이처럼 화재와 관련한 흥힘은 옥황상제 하위 신격인 화덕진군의 직능이다. 이씨할망의 경우, 당신의 신격이 화재를 일으키는 직능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파괴력을 지닌다. 이씨할망이 오씨 집안에 불을 일으키는 이유도 오씨 집안에서 받은 멸시에 대한 응징으로 그 집안을 말살하고 싶은 뜻이 담겨 있다.

이씨할망은 첩이다. 자식을 낳지도 않아서 그 집안에서 제사를 받을 수 없는 존

33) 고광민,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31쪽; “호근이무루 으드렛당을 5년 동안 사제를 담당했던 한 제보자를 만나서 들었던 말이다. 이씨 처녀의 원령은 신원을 요구하여, 오씨 일가에 화재를 두 번이나 일으켰다고 한다.”

재이다. 하지만 이씨할망은 오씨 집안에서 신격화하여 위함을 받는다. 이씨할망이 제사를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은 사람들의 두려운 마음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씨할망은 오씨 집안 사람 개인에게 흉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씨 집안 전체에게 흉험을 준다. 화재는 한번 일어나면 그 집을 없앨 수 있고, 마을 전체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무서운 재앙이다. 화재가 난 집에 불찍긋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받아다가 의례를 한다. 이는 화재가 아주 무서운 재해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불찍긋을 하기 전에는 화재가 났던 집에 외부 사람의 통행을 금지시켰다. 조그만 불씨가 온동네로 퍼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이처럼 화재는 개인에게 주는 흉험이 아니고, 한 집안, 더 나아가서는 온 마을에게 내리는 재앙이다. 이처럼 무서운 흉험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원혼을 달래어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오씨 집안에서는 심방이었던 이씨할망의 흉험을 막기 위해 제향을 하는 것이다.

본풀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인연을 맺은 후 남성은 사라진다. 여성과 남성의 결연 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고난이 시작된다. 여성은 여러 난관과 죽음을 겪은 후 신으로 좌정한다. 호근이무루 으드렛당 본풀이에서도 이씨할망과 살던 오좌수는 도망가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러한 무책임한 남성들과의 인연으로 처녀는 고난을 겪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처녀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흉험을 준다. 이렇게 적극적인 표출로 자신을 내보이고, 단골에게 제향을 받으며 존재 가치를 실현한다.

이씨할망처럼 첩의 관계에서 남자의 무책임, 한 맺힘의 죽음을 보이는 본풀이는 조상신본풀이에 종종 나온다. 대정읍 하모리 이씨할망 조상본이 대표적이다. 김씨 하르방이 과거보러 육지 갔다가 주막에서 하룻밤 자게 되었고, 거기서 만난 이씨할망을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오지만 얼마 살지 못하고 이씨할망이 죽었다. 그후 김씨 하르방이 아파서 문점하니 이씨할망의 조화라고 해서 모시게 된다. 이와 같은 육지에서 따라온 여성이 첩으로 살다가 죽게 되고 원혼이 되어 집안 조상이 되는 경우가 조상신본풀이에 종종 보인다. 이러한 맥락을 보았을 때 이씨할망과 유사한 서사를 지니고 있으며, 서사만으로도 보았을 때는 호근이무루 으드렛당의 이씨할망 본풀이는 조상신본풀이와 유사한 점이 있다. 하지만 이씨할망은 마을에 당이 있고,

오씨 방계가 있는 마을에서 함께 모신다는 점에서 조상신이면서 당신인 것이다.

일반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 또는 조상신본풀이의 여성 고난 서사는 유사하나 좌정 방식은 다르다. 일반신본풀이 속 여성은 출생이 비범하고, 신으로의 좌정 또한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당신본풀이나 조상신본풀이 속 여성은 평범한 인물로서 신으로 좌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것이 두려움을 주어 제향을 하게 하거나, 심방으로서의 뛰어난 자질이거나, 영험한 직능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2) 입무에 대한 순응

현씨일월본풀이에서 현씨일월은 무업을 해야 하는 팔자에 적극적인 순응을 보인다. 하지만 환경적 요인에 의해 좌절을 겪으며 무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죽는다. 무업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다가 현씨일월의 오라비가 죽으니 현씨일월은 무업에 대한 일이 미완성인 채로 자살한다. 오라비의 죽음은 무업 완성의 희망에 시련과 좌절이다. 오라비로 인해 무업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무업의 미완성은 자살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현씨일월의 무업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결핍은 한이 되어 단골에게 급병을 준다.³⁴⁾

현씨일월당은 신천 천미연대 부근에 있다. 전답 안에 있는 동산에 있으며, 자연석으로 된 제단 위에 큰 나무 두 그루가 있다. 이 당의 특징은 신목에 한복 치마 저고리를 입혀놓은 것이다. 왼쪽의 후박나무에는 한복 치마를 입혀 놓고, 오른쪽의 녹나무에는 지전물색이 걸려 있다.³⁵⁾ 당신의 신체에 의복을 입히는 것은 당신의 상징적 면모로서 신체를 당신과 동일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형식은 현씨일월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³⁶⁾ 현재도 현씨 집안에서는 신과세를 가면서 현씨일월과

34) 고광민,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87쪽; “밤인 금정질 낮인 낮인낭 옥정지영 선씨상단결에 아기에 머리메탁 우으로 역기허영 알로 사는디엔 불려주난 기미년 육섯덜 열나흘날 망명도주 김씨선생 불러다가”; 현씨일월이 좌정하여도 아무도 제향을 안하니 현씨상단결 아기에게 두통, 구토를 불러준다는 내용이다. 신명숙 구술 자료로 1981년 음력 9월 18일 현씨일월당제 때 고광민이 직접 채록한 자료이다.

35)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 서귀포시권』, 2009, 184쪽.

36)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 서귀포시권』, 2009, 184쪽; “성읍2리 분향 구렁뱀당에도 돌로 된 신상에 한복을 입히고 망건을 씌웠다. 이 당의 당신은 영등하르방, 영감도로 높은 벼슬을 했던 조상이다.”

오빠인 현씨열이에게 설빔을 바치고, 묵은 해의 옷은 태워서 올리는 의례를 행한다. 이러한 의례는 반드시 정월에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집안에 큰일이 있을시 새 옷을 바치면서 정성을 올리고, 묵은 옷은 태워 땅에 묻는다.³⁷⁾ 현씨일월의 경우에는 오라비가 마련한 의복을 현씨일월이 입지 못한 사정에 따른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앙민들이 예쁜 의복을 입힘으로써 꽃다운 처녀의 죽음을 위로한다고 볼 수 있다. 의복을 입히는 행위는 다른 본향당 의례에서 당신에게 ‘졸찌거리’를 올리는 의미와 유사하기도 하지만 무업의 미완성에 따른 결핍과 좌절의 한을 푸는 해원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다음은 <현씨일월본풀이> 내용이다.

아바님은//선씨외다 어머니는//고씨외다 그몸으로//무위오애
 여주 애기//흔세설 나난 삼천군병//흔일곱설엔 죽었다 돌아탄성
 열다섯 살//대천겁을//저울리젠 ㅎ난 열두금시악도 엇고//사무관디 섭수쾌
 지//없어지난 상오라방은//누이 탄복 ㅎ여가난
 서룬 동기간아//서울이라 상납가근//진상 갔당 돌아올 때는//섭수쾌지
 ㅎ영 오마//금장귀도//살장귀 ㅎ영오마 영해여근//고척당으로 나고 가난
 밤의 되난//금정지여 펜안 바당//박씨 화장 강씨 할망//선주 사공
 물러 나가난//펜안 바당 나고 가는//금정지연 간간무종이//ㅎ였구나
 선씨애기//연두의 아잔 바래여 보난//상오라방 오누이 뇌똥//간간무종이
 ㅎ였더라 아바님도//무위오애 어머니도//무위오애
 나는 살아//똥을 ㅎ려 연두 알려레//떨어지연 목을 격껌//죽어가난애
 밤인 금정질//낮인 아진낭//옥정지영
 선씨 상단꺀애//아기에 머리메탁 우으로 역기 ㅎ영//알로 사는디엔 불러주난
 기미년 육섯덜//열나흘날 망명도주//김씨선성 불러다가//베 다끄라
 솔 싱그라//신남 싱그라 영담 돌르라//제전 돌령 서이 세끼//무덤을 ㅎ여된
 어느 즈순사//파아 간디 서룬 어멍//으든하나 나이엔 만민단꺀애//경 ㅎ다근
 신이아이//[청취불능] 마흔하나 나나네//유래전득 ㅎ엿수다
 만대유전 ㅎ영//마흔서이 나난 별초 ㅎ레 오란보난//아방사 파간디
 어멍사 파간디//봉분 ㅎ나베끼 어십니다
 예 ~ //언담입네다//예 ~ 재판 초판//신가슴 열립네다//예 ~³⁸⁾

37) 류진옥, 「제주도 조상신 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103쪽.

38) 한국학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3』, 1983, 1217-1221쪽. 신명숙 구술.

위 본풀이는 1981년 현씨일월당제에서 고광민이 직접 채록한 자료이다. 음력 9월 18일에 신명숙 심방이 ‘앗인제’로 행하였다고 하였다.

심방 팔자를 타고난 것은 어떠한 집안에서 문제로 인식하였고, 문제의 당사자는 원혼이 된다. 원혼이 된 인물은 자신을 기억하고 받드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현실의 세상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결핍이 있는 조상은 후손과의 적극적인 관계 맺기를 통하여 정상으로 환원하고자 하였다. 이런 점 때문에 조상신본풀이의 특성이란 정한 조상신, 단골, 신앙과정과 전승 등의 측면에서 관련 내용을 남겨 둔 것이다. 예기치 않은 조상의 요구에 후손은 적극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에 조상이 큰 복을 내리는 것으로 여겨지자 후손들은 이것이 현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데까지 나아간다고 받아들였다. 이런 점은 조상신 신앙이 널리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³⁹⁾

(1) 입무의 미완성과 좌절

현씨일월은 신하천리 양반의 집 자손이다. 심방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육간제비를 획득하는 것에 있다. 심방의 팔자로 태어난 여성과 관련된 본풀이 속에서 어릴 때 육간제비를 줍거나, 신병이 들거나 하는 서사는 보편적이다.⁴⁰⁾ 현씨일월 또한 어릴 때부터 신병을 앓거나, 육간제비를 줍는 경우가 드러난다. 이는 심방의 능력을 타고났음을 알리는 대목이기도 하다.

시술에 빙이 들고 죽역살악 후다가 일곱술에 살아나고, 또, 열다섯 시오세에 신병이 들어, 또, 죽역살악 후여, 예레둑, 열아홉술에 살아나니,⁴¹⁾

누이는 식설이 되어가난 애기 식설인 때부터 태산 몸에 태산 신경 정체가 되영 칠년 한기가 7물아가당 푼릿푼릿 검은 울국 되어집니다. 혼 일곱 살 나가난 듣도 앓도 못하여, 선씨일월 어진 조상은 일곱 살 나곡 여제아이 되어가난 진정 죽게 되영 방안 출입 못헛디다마는 일곱설이 나가나네 고씨전

39) 강소전, 「심방 관련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탐라문화』36, 179쪽.

40) 현용순,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148쪽. 초공본풀이의 유정승 딱넘아가기가 대표적이다. “유정승 딱넘아가기 오섯술 나는 해에 육한대스가 지나단 열전 오섯푼을 내여주난, 아기씨가 방둥이 허단 물팡돌 앞에 놓아둔게 일곱설 나는 해에 안맹이 어두언 죽역 살악.”

41)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447쪽, 정두삼 구술.

책영감을 벗삼아뿔 초요드렛날은 누워시난 북소리가 귀에 정정 나가난 일어나보저 확 일어나난 우들락이 일어납디다. 삼두전 거리에 풀풀허게 기어강 보난 보이는 것은 한복 입은 포교임제 살안 주맹기가 잇엇구나. 아이여, 돌려가 주맹기를 봉강 보난 돈이 으섯 님 술강하게 나오라집데다. 하도 짓병 업전이에 차고 와롱와롱 걸어집데다. 굿소리 들으멍 징소리 들으멍 굿밧에 좇아갓구나. 42)

여즈 애기//혼세설 나난 삼천군병//혼일곱설엔 죽었다 돌아탄성
열다섯 살//대천겁을//저울리젠 허난,43)

육간제비는 멩두와 유사한 관념으로 심방으로 선택된 자들이 연계되는 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육간제비를 주운 현씨일월은 신병의 징조로 눈이 어두워지고, 죽었다 살아났다는 반복한다. 육간제비를 줍는 행위는 무조신령이 무업을 하도록 하는 징표와 같은 것으로 질병을 앓고 입무를 해야 낫는다는 관념과 같다. 질병은 무병이라 할 수도 있지만, 다만 그 병은 무조가 심방이 되도록 지시하는 징표로 신병을 앓게 한다고 관념하기도 한다. 이처럼 유정승 따님아기나 현씨일월처럼 육간제비를 줍거나, 신병을 앓는 이들은 무조신으로부터 선택 받은 자들이고, 신의(神意)에 의해 입무했다는 관념이 들어있다.44) 이들은 신병을 앓기 때문에 입무를 받아 들여야 편안해질 수 있다.

입무 방식은 신격의 병의, 신병, 무업적 능력의 표출 등 심방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요소로 드러나게 된다. 현씨일월 또한 신병을 거치고 무업적 능력의 특출함을 보이면서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심방은 다양한 양상을 통하여 선택된 자임을 나타내고, 무업 현장에서 훈련을 거쳐 입문하게 된다. 현씨일월은 이 모두의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현씨일월본풀이> 중에는 능력이 뛰어난 심방의 자질에 관한 요소들이 서사에 나타나기도 한다. 현씨일월은 호근이므루 으드렛당의 이씨할망과 달리 심방 팔자의 운명을 받아들인다. 현씨일월은 양반 집에서 출생했지만 세 살부터 신병이 든다.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 살아나기를 계속한다. 고산옥 본에서 현씨일월은 세 살 때부터 신병을 심하게 앓는

42) 제주대학교 국어교육연구회, 『백록어문』, 1988, 355쪽, 고산옥 구술.

4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3, 1983, 1225쪽, 신명숙 구술.

44)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편』, 민속원, 1974, 92쪽.

다. 방안 출입도 못할 정도로 아프다가 북소리에 홀린 듯이 일어나 걷고 육간제비를 쥘는다. 그때부터 김씨 심방과 다니며 굿을 배운다.⁴⁵⁾

현씨일월은 양반집 자식이 신병을 앓고 심방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초공본풀이 속 유정승따님아기와 닮아있다. 유정승 따님아기는 심방들의 첫 조상이다. 이는 현씨일월이 심방 팔자를 타고 났으며, 심방의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심방들의 최초 조상인 유정승따님아기에 빗대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현씨일월의 당 제일은 9월 8일, 18일, 28일이다. <초공본풀이>에서 젓부기 삼형제인 무조신의 탄생일과 같다. 신명숙 본에서 현씨일월을 초공본풀이 속 젓부기 삼형제가 무조신으로 좌정하는 서사를 보태고 있다.⁴⁶⁾ 이러한 서사의 구성은 심방들의 조상인 무조신의 권위를 빌어 심방의 자질과 위상을 돋보이게 한다.

현씨일월이 자살을 택한 요인은 더이상 굿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좌절감 때문이다. 현씨일월은 여타 조상신본풀이에서 입무 방해로 인한 타살의 경우와 다르다. 입무 방해를 하는 자도 없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살을 택한다. 바로 오라비의 죽음 때문이다. 현씨일월이 굿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들은 오라비들인데 그들이 죽으면서 무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굿을 할 팔자로 태어났으나 굿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처녀의 한맺힌 죽음이라는 화소는 강력한 힘이 있다. 설화 전승도 현씨일월의 무업이나 능력, 신앙보다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씨 남매는 연날에 어멍 아방이 엇영 오누이만 살앗주게. 오누이만 사는디
오라방은 육지레 가다네 바당물에 털어정 죽어벳주. 털어정 죽어부난 누인
“난 살앙 무신거 허리. 오라방 죽어불은 나도 죽어불주.” 허멍 누이가 바당에
털어정 죽어부난 그것이 현씨일월웁니다사.⁴⁷⁾

4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3』, 1983, 1225쪽.

46)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3』, 1221쪽. <현씨일월당 본풀이(1)>, 신명숙 구술: “옛날에 콩이아달 삼형제(무조신인 초공의 아들 삼형제) 모양으로 팽귀낭과 유즈낭 비영(팽나무와 유자나무를 베어다가) 신두집을 지영 이거 원전싱 팔즈 굿던 조상님이 스주 굿던 글이라 전득허멍 활이라고 전득흡네까 팔즈 굿인 조순덜토 조상에 덕덕으로 어주웨 삼녹거리 서강베포땅 팽귀낭광 유즈낭 비영 벌목해영 당주집을 짓던 무조신인 초공의 아들 삼형제가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를 살려다가 그 어머니의 살릴 집을 짓던. 조상님도 초으드레 본맹뒤도 살아옵서. 여레드레 신맹뒤도 살아옵서. 수므으드레 살아살축 삼맹두도 살아옵서.”

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3』, 2019, 308쪽, <현씨일월 남매>.

현씨일월처럼 입무 실패로 인한 한 맺힘의 죽음을 보이는 서사는 조상신본풀이에 자주 나온다. 조천읍 눈미 와산 양씨아미는 심방이 될 팔자를 타고 태어났고, 어머니 귀양풀이에서 곳을 따라할 정도로 능력이 뛰어났다. 그러나 양씨아미는 김씨 심방을 따라 갔다온 것을 오라비한테 들키고 방안에 갇혀 굶고, 개장국까지 뒤집어쓴 채 방안에서 동이처럼 사려 죽는다.

성산을 신평리 원당할망 또한 입무 실패에 따른 죽음과 관련하여 유사한 서사를 공유한다. 강칩 하르방이 서울에 갔다오면서 원당할망을 집으로 데려오고, 첩을 삼아 산다. 원당할망은 무당이었지만 심방질을 못하게 하니 방안에서 울다가 불에 타 죽는다.

이처럼 입무 실패와 죽음의 작법은 조상신본풀이의 보편적인 입무 관련 서사이다. 심방 팔자를 타고 난 여성들은 대부분 입무에 실패 한 채로 죽음을 맞는다. 이들은 한이 응어리로 응집되어 동이처럼 죽거나, 한이 가슴에 쌓여 불이 나면서 화재로 죽거나, 현씨일월처럼 바다에 뛰어드는 형식을 취한다. 조상신본풀이에서 대부분의 입무 실패로 인한 죽음은 타인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것이지만 현씨일월의 죽음은 자신의 선택이다.

(2) 현씨일월의 분노 표출

여성들은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신앙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분노를 표출한다. 그 방식으로는 빙의를 내세워 억울한 사정을 말하거나, 광증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억울한 죽음을 겪은 여성들의 분노 표출은 흥함을 주는 것과는 연결되어 있는데 흥함은 자신을 내세워 제향을 받기 위한 수단이다. 신앙민은 치병을 주며 제향을 원하는 신에게 제향하며 흥함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처럼 여성의 분노 표출은 흥함과 연결되고, 흥함은 직능과 관련을 맺으면서 신앙민들의 제향으로까지 확장한다. 이처럼 흥함, 직능, 신앙민의 제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당신앙이 축소되기도 하고, 고정되기도 하며 확장되기도 한다.

현씨일월의 좌절 요인은 처녀 원혼의 죽음에 관한 강력한 파급력과 흥함에 대한 두려움, 뛰어난 심방 자질에 대한 영험함 때문이다. 현씨일월은 심방으로 신줄이

있는 경우이고, 능력이 뛰어난 심방임을 증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신줄 있는 인물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더한 두려움을 안긴다. 심방으로서 살아있을 때의 영험함과 직능은 죽어서도 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라비는 누이동생을 위해 무구와 의복을 구해서 제주 바다 성산면 신천 마을에 곧 당하게 되나, 광풍이 일어나 배는 파선이 되고 오라버니들은 죽게 된다. 현씨일월은 살아서 뗏 하나며 바다에 빠져 죽는다. “선씨일월이 죽었습니다.” 하니, 마을에서 “건져 오라.” 하여 선씨일월을 건져다가 선남밭에 묘를 설립하였다. 산하천리 굿을 하려고 하면, 선씨일월 뭍으로 공깃상을 따로 차리고, 한편으로 일월로 놓고, 또 한편으론 심방으로 놀았습니다.⁴⁸⁾ 신천리 부락에서 현씨일월을 건져다가 선남밭에 묘를 설립한다. 여기에는 원령을 거두어 한을 풀어주는 민중의 심리적 기제가 들어있다.

현씨일월은 현씨 상단골, 고씨 중단골에서 개인 집안의 조상으로 모실 뿐 아니라 마을 공동체에게도 제향을 받는다. 조상신에서 당신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확장 요인을 찾아보면, 현씨일월이 주는 흥함으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단골들이 부(富)를 축적했기 때문이다. 조상신이 되는 처녀 원혼은 특정 단골에게 흥함을 주어 제향을 받거나, 빙의로 인해 요구사항을 전달한다.⁴⁹⁾ 처녀 원혼의 요구를 수용하며 결연하기로 한 단골은 조상신과 자손의 관계로 조상신을 제향하는 존재가 된다. 이제 처녀 원혼은 원혼에서 조상신으로 좌정하게 되고 자신을 섬긴 자손에게 내린 흥함을 거둔다. 그뿐 아니라 집안의 번성을 약속하게 된다. 현씨일월을 조상으로 모시는 현씨와 고씨는 천하 거부가 되고, 좌수 또는 훈장으로 신분 상승을 이룬다. 이러한 부의 축적은 현씨일월 신앙의 전파를 돕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3) 신분차이에 따른 혼사장애

안덕면 사계리의 골르락당은 처녀 원혼인 오씨아미가 좌정한 당이다. 오씨아미는 사회적 체제에 따른 신분적 차이로 인해 죽음을 겪고 신이 된다. 오씨아미는 향교

48)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447쪽, 정두삼 구술.

49) 강소전, 「심방 관련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탐라문화』 3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172쪽.

에서 심부름을 하다가 선비를 사랑하게 되지만, 신분 차이로 사랑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자살한다. 이러한 자살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남성 지배 사회에 의한 죽음이다. 오씨아미의 죽음과 신분차이와 관련성을 두고 살펴본다. 다음은 골르락당 오씨아미본풀이 내용이다.

가) 올라사자 7느락당 오씨아미. 이 본향은 옛날 선비덜이 상교 땡길 때, 대정 상교 수복(守僕)이 툇인다, 원체 얼굴이 좋아노니가 선비덜이 막 뜨르는다, 헛 선비헛고 미쳐시나 상하간을 골리는 때문에 살림을 못사난 이 아기 씨가 상교에서 7살혀여 죽언 7느락당으로 좌정헌 한집이우다.⁵⁰⁾

나) “상교상청 골르락당 오씨아미 구실동이 좁저구리 대흥대단 훗단치매 물레물색 녁미화석 좋아헛던 오씨아미. 비바리로 상교에서 술심부름씨 헛단 죽으난 불쌍헛연 상교뒤터 당으로 들어샐수다. 상교에 땡기단 사름은 다 이 당으로 강 위흡네다.”⁵¹⁾

위의 자료로 오씨아미의 신분과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있다. 가)는 선비와 종의 딸이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만 서로 다른 신분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니 여성이 자살한다는 내용이다. 나)는 비바리로 향교에서 술 심부름을 하다 죽으니 불쌍하다고 해서 향교 뒷터에 당으로 설립한다. 향교에 다니는 사람은 다 이 당으로 가서 위한다.

가)와 나)를 종합해 보면 신분 차이로 인한 처녀의 애절한 죽음이 주요한 골자이다. 오씨아미는 향교에 있는 종의 딸이며 심부름하던 처녀이다. 이 처녀는 향교에 다니는 선비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지만 서로의 신분차이로 장애를 겪게 된다. 그로 인해 처녀가 자살하고, 향교에서 신으로 모시게 된다.

이 당신화는 일상적인 만남과 초월적인 만남의 대립을 통해 초월적인 존재가 신적인 존재로 구현됨을 가능케 하고 있다. 결국 향교 사람들은 이들 만남의 대립을 해소 혹은 승화를 바탕으로 초월적인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분차이에 의한 결연 실패는 여성이 추구하고자 한 남성들에 의해 향교 수호적인 기능을 지닌 여신으로 좌정시키게 된다.

50)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658쪽. 오기영 구술.

51)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537쪽. 송경순 구술.

제주도에는 제주향교, 정의향교, 대정향교가 있으며 이곳에 출입하는 집단은 자신들만의 특권 의식을 누리며 결집하였다. 제주도의 경우는 육지부와는 달리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실직(實職)을 받지 못한 자들과 과거에 응시하지는 않았으나 양반 가문 출신의 자제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 향교를 중심으로 결집되어 있었다. 제주도 향교의 경우는 육지부와는 달리 크게 두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실직(實職)을 받지 못한 자들과, 과거에 응시하지는 않았으나 양반 가문 출신의 자제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거주 지역 향교를 중심으로 결집되어 있었다. 이들에게는 향교에 출입한다는 사실 자체가 특권의 상징이었으며 육지부와 달리 이들이 향직(鄉職)을 독점하였다. 향직은 제주도의 경우 양반임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직역(職役)이다. 어쩌면 그만큼 양반의 경우 중앙관직을 얻을 기회가 적고 과거를 통과할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에 향교에의 직책(職責)과 향직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분유지의 수단으로 여겼다.⁵²⁾

향교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자체적 결집력과 사회적 권력관계를 유지하는 이들은 숭심부름을 하는 오씨아미와의 혼인은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 사회 체제로 인해 실패와 좌절의 한을 품고 죽은 오씨아미는 원혼이 되고, 이러한 존재는 기존 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파괴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된다.

오씨아미처럼 혼사 장애로 인한 죽음과 신격화는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광청아기씨, 서울의 손각시 신앙과도 유사성이 있다.⁵³⁾ 이들은 혼사장애를 겪고 죽은 원혼으로 욕망의 성격도 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다.

오씨아미는 당신이고, 광청아기씨는 조상신으로 층위가 다르지만 혼사 장애를 겪고 죽음에 직접적인 가해를 가한 이들이 모신다는 점이 같다. 오씨아미는 제주향교 집단에서 제향을 받고, 광청아기씨는 송동지 집안의 조상으로 제향을 받는다. 오씨아미는 남성의 시선에 의해 신격화한다. 오씨아미는 향교에 다니던 남자와 혼

52) 양진건, 「朝鮮朝 濟州三邑 鄉校의 新勑,重勑,移建에 關한 研究」, 『교육사상연구』19, 한국교육사상학회, 2006.

53) 류진옥, 「제주도 조상신 ‘광청아기씨’ 신앙의 형성 배경 고찰」, 『한국무속학』42, 한국무속학회, 2021, 119쪽, “광청아기씨는 송동지 영감에 의해 버려짐을 당하고, 출륙금지령으로 인한 선원들의 거부로 다시 한번 버려지며 원혼이 된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채 맞이한 죽음으로 조상신 유형 중 애정 실패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능화, 『조선무속고』, 장비, 2008, 328쪽, “세속에 전하기를 손씨 집안에 규수가 있었는데 출가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를 일컬어 손각씨 귀신이라 했다. 이 귀신을 섬기는 집에서는 처녀가 있어 출가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여자 무당에게 부탁하여 예담신사를 행하였다.”

인을 하지 못해 죽었다. 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향교에 다니는 이들이 오씨아미를 모시고 제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이곳에서 입시, 관운을 빈다. 광청아기씨는 구좌읍 김녕리 송씨 집안에서 전승하고 있는 신화로 송동지 영감과 뱃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자, 송동지 영감의 딸에게 빙의하여 자신의 존재를 나타낸다. 자신과 인연을 맺은 송동지 영감으로부터의 버려짐은 광청아기씨에게 큰 좌절이고 고통이다. 광청아기씨는 살아서 송동지 영감과의 인연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좌절된다. 하지만 광청아기씨는 죽고 나서 송동지 영감 집에 모셔지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다. 그로 인해 송동지영감 집안은 부자가 되고, 아들은 무과에 급제 하면서 광청아기씨는 송동지 영감 집안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된다.

손각시는 결혼하지 못한 여성의 신격으로 이 원혼의 한을 풀기 위하여 결혼하기 전 여성들은 여탐굿을 하였다. 이러한 의례는 결혼하지 못한 여성의 욕망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다. 여서낭의 남근 봉헌 의례 또한 남성의 시선에 따른 행위이다. 남성과 결연 실패로 인한 죽음은 결핍을 채워주면 해결할 것이라는 사고가 들어있다.

제주도 오씨아미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한 혼사장애를 겪어 자살하고 있다면 동해 주문진 진이 아가씨는 남성 권력에 맞서다가 자살하고 있다. 동해 주문진 서낭 신화의 내용을 보면,

“주문진에 진이라는 처녀가 살았는데, 현감이 진이의 미모에 반해 수청을 들기를 요구했다. 진이가 불응하자 아버지와 오빠가 진이를 방에 가두었다. 진이는 방에서 삭발하고 아들을 낳은 뒤 자살했다. 그후로 마을에 풍파가 끊이지 않았고, 진이를 위한 제사를 지내니 편안해졌다. 진이는 마을의 서낭이 되었다.”⁵⁴⁾

위의 설화는 민중과 권력층의 대결 구도가 이루어지지만 힘없는 민중이 좌절하고 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억울한 죽음을 한 젊은 여인의 넋이 해사를 관장하는 서낭신으로 좌정하는 것은 동해안지역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진이서낭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권력층과의 싸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신으로 좌정한 경우여서 매우 특별하다.⁵⁵⁾ 마을 사람들은 진이를 통해 힘없는 민중을

54) 이승철, 『동해안 어촌 당신화 연구』, 민속원, 2004, 328-330쪽.

투영하고 있다. 진이는 권력층에 대항하다 좌절하여 자살을 택하는 것이다.

진이는 죽기 전 머리를 자른다. 이러한 삭발이라는 행위는 여자라는 자신의 존재성을 포기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항거를 드러내는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이 사회적 관계에 따른 행위라면 아들의 탄생은 풍요라는 신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진이는 서남으로, 생산성의 성격을 지니고 풍어와 안전의 신으로 좌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남성의 결핍, 장애에 의한 여성들의 죽음은 자살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 여성의 죽음에 가해의 주체인 남성들이 이 원혼을 모신다. 자살에 개입된 남성들은 그들의 시선으로 여성을 위로하고 있으며, 그 시선 또한 남성 이데올로기의 한 양상이다.

오씨아미는 다른 여성 원혼의 경우와 달리 흥힘의 서사가 없다. 억울한 죽음을 겪지만 분노 표출에 관한 서사가 남아 있지 않고, 신앙민들에게 가해지는 흥힘이 어떤지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다. 하지만 향교 사람들은 이 처녀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 향교 뒤에 당을 설립하여 위로하고 있다. 여기에는 억울한 여성 원혼에 대한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다. 남해안의 당각시는 신원미상의 익사체, 열녀정절문의 보상받지 못한 인물, 억울한 죽은 인물들로 이들의 원령의 재앙이 더욱 두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들을 모시면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이 신앙을 전승하게 한다.⁵⁵⁾ 이처럼 억울한 죽음을 겪은 인물을 모시고 향교라는 공동체의 안녕과 개인적인 영달을 빌고 있다.

이씨할망, 현씨일월, 오씨아미는 내재적 갈등으로 인해 자살하지만, 외부적 요인이 더욱 본질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씨할망과 현씨일월의 동일한 화소 중 중요한 점은 무업을 타고 난 운명과 자살이라는 점이다. 호근이 무루 으드렛당의 이씨할망은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첩이 되어 멸시와 고통을 받고, 심방 일을 하다가 자살한다. 현씨일월은 무업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뜻을 펼치려고 하지만 환경적인 요인으로 좌절을 겪고 자살한다. 이씨할망은 타고 난 운명에 대한 저항과 또다른 삶의 실패에 대한 결핍이 보이고, 현씨일월은 타고

55) 황루시, 「강릉지역 여서낭신화 연구」, 『구비문학연구』 24, 한국구비문학회, 2007, 22쪽.

56) 김영일, 「남해안 당신 설화의 비극적 특성에 관한 연구」, 『가라문화』 11,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원, 1994, 170쪽.

난 운명의 순응에 따르고자 했으나 실패함에서 오는 결핍이 보인다. 이러한 결핍은 좌절을 주고, 그로 인해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게 한다.

오씨아미는 신분 차이에 의한 혼사 장애로 자살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은 여러 지역에서 여성들의 혼사 장애에 따른 죽음으로 나타난다. 이 자살의 내면에는 향교 집단의 권력화가 존재하며, 이러한 죽음을 겪은 여성들은 또다시 남성과, 그들의 시선에 의하여 제향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타살의 양상

처녀당신에서 외재적 갈등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여성이 좌정한 경우가 있으며 이는 타살이라는 양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본풀이는 신흥본향당, 토산 알당, 마라도 본향당, 수산 진안할망당이 있다. 이 본풀이 속 여성들은 사회적 강압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자들이다. 신흥본향당의 볼래낭 박씨할망, 토산 알당의 오씨 아기씨는 외부의 성적 유린으로 죽음을 택하고, 마라도 허씨 아기업게, 수산 진안할망은 사회 공동체를 위해 제물로 바쳐지며 죽게 된다.

박씨할망, 토산한집은 왜구에 의해 겁탈을 당하며 죽게 된다. 여성의 희생은 왜구의 침입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맞물려 있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인 여성은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임을 나타낸다.

마라도 아기업게, 수산 진안할망은 섬에 버려지거나, 성을 쌓는데 제물로 희생된다. 이처럼 인신공희에 의한 죽음은 제주의 고립되고 척박한 환경과 관련지을 수 있다. 마라도 아기업게는 생업 공동체에 의해, 진안할망은 마을 공동체에 의해 희생되는 존재이다.

이들은 사회적 강압에 따라 죽임을 당하며 억울한 원혼이 되지만 분노 표출에 따른 양상은 다르다. 볼래낭 박씨할망과 토산 요드레한집은 분노 표출을 한다. 억울한 죽음에 따른 분노 표출로 흥함을 주고, 두려움을 느낀 신앙민들은 이들을 제향한다. 마라도 아기업게, 진안할망은 분노 표출에 관한 서사가 없다. 분노 표출과 상관없이 죽음을 겪은 여성들은 신으로 좌정한다.

제주도에 왜구의 침입과 관련한 역사적 사건은 처녀당신 본풀이에 피해자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 왜구에 의한 여성들의 피해는 볼래낭 박씨할망, 토산 요드레한

집, 수산 진안할망에 보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역사적 사건이 처녀당신 여성들에게 어떻게 관련하고 있는지 여성들이 겪은 죽음을 통해 살펴본다. 여성의 죽음은 사회적 강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사회적 강압 요인이 무엇인지 경위를 밝힌다. 사회적 요인이 제주 사회의 역사적 사건 및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어떠한 과정으로 신격화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1) 왜구의 위협

처녀당신 본풀이는 왜구의 침입과 같은 수난의 사회상과 연결되고 있다. 왜구 침입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본풀이 속에 녹아들며 여성 주인공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동시대를 사는 여성들의 생활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제주를 침탈했던 왜구에 의해 제주 사람들은 수탈 당하고, 그중에서 약자의 층위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사건은 젊은 여성의 죽음이라는 상황을 만들며 불래낭 할망당본풀이에 녹아 지금까지 전해지게 된다.

불래낭 할망당본풀이의 화소 중 중요한 점은 왜구의 겁탈과 죽음이다. 이처럼 여성이 왜구에 의해 죽임을 당했기에 타살로 처리할 수 있다. 왜구에 의한 겁탈은 본풀이 서사에 종종 등장한다. 왜구와 제주 간의 역사적 사건으로 특히 을묘왜변을 들 수 있다. 을묘왜변은 제주도의 역사에서 볼 때 큰 사건으로, 제주도민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전승된다. 제주 당신본풀이 속 왜구의 겁탈은 을묘왜변과 같은 큰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작은 기억의 한 파편이다. 그 당시 제주민이 겪어야 했던 상황을 가장 나약하고 저항하지 못했던 처녀들이 겁탈을 당하여 죽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을묘왜변 제주성 전투는 1555년에 1,000여 명의 왜구가 제주를 침략하여 제주성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사건이다. 이는 대규모 외적의 침입이었고, 제주민은 이를 대첩으로 이끌어 시련을 극복하였다. 조선 건국 이래 왜구의 제주침탈은 『조선왕조실록』과 『탐라기년』의 기록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⁷⁾ 이에 의하면

57) 김석익, 『탐라기년』, 영주서관, 1918. 탐라기년은 938년(태조 21)부터 1906년(고종 43)까지의 탐라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술한 것이다.

1401년(태종 1)부터 1555년 을묘왜변까지 약 30회에 이르렀다. 태종 때까지는 수십 척의 왜선이 침입하였으며, 그들의 침입 범위는 북쪽 해안 일대에서 대정현, 천미포 등 남쪽까지로 제주 濟州 : 瀛洲書館, 大正七年(1918) 해안지역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을묘왜변 전 제주의 왜구 침략이 약탈수준이었다면 을묘왜변은 제주성을 함락하기 위한 대규모 침략이다.⁵⁸⁾

왜구의 침탈은 을묘왜변 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그로 인해 왜구는 제주민에게 큰 두려움의 존재였다. 이러한 사항은 제주 본풀이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가) 돌칫뿔은 이 원당밭디 좌정하난 옛날, “예배에서 여놈들이 온다.” 하니, 돌칫뿔은 애길 구덕에 지고 조순드리로 올란 애길 구덕체 태역밭데레 부련 놔두언, 그냥 개말디 느른 구경하연 애기신디 완 보난, 애긴 그 새에 쇠영 찻는 브름에 쇠에 차고 개에 물리고 빨리 캐우리고 하여부난 애긴 죽어 시난 이젠 애긴 부미 눈백겼디도 나고 하난 원당밭딜 좌정하엿수다.⁵⁹⁾

나) 옛날에 열다섯 난 박씨할망이 바당에 나간 프래 매노랜 하난 일본 사름이 낙배에 물 식그레 오랏단 할마님을 겁탈하젠 하연 다올려부난 노래연 볼랫낭 알레레 천장만장 돌아오난 죽어진 박씨할망 분향. 웃당은 토지지관 할으방인디 할망광 곶이 오란 좌정하난 조손들이 위하영 이 당엘 가쟁 하민 매도 두 그릇 채소도 두 그릇 종이도 댓장 하영 강 소지드리는 분향한집이 우다.⁶⁰⁾

다) 놈의 나라 외놈들 일곱 놈이 든물 수록을 좇젠 천리통을 내여 놓완 올리숫테레 배레보니, 애기씨가 고운 스답을 하염구나. 놈의 나라 외놈들이 애기씨 촌레갑관을 하여부니, 애기씨는 새파랄게 죽어간다.⁶¹⁾

가)는 안덕면 화순리 원당밭 일취중저 본풀이 내용이다. 왜배가 바다에 나타났다는 소리에 어린 동생이 누워있는 구덕을 밭에 놔둔 채 구경갔다 와서 보니 동생이

58) 홍기표, 「을묘왜변 제주 대첩의 재조명과 역사적 의의」, 『제주연구원』 57, 2023, 298-303쪽 참고.

59)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541쪽, 고선여 구술. 화순분향 원당밭 일취중저 본풀이 서사 중 왜배가 나타났다는 대목이다.

60)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364쪽. 김씨 구술. <볼랫낭 할망당본풀이> 내용이다.

61)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487쪽, 강만원 구술. <토산 으드렛당본풀이> 내용 중 일부이다.

죽어있었다. 일뤼중저는 집에서 쫓겨나서 원당밭에 일뤼할망으로 좌정한다. 일뤼중저는 왜배가 나타났다는 소리에 즈순다리에 동생을 놔두고 바닷가에 가서 배를 구경한다.⁶²⁾

나)는 조천읍 신흥리 <볼래낭당본풀이>이다. 박씨할망이 열다섯에 파래하러 바다에 갔다가 물 길러 왔던 왜놈들에게 겁탈당하니 볼래낭 아래에 좌정한다.

다)는 토산 으드레한집 본풀이 내용으로 물을 길러 왔던 일본인들이 빨래하던 강씨 형방 딸을 겁간하니 강씨 형방 딸이 죽는다는 부분이다.

위 본풀이 서사를 보면 왜배가 해안가에 자주 출몰하였고, 조천읍, 표선면, 안덕면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보인다. 왜구가 물이 필요해서 물에 오르며 해안가 마을에 여러 피해를 입혔겠지만 왜구로 인해 특히 힘없고 나약한 여성들이 피해와 상처를 받고 있다. 여성들의 왜구에 의한 억울한 죽음은 역사적 사실의 기억과 비극적 기억의 소산이다. 이처럼 본풀이에 드러나는 왜구와 여성의 겁탈 내용은 지역민의 역사적 사실에 따른 억압적 기억이 전승되었기 때문이다.⁶³⁾

제주민들은 가장 약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내세워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을 전승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역사적 사회 현상이라는 외피를 썼지만 내면적으로는 공동체가 회피한 죄책감을 반영하고 있다.

(1) 금남의 당

볼래낭 할망당은 조천면 신흥리 동쪽 해변에 있다. 박씨할망이 열다섯에 바다에 가서 파래를 따다가 일본 사람에게 겁탈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도망가다 볼래낭 아래에서 죽는다. 볼래낭 아래에서 죽었기 때문에 박씨할망을 볼래낭 할망이라고 한다. 박씨할망은 왜구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처녀 원혼이기에 이 당은 금남의 당

6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가 펴낸 우리고장 이야기: 서귀포시 V 안덕면·대정읍』, 2014, 251쪽. '즈순다리'는 안덕면 대평리 서쪽 바닷가와 박수기정 위의 안덕면 화순리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다. 즈순다리는 쪼아서 만들었다는 데서 연유하는데 이 지명에 관한 전설이 전해지는데 다음과 같다. 대평리에서 화순리를 가려면 지금의 도로는 멀기 때문에 샛길을 이용해서 다녔는데 박수기정 옆 절벽 부분을 이용하였다. 어느날 기름장수 할머니가 이곳을 지나다 추락해 죽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송씨할아버지가 집집마다 보리 다섯 되씩을 받고 정으로 쪼아서 떡을 만들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흔적이 보였으나 지금은 침덩굴로 덮여있어 볼 수가 없다

63) 이소윤, 「제주도 역사 전설과 그 본풀이에 나타난 기억서사의 형성원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227쪽.

이다. 남자가 이 당 앞을 지나갈 때는 머리를 돌려서 지나야 한다.⁶⁴⁾ 남자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남자의 존재를 거부한다.

볼래낭 할망당본풀이 서사 내용에 의하면, “죽어진 박씨할망 본향. 웃당은 토지 지관 할으방인디 할망광 곶이 오란 좌정흐난 조손들이 위흐영 이 당엘 가쟁 흐민 매도 두 그릇 채소도 두 그릇 종이도 댓장 흐영 강 소지드리는 본향한집”이라고 한다. 볼래낭당은 본향으로 죽음을 당한 박씨할망은 일뤼할망이고, 웃당은 토지 지관 하르방인데 하르방과 함께 좌정하고 있어서 메와 채소를 두 그릇씩 준비한다.

하지만 현재의 볼래낭 할망당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 함덕리에 살며 신흥리 잠수 곳과 볼래낭 할망당 등 신흥리 지역의 의례를 육십년 가까이 지내고 있는 김순아 심방에 의하면 토지 지관, 볼래낭 할망, 선왕까지 볼래낭당에서 세 신을 모신다고 한다. 다음은 김순아 심방과의 인터뷰 내용이다.⁶⁵⁾

조사자: 볼래낭 할망당 지금은 안협니까?

제보자: 아니. 가메. 지금도 조순덜 가메. 해녀들도 가곡, 올해 해녀굿 할 때 도 거기 강 제드리곡 경 허연. 당국은 안허고. 조순덜, 해녀들이나 농사짓는 조순덜이나 사업허는 조순덜, 배 타는 조순덜, 외국에 나 강 사는 조순덜 공부허는 애기덜 부모들이 볼래낭 할망더러 가주게. 당에 갈 때는 이녁은 이녁대로 출령 가. 나 빌영 가는 때도 있고, 이녁으로 가는 때도 잇곡, 거기 가민 볼래낭 할망 잇곡, 토지 지관 잇곡, 또 그 아래에 잇는 건 선양. 그디 선양도 모샀어. 그디 헤나민 지 드리주게. 지 싸근에. 볼래낭 당엔 안허여. 조순덜 그냥 가지. 메 해놓고 행 강. 당국은 엇주게. 당국 헤 논 적이 엇어. 나가 함덕 시 집 온지가 육십년이라. 육십년 된 오랑 서른부터 굿을 헛주만 해본 적이 엇어. 함덕이 당은 하. 겐디 당국허는 딴 엇어. 아예 옛날부터

조사자: 해녀굿 할 때는?

제보자: 해녀굿 험시난 모시레 가는 거. 굿하기 전에 모셔. 해녀굿 험시난 읍센 강 할망 거느령 읍센 험 모상 와. 여자 심방만 가야 뉘. 신흥리는 포제 끝에 해녀굿 허메. 포제를 신흥은 정월에 허메. 포제 헤 나민 뒷날 새벽에 영등굿 시작 허주. 신흥은 앗은제로 헤여. 메 행 강 올리곡, 메 3개. 옆엔 토지 지관, 아래 층쪽에 잇인 딴 선양, 볼래

64)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472-481쪽. 박생욱 구송.

65) 2023년 5월 23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김순아 심방 자택에서 진행.

낭 할망신디 왜 남자 심방은 못가느냐 여자 심방만 가주 그 당엔. 남자 심방은 옛날 시절에 불래낭 박씨할망이 처녀라. 갓갓디 보말 잡으레 간거라. 일본 군인들 완에 강탈을 해분거라. 경 허난 박씨할망이 죽어불었어. 불래낭 알로 강 모시라 허난, 불래낭 할망 모산. 그때부터 남자 심방은 못가곡, 여자 심방만 가는 거라. 제 드리레. 영등굿 할 때는 굿 햄시난 옴센 허는 거고, 그냥덜 사회 사람들은 그냥 과세로 가는 거고, 불래낭 할망당엔 애기들 때문에도 가고,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 잘뉘게 해줍센 허영 역불로 출령도 가고, 배 타는 바당에 가는 사람도 가고, 해녀들도 가고

조사자: 제일도 따로 없대예?

제보자: 응. 필요할 때 심방 데령 갈 때도 있고, 이녁만 갈 때도 잇곡. 불래낭 할망당에 안가면 눈아피 불리주고.

조사자: 출령 가는 제물은 어떻습니까?

제보자: 해녀굿 할 때는 토지지관, 불래낭 할망, 선양 메 3개 앓영 갈 거. 메도 3개, 제물도 3개, 과일도 골고루 놓고, 경 행 강 제드리고, 돼지고기나 소고기 그런 건 아이 허여. 생선 구워 놓고, 소지도 들양 놓고 경 행 강 제드리곡, 계란 삶아 놓곡, 채소 해영 놓곡, 혼자 당에 가민 절 해영, 켓문 올라근에 앞더레 몬 출려 놔. 잔도 놓곡 행 절 세 번 허곡, 우리 조순 왕 감수덴 헐, 영 선양에 낚난 거 제드령, 소지 술아근에, 나가 7치 갈 때는 말명으로 그 집이 잘 뉘게 해줍센 허고, 바다에 덩기는 사름은 고기도 하영 허게 해줍센 허고, 해녀들은 구쟁기, 소라 영 몬 하영 허영 부제뉘게 해줍센 허영, 사고 나게 허지 맏서. 굿은 일 당허지 맏서 허영 허는 거. 산 받고, 산 받았 좋으민 좋다 허고, 굿이민 굿다 허고, 액 막아주고,

박씨할망을 본향이라고 하는데 이 당은 본향이 될 수 없는 사정을 지닌다. 본향은 마을의 태어남과 죽음까지 관장하며 남·녀가 모두 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박씨할망은 원한을 품고 죽은 처녀신이기 때문에 이 당에 남성은 갈 수 없다. 심방도 여성만 가능하고, 신앙민도 여성들만 다닌다.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불래낭 할망은 본향이 될 수 없다. 웃당은 토지지관 하르방인데 할망과 같이 좌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향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본향이 아닌 것이다.

박씨할망은 처녀로 죽은 처녀당신 계열인데 하르방과 함께 좌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은 형태일 수 있다. 함덕리와 신흥리는 한 마을이었는데 1914년에 함덕리

와 신흥리로 마을이 분리된다. 마을이 분리되기 전 함덕리의 본향은 대방황수당이 고, 이 당은 신흥리 지경에 자리하고 있었다. 함덕리와 신흥리가 분리되면서 함덕리의 본향당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함덕리는 서물할망을 중심으로 당제를 지내고, 신흥리는 대방황수당을 모시다가 폐당되었다.

조천읍 신흥리 웃당인 대방황수당 본향은 1930년에 파괴되었고, 4·3사건 당시 불래낭 할망당에서 함께 모시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⁶⁶⁾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선양도 여기에 함께 모시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신당조사: 제주시권』에는 제물을 메 2기, 채소 2기, 돼지고기 사용을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⁶⁷⁾ 하지만 김순아 심방과의 인터뷰에서는 메 3기, 채소 3기를 올리고,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 불래낭당에서 직능은 생업 수호신과 일렛당의 직능뿐만 아니라 사업 번창, 자손 무탈 등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빌고 있다. 불래낭 할망당에 토지지관, 생업수호신과 일렛할망, 선왕신까지 모셔지기 때문에 복합적인 신앙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마을사람들이 이곳을 본향당처럼 관념하고 있기 때문에 육류를 쓰지 않는 것이다.

불래낭 할망당은 개인적인 비념을 하는 곳이다. 이곳은 여성들이 가는데, 배를 부리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부인들이 가서 빈다. 박씨할망은 바다 일을 하는 사람들을 수호하고,⁶⁸⁾ 육아를 돕고 피부병을 치유하는 직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안질과 피부병인 허물의 직능이 중심이다. “본지 그뜬 허물을 주민 날 보양 돌 보양 오민 문딱 보실보실 찢어본다.”⁶⁹⁾ 이처럼 박씨할망은 허물이라는 피부병을 흉험으로 주고, 낫게도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보편의 당신들처럼 단골에게 흉험을 주고 제향을 받는 것이다.

(2) 박씨할망의 분노 표출

불래낭 박씨할망은 왜구에게 겁탈을 당하여 좌정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66) 제주대학교 박물관,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Ⅱ)』, 제주대학교 박물관, 1998, 69쪽.

67)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제주시권』,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8, 138쪽.

68)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364쪽, 정주병 구술, “박씨할망 가는 선 오는 선 초지하고, 일만 해녀들 고스받는 분향한집님”.

69) 고광민,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75쪽. 정주병 구술.

박씨할망의 외부에 의한 성적유린은 사회의 무방비로 보호하지 못했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것에 박씨할망은 분노 표출로 복수보다 흥함을 준다. 박씨할망이 원하는 것은 신앙민들의 제향이다. 따라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대접해 주지 않는 신앙민에게 허물이라는 피부병을 일으킨다.

볼래낭 할망과 토산 알당의 으드레한집은 흥함을 주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박씨할망과 토산할망은 단골을 정하고 제향을 받으려는 적극적인 표출방식을 택한다. 자신의 직능과 관련된 흥함을 표출하면서 신성성을 획득한다

이들은 왜구에게 겁탈당하는 서사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신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제향이다. 따라서 제향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허물을 일으키는 것이다.

가) 볼래낭 할망은 이 무릎에 어른이고 아이고 다 혼 본지 그똥 허물을 주민 날보양 돌보양 오민 문딱 부실부실 찢어본다.⁷⁰⁾

볼래낭 박씨할망은 자신의 존재를 허물을 주는 것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흥함은 박씨할망의 직능과 연결된다. 단골들은 박씨할망을 위하지 않으면 허물이라는 병을 얻게 되고, 자신을 잘 돌보면 보슬보슬 쓸어서 허물을 낮게 해준다.

2) 왜구의 겁탈

토산 요드렛당본풀이는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여성들의 역사가 서사에 들어있고, 주 신앙민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의 침탈사를 변형시켜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표선면 토산리 알당 으드레한집은 왜구로 인한 겁탈로 죽은 처녀 원혼이다. 또한 사신으로 제주에 널리 퍼져 있는 으드레당의 기초가 되는 당이다. 토산 알당은 여성들 위주로 다니는데 현재 이 당은 주로 해녀들이 다니고 있다. 예전부터 당굿을 하지 않았고, 앉아서 비념만 한다.⁷¹⁾

다음은 표선면 토산리 알당의 으드렛당본풀이 서사 내용이다.⁷²⁾

70) 고광민,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75쪽, 정주병 구송.

71) 2023년 2월 4일 토산 웃당에서 진행된 신복만 심방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신복만 심방은 현재 위미리본향인 마메기당과 토산리 웃당·알당의 메인 심방이다.

- ① 한 선비가 나주 목사를 하면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말에 승낙한다.
- ② 선비가 나주 목사가 되어 내려가는데 하마를 하지 않아 말이 다리를 전다.
- ③ 나주 목사가 금성산에 오르고, 안개 속에 있는 당집을 본다.
- ④ 나주 목사는 당에 좌정한 천고 아고 대맹이를 보고 불을 지른다.
- ⑤ 한집은 금바둑으로 환생하고 영암 동지기 땅에 떨어진다.
- ⑥ 토산 강씨, 한씨, 오씨 성방이 나주에 진상가서 바둑돌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며 쭈는다.
- ⑦ 오씨 선주 조각보에 바둑돌이 들어가고, 선주들은 진상을 마치고 제주로 향한다.
- ⑧ 오씨 선주는 바둑돌이 천변흉험을 주어 제주로 오지 못한다.
- ⑨ 오씨 선주가 문점을 하니 선양에게 제를 올리라고 한다.
- ⑩ 오씨 선주는 선양에게 고사를 올리고 제주로 오게 된다.
- ⑪ 제주도 구좌 온평에 배가 도착하니 애기씨가 내린다.
- ⑫ 애기씨는 명오부인에게 인사를 올리고 표선리 토산 땅으로 좌정처를 정하게 된다.
- ⑬ 애기씨가 토산을 가는데 개로육수도에게 손목을 잡힌다.
- ⑭ 애기씨는 손목을 깎아두고 오씨 선주로 인해 제주로 와서 고생한다며 오씨 애기씨에게 흉험을 준다.
- ⑮ 토산한집이 모진 광풍을 불러 배를 파선시키니 오씨아미는 배에서 내린 왜놈에게 겁탈을 당하여 죽는다.
- ⑯ 강씨 애기씨가 오씨 집에 시집을 가려고 하니 오씨가 강씨 몸에 신병을 준다.
- ⑰ 강씨 애기가 죽어가니 문점을 한다.
- ⑱ 오씨 애기씨 혼령이 씩였기 때문이니 굿을 하라고 한다.
- ⑲ 굿을 하며 오씨 선주가 진상 상납했던 무명을 내여 놓아 방울품을 하니 강씨 애기씨가 살아났다.

위 서사 내용 중 ①~⑬까지는 나주 뱀신이 돌로 변하고, 제주로 와서 토산에 좌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⑭~⑲까지는 왜구에 겁탈당한 강씨 아가씨의 처녀 원혼에 관한 이야기로 나뉜다. 먼저 앞의 내용은 나주의 뱀신이 나주 목사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패배하는 모습이 나온다. 나주 뱀신은 강한 힘으로 나주의 목사를 죽어나가게 하거나, 한집을 만나러 가는 목사가 탄 말의 다리를 절게 하거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를 일으키는 등 신력을 보이지만 나주 목사에게 의해 나주 금성산에서 쫓겨난다.

72)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231-235쪽. 고봉선 구송.

나주 뱀신은 바둑돌로 변하여 미역 진상을 간 강씨, 오씨, 한씨의 앞에 나타난다. 제주 조상신본풀이에서 보면, 제주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주로 가서 오는 과정에 뱀신이 따라 오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곡식을 따라오는 것으로 뱀신을 부와 결부시켜 부의 이동과 연관시킨다. 토산 으드렛당본풀이에서는 제주 사람들이 진상 관련으로 육지로 가게 된다.⁷³⁾ 나주 뱀신은 축출당하여 영암 동지기 땅 또는 서울 벅몰레왔디로 가고, 그곳에 진상을 간 제주 사람들에게 바둑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뱀신은 강씨, 오씨, 한씨를 따라 제주로 들어오고 토산에 좌정하게 된다.

토산 알당 으드레한집 본풀이는 나주 뱀신의 입도 -> 개로육섯도 만남 -> 토산 좌정 -> 왜놈에 의한 겁탈 -> 흥험 -> 제향의 구조를 가진다.

각편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을 살펴보고, 토산한집에 좌정한 신이 누구인지, 왜놈에게 겁탈당한 인물은 누구인지를 알아본다. 토산한집의 입도 과정과 좌정 후의 행보 및 흥험의 형식을 보면 토산 알당 신의 주제 및 직능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표3] 토산 알당 서사에 따른 각편별 비교

당명 (구술자)	토산당신과 개로육섯도	유린 대상	빙의 대상	해원과 제향 방식
토산 알당 (박봉춘)	거부 / 손목 절단	오좌수 따님아기	강씨형방과 한씨이방 딸	굿// 당신/조상신 공동 제향
토산 알당 (고봉선)	거부 / 손목 절단	오씨 아기	강씨 아기	굿
으드렛당 (한원평)	손목 절단/ 결혼	토산한집	강씨 아기	굿// 당신
토산당 (안사인)	거부 / 손목 절단	토산한집	강씨 아기	굿
알당 (박생옥)	손목 절단/ 결혼	강씨성방 따님	한씨이방 딱님애기	굿// 당신
토산당	거부 /	오씨아미	강씨 아미	굿

73) 제주 사람들의 진상 관련 내용은 본풀이 서사에 자주 등장하고, 제주가 조정과의 관계 및 실정 등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서사이다. “그때 시절에는 진상을 한번 강오민 삼덴 먹고 삼덴 써도 남나, 경후니, 산촌으로 초기, 중촌으론 고사리, 아래빚, 진피, 해각으론 우미, 전각 초각매역, 펜푸, 고동, 생복 하영 받아.”

(조산옥)	손목 절단			
토산한집 (강만원)	거부 / 손목 절단	강씨형방 애기씨	강씨성방, 한씨성방, 오씨성방 애기	곳

위의 표를 보면 당신과 개로육섯도와의 결연 여부, 유린당한 대상이면서 빙의하는 주체, 빙의 되는 대상이면서 흥힘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 조금씩 다르다. 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외부에 의한 타살이다. 따라서 죽음의 경위와 죽음 이후의 형태가 어떤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겁탈당한 오씨아미

토산 알당의 토산한집은 토산에 좌정해도 아무도 대접을 하지 않자 신앙민에게 흥힘을 준다. 첫 번째 흥힘은 오씨아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흥힘은 강씨, 한씨 애기씨에게 신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토산 알당본풀이에서 누가 왜구에게 겁탈을 당하였는지는 중요한 요소이다. 토산한집은 억울한 죽음의 서사가 있는 처녀당신이다. 본풀이에서 왜구에 의한 죽음과 관련한 인물은 강씨 애기씨, 토산한집, 오씨 애기씨의 경우가 모두 보인다.

위의 [표2]에 따른 서사 내용을 중심으로 각편별로 겁탈당한 주체와 득병한 주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 겁탈/득병 주체

구술자	겁탈당한 주체	득병한 주체
박봉춘	오씨 애기씨	강씨, 한씨 애기씨
고봉선	오씨 애기씨	강씨 애기씨
한원평	토산한집	강씨 애기씨
안사인	토산한집	강씨 애기씨
박생옥	강씨 애기씨	한씨 애기씨
조산옥	오씨 애기씨	강씨 애기씨
강만원	강씨 애기씨	한씨 애기씨

[표3]에서 토산한집이 겁탈당하는 경우와, 오씨 애기씨 또는 강씨 애기씨가 겁탈

당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오씨·강씨 형방 따님 아기의 죽음과 단골과의 관계가 긴밀함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오씨 애기씨가 겁탈당한 경우가 많으며, 오씨 애기씨가 죽어서 강씨 애기씨에게 빙의 된다. 토산한집이 겁탈 당하였을 경우에는 강씨 애기씨가 신병을 얻게 된다. 겁탈 당하여 죽은 아기씨는 상단골 집이라고 할 수 있다. 본풀이에서 이 당의 상단골은 강씨 선주이고, 중단골, 하단골은 오씨, 한씨 선주이다.⁷⁴⁾ 또한 안사인 심방이 구송한 방울품 제차에서도 강씨가 상단골, 오씨, 한씨가 중단골임을 확인할 수 있다.⁷⁵⁾ 흥험을 주는 주체는 겁탈을 당해 죽은 쪽이고, 흥험을 당하는 자는 단골과 관련된 자들이다. 흥험은 대개 빙의하여 광증을 일으키는 방식이다.

오씨 형방 따님아기의 죽음은 토산한집이 왜배를 파산시켰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박봉춘, 고봉선, 조산옥 본에 의하면 토산한집이 토산에 좌정하지만 아무도 대접하지 않자 왜배를 끌어당긴다. 이러한 행위로 오씨 형방 따님아기가 왜놈들에게 겁탈을 당하여 죽는 일이 발생한다.⁷⁶⁾ 죽음을 맞이한 오씨 형방 따님아기는 강씨 형방 따님아기에게 혼이 들어 광증을 일으킨다.

토산한집이 다음과 말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 토산 알당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지키고 있으며 오좌수 딸은 방금 나의 밑에서 인간의 기록을 거행하고 있나니라. 내가 내여준 주단으로 예문 예장 하여 혼인을 매즈면서, 옷봉정성도 안이하야 무심하니. 고약하기 한량 업서, 신병을 내가 주었노라.”⁷⁷⁾

74) 한원평, 박생옥, 안사인이 구술한 토산 알당본풀이에서 상단골이 강씨 선주라고 말하고 있다.

75)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486쪽; “강씨아미 못쳐오던 마은으뜸 상방울 내놀렸더니 오씨아미 못쳐오던 서른으뜸 중방울긋이여. 한씨아미 못쳐오던 서른으뜸 중방울긋이여. 방울방울 두 일곱 열니 방울 내놀리자.”

76) 박봉춘 구술; “어느 인간이 원정함도 업섯고 감주한잔을 나는 일도 업섯다. 하룻날은 오좌수 짜님이 조씨하님을 데리어 산만올리소에 썰내질을 갔다 그째 신위는 남해를 바라보니 외국 거선이 씨잇거늘 광풍을 일으키어 파선을 시켜버리니 선원들은 올리소로 올라 오좌수 짜님은 붓들니고 말었다.”

고봉선 구술; “오씨 선조 아니민 제주 절도섬 오라근 이내몸이 고생허랴! 오씨 애기씨 송험을 드리랴. 올리수에 연새답을 가리다 삼데바지 뜨고 온다. 개로육서또님에게 밤에는 연불 낮에는 신불 초롱 횃불로 허다가 명함을 드리시니 모진 광풍을 불어 삼데바지가 파선하니 마흐레청 들어온다. 오씨 애기씨가 눈이 나라 마흐레청 짓거되이 혼이 나고 죽었구나”.

조산옥 구술; “진궁좌정허여 석돌 열흘을 살되, 어느 인간 먹으라 씨라 아녀여, 가스름 중허리에 올라가고 보니, 피선이 떠서 모진 광풍을 불려주어 피선이 들어오라가니 오씨아미는 올리소에 연스답을 갔다가 죽어 혼신의 몸에 가고”.

77) 北松智城·秋葉 隆, 심우성 역, 『朝鮮巫俗의 研究(上)』, 동문선, 1991, 229쪽. 박봉춘 구송.

위의 내용에서 토산한집은 자신이 오씨 형방의 딸을 빌어 강씨, 한씨 형방의 딸에게 신병을 주었음을 말하고 있다. 오씨 형방의 딸의 죽음과 신병은 자신이 준 주단으로 결혼식을 올리면서 자신에게 옷봉 정성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든다. 여기에 뱀신은 딸들을 따라다니는 습성을 지닌다는 속설에 대한 관념이 내포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딸들이 결혼할 땐 자신에게 알리고, 또한 시집을 가서는 자신을 위해야 하는 존재임을 밝히는 것이다.

토산한집은 풍랑을 일으켜 왜배가 파선하게 하였고, 배가 난파되자 물으로 올라온 왜놈들이 오씨 형방 딸아기를 겁탈한다. 왜놈들에 의해 죽은 오씨 아기는 강씨, 한씨 형방의 딸아기에게 광증을 일으키게 한다. 이 모든 것은 토산한집이 좌정을 하였으나 아무도 제향을 하지 않음에 대한 징치이다.

토산한집을 위하는 곳을 하니 강씨, 한씨 형방의 딸들은 좋아졌고, 오씨 형방의 딸은 자기 옆에서 보좌하는 신으로 좌정하게 한다. 오씨 애기씨는 억울한 죽음을 겪은 처녀 원혼으로 토산한집의 사제자 역할을 하며 함께 좌정한다.

토산한집이 오씨 형방 딸아기를 죽게 만든 것은 죽음을 통한 사제자의 과정에 따른 것이다. 오씨 형방 딸아기는 죽음을 겪은 후에야 신을 보좌하는 사제자로서의 직능을 갖게 된다. 이러한 통과의례의 과정을 거치고 토산한집과 함께 단골들에게 모셔지고 있다. 토산 알당 제일에 매 2기를 올리는 것은 이러한 사정에 따른 것이다. 위의 본풀이에 강씨 선주의 굿 도중 토산한집이 오씨 애기씨는 자신 밑에서 인간의 기록을 거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부분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물이 좋은 곳을 찾아서 좌정하는 경우는 제주 당신본풀이에서 종종 나오는 화소이다. 제주로 들어온 토산한집은 온평의 명호부인을 만나 나주영산 토주본향이라고 통성명을 하고,⁷⁸⁾ 명호부인이 지정해 준 대로 표선면 토산리로 가서 토산 으드레 한집으로 좌정한다. 박봉춘 본에서는 토산한집이 토산의 거스름미 물을 짚어보고 좌정할만 하다고 하며 좌정처로 삼는다.

<상창하르방당>

당동산을 느려 좌기해야보니, 물막릿도 즈베남송이 물물도 좋아지다. 통물

78) 赤松智城·秋葉 隆, 심우성 역, 『朝鮮巫俗의 研究(上)』, 동문선, 1991, 226쪽.

양젓물 세숫물도 좋아진즉,⁷⁹⁾

<색달본향당>

“고여물은 먹는 물을 잡고, 생숫물은 양젓물을 잡고 말물은 버릿물을 잡겠다.” 하고 보니, 산썰 물썰 잡고 호적 차지하시니⁸⁰⁾

<호근본향당>

좌정을 허젠허난 물물도 엇어지고 금베릿물도 엇어지고 허난, ~ 돌흙에 삼싱물도 시난 금베릿물도 좋아지고, 통물이엔 훈딘 물물도 좋아지고 허난 그디 오란 좌정을 허연.⁸¹⁾

제주도 당신들은 산혈(山穴) 물혈(水穴)을 밟아서 좌정처를 찾기도 하고, 아무도 좌정하지 않은 조용하고 깨끗한 곳을 찾기도 한다. 물은 마을을 이루고 살 수 있는 좋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마을의 당신들은 물이 가까이 있는 곳에 좌정한다. 음용수, 생활 용수, 농사용수 등이 필요하기에 이러한 물과 관련된 요소가 본풀이 속에서도 신들이 좌정처를 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토산 알당의 일곱 편의 자료 중에 한원평과 박생옥 본의 자료만 토산한집과 개로육섯도의 결연 모습이 보인다. 토산한집은 개로육섯도에게 손목을 잡히자 스스로 손목을 잘라버린다. 그런 행동을 한 후에 자신의 잘못을 빌며 개로육섯도와 부부의 연을 맺기도 한다.⁸²⁾ 제주 당신의 보편적 형태로 보면 미식을 하는 개로육섯도는 바람 위에, 육식을 하는 토산한집은 바람 아래에 좌정하는 모습을 띤다고 볼 수 있다.

토산 으드렛당본풀이 중 박생옥 본과 한원평 본에 나오는 개로육섯도와 토산한집의 결연은 제주도 당신본풀이에서 일렛당의 경우처럼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산신과 요왕국 말젓돌아기와의 결연 서사를 첨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산 신펙리의 본향신인 개로육섯도는 송당의 소천국과 백주도의 말젓아들로 산신이기도 하지만 본향을 차지하며 미식을 하는 신이 된다.⁸³⁾ 개로육섯도의 큰부인은 요왕국 말

79)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651쪽.

80)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641쪽.

81)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509쪽.

82) 박생옥, 한원평 자료에는 개로육섯도와 토산한집의 부부 결연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만, 다른 자료에는 결혼에 관한 내용이 없다: 출처, “에펜의 종부라 훈 게 산데레 돌아앗앙 소매 보아도 치매 깍 젓는 중 모르는 건 예즈우다. 과연 잘 못했수다. 흙목 잡아 부체간을 삼양 사는다.”

83)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449쪽. 홍매화 구송. 개로육섯도는 성산을 신펙리의 본향신이다. 다음은 개로육섯도가 미식을 하는 내용이다. “너네들 허인 때도 내게 맞지 못허

젯뜰아기로 육식 금기 파괴로 인해 시내에 좌정한다. 개로육섯도는 새로 금상님을 후처로 삼는다. 이처럼 신평본향당본풀이에 등장하는 요왕국 말젯뜰아기는 시내에 좌정시키고, 개로육섯도는 새로 금상과 함께 신평리에 좌정하는 서사로 보면, 토산 으드레한집과의 결연은 이해하기 어렵다.

제주 당신본풀이에서 여성신이 홀로 다니는데 남성신이 남자의 기세로 달려드는 상황은 종종 발생한다.

월궁에 시내 7튼 아기씨가 넘어간다. “남자의 기십이라 기냥 둘 수 웃다. 어서 둔저.” 산지꼴로 내들고 왕꼴로 저 토산을 돌려들어 은찢 7튼 홀목이를 쥐여잡나. “얼굴은 양반이로돼 행실은 쾌쌌하다. 더러운 놈 심어난 홀목이 기냥 둘 수 웃다.” 정도칼 앓아내여 삭삭 가까두고 요왕국의 돌려드니, “어찌하여 놀랑놀핏내가 나시느냐?” “예, 하천이 개로육섯도가 언약엇이 은찢 7튼 홀목을 비여잡기에 은장도로 가까 데겼읍네다.” “쾌쌌하다. 개로육섯도 말을 아니 들엇고나. 쾌쌌하다.” 후육흐니, 올라사며, 개로육섯돌 한번 불러 편편, 두 번 불러 편편, 식번 불러도 편편흠뉘, 토산 알당으론 연불이 나민 하천이 하천이 고첫당으론 신불이 나고 신불 연불로 언약을 흠뉘네다.⁸⁴⁾

여기에서 ‘남자의 기십’이라는 것을 내세워 남성적 힘과, 강함을 강압적인 방식으로 보여준다.⁸⁵⁾ 이에 여성신은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다. 그러나 처음의 강한 저항과 달리 여성신은 결국 이러한 남성신과 결연한다.

나주 뱀신의 축출, 바둑돌로의 변화로 인한 장소 이동은 나주의 정치 권력의 교체를 의미하거나 뱀신앙이 후대에 오면서 소멸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바둑돌이 제주 사람들을 따라 뱀의 모습과 처녀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제주로 입도한다.

서울에서 제주로 오는 과정이 다른 조상신의 경우처럼 곡식을 따라 오는 부신(富神)의 모습보다 용왕의 모습이 더 강하게 보인다. 뱀신은 제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강씨, 오씨, 한씨와 바둑돌의 모습으로 처음 관계를 맺지만 버려진다. 바둑돌은 뱀신으로 강씨, 오씨, 한씨가 제주로 돌아가는 배를 풍랑으로 갈 수 없게 만든

고, 흐니, 날쟁일을 흐여 주건 정성을 들여라. 음식을 어떻게 드립네키? 계알안주에 조소주에 독두점, 노기 당산메 더운메 단메, 뉘은 제물 백볼레에 먹나.”

84)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613쪽, 한원평 구송.

85) 기십 :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덤비는 담기(膽氣).

다. 이는 뱀신이 풍신의 모습을 보이는 대목이다.

뱀신은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는 흉험으로 자신의 존재를 내보인다. 강씨, 한씨, 오씨가 점을 보고 뱀선왕에 고사를 지내어서 무사히 제주로 들어온다.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고, 대접을 받으니 배의 안전을 확보해주는 서사는 나주에서 따라온 뱀신이 뱀선왕이고, 용신의 속성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주 뱀신이 제주로 오는 길에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고, 뱀고사를 받는다. 용신의 대표적인 직능은 풍어와 풍파라고 할 수 있고, 나주 뱀신이 토산에 좌정하는데 이 또한 용신의 면모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⁸⁶⁾ 제주 사람들이 제주도로 돌아올 때 풍랑을 일으켜 배가 순항하지 못하게 하거나, 왜배들을 난파시키는 형태가 이를 뒷받침한다. 나주 뱀신은 토산에 좌정하여 수평선에 떠 있는 배들을 자기 소유라며 끌어당긴다. 이는 어부를 차지하는 해신의 직능을 보인다. 나주 뱀신은 바둑돌로 변해 진상품 진상에 따른 행운을 주어 부를 얻게 하고, 제주로 올 때는 풍파를 일으키고 뱀고사를 받는다. 토산 알당의 토산한집은 사신으로 칠성 신앙에 따른 부의 기능과 바람과 비를 부리는 용의 기능까지 덧붙태면서 용사신앙으로의 면모를 보인다.⁸⁷⁾

선주들의 딸의 죽음과 광증은 자신을 대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토산한집의 흉험이다. 토산한집의 분노 표출로 흉험을 주고, 신앙민들은 흉험에 따른 두려움으로 제향을 한다. 토산 알당의 토산한집은 나주 금성산에서 제주로 입도하여 토산에 좌정하였지만 아무도 자신을 대접하여 주지 않는다.

저 토산 메떼기무를 누워 두 일뤼 열나을, 사 두일뤼 열나을, 어느 누게
먹으라 씨라 흐는 자가 엇어지는구나. 흐를날은 저 토산 올리소에 나가 연서
답이나 흐저. 오씨 아기 느진덕정하님을 거느리고 올리소에 연서답을 들어가
니,⁸⁸⁾

토산한집이 좌정하지만 아무도 제향을 해주지 않자 오씨 형방 따님아기가 왜구

86) 허남춘, 「칠성과 부군(府君)」, 『비교민속학』 58, 비교민속학회, 2015, 37쪽; 이현정, 「제주도 나주 출자 뱀 신앙 연원 고찰: 조선조 나주목 일대 용신 신앙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5, 국문학회, 2022, 31쪽. 나주 금성산과 토산 으드렛당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용신 신앙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87) 김현선, 「제주도 토산당 옷당본풀이와 알당본풀이의 비교」, 『한국사상과 문화』, 2003, 127쪽.

88)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483쪽, 안사인 구송.

에게 겁탈당하여 죽게 하고, 강씨 형방 따님아기가는 광증을 일으키게 한다. 또한 빙의를 통해 자신을 제향하라고 말한다. 여성신은 단골과 관계를 맺을 때 빙의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낸다. 빙의는 대표적인 무속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토산한집은 빙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결연하기로 한 단골은 신의 요구를 행한다. 토산한집의 요구는 자신을 섬기라는 것이고, 이를 실행한 단골은 그 대가로 복을 받는다.

토산한집은 서울에서 제주로 오는 뱃길을 터주는 풍신의 위엄을 보이며 단골들에게 행운과 복을 주었다. 이에 더해 죽음과 신병이라는 강력한 흉험으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자리잡으며 당신으로 제향받고 있다. 이처럼 흉험 뒤에 오는 매혹적인 행운은 단골들에게 신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이 신을 모실 수 밖에 없게 하는 것이다.

신위는 신당한집으로, 집으로 일월조상으로 위하니 효녀절부로 칭찬하니 다 투면서 그 신위를 위합네다.⁸⁹⁾

위 내용은 토산한집을 토산 알당의 당신으로, 집으로는 일월조상으로 위하니 효녀와 절부라고 칭찬하니 다투면서 토산한집을 위하였다고 하는 대목이다. 강씨, 한씨, 오씨 형방 집에서 조상으로 모시다가 신앙민의 확장으로 알당의 당신으로 좌정하고 있다. 또한 다투어서 모실 정도로 토산한집의 분파가 활발했음을 말하고 있다. 효녀와 절부라는 사회체제를 내세워 유교적인 관념이 무속에 스며들어 있으며, 이를 중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신들이 신앙민에게 주는 흉험은 당신들의 직능과 관련한 것들이다. 광증 및 신병의 흉험을 내리면 치병의 직능일 수 있고, 피부병이나 허물의 질병을 흉험으로 내리면 일뤼당의 직능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이 주는 흉험과 신의 직능은 서로 밀접하며 신앙민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제주 처녀당신에서 신흥본향당 볼래낭 박씨할망, 토산 알당 으드레한집은 왜구에 의해 겁탈당해 죽은 원혼을 모시는 당이다. 볼래낭할망당은 일뤼당신, 토산 알당은 으드레한집의 성격을 지니고, 여성들에 의해 위함을 받고 있다. 두 본풀이에서 여

89) 赤松智城·秋葉 隆, 심우성 역, 『朝鮮巫俗의 研究(上)』, 동문선, 1991, 박봉춘 구송.

성이 왜놈들의 겁탈에 억울하게 죽는데 이를 통하여 사회적 시대상을 알 수 있다. 두 지역은 해안가 마을로 왜놈들이 자주 출몰하였으며, 사회 약자인 여자들이 수난을 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섬에 버려짐과 공희

제주도 당신본풀이 중 처녀신의 죽음에는 인신공희에 의한 희생도 포함된다. 이들은 사회적 환경이 곤궁하여 남의 아이를 돌보는 일로 살아가는 아기엽게, 더 이상 공물로 내놓을 것이 없어 공물 대신 바쳐져야 하는 처녀로 이들 죽음의 희생으로 공동체의 안전을 수호하고 있다.

인신공희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라는 성격으로 등가교환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와 동등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공동체의 유지를 위하여 처녀의 목숨을 내놓는 것은 이러한 등가교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존재의 죽음과 공동체의 생은 서로 맞바꿀 수 있다. 죽음은 무엇도 이길 수 없는 행위이다. 어쩌면 한 사람의 죽음이 여러 사람의 죽음을 막고 있으니 등가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한 사람의 신성한 죽음이 필요했다. 자세히 그 죽음이 서술되지는 않지만 자의든 타의든 그것은 신성한 죽음이다. 장영란은 희생 제물의 단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희생은 아주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존재여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⁹⁰⁾

제주도 처녀당신에서 마라도의 허씨 아기엽게와 수산 진안할망 또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는 소중한 가치로서 제물로 바쳐진다. 마라도 허씨 아기엽게는 생업 공동체의 삶을 대신해서 섬에 남겨지며 희생되고, 수산 진안할망은 마을 공동체

90) 장영란, 「희생제의와 희생양의 철학적 기능」, 『동서양철학연구』 68, 한국동서철학회논문집, 2023, 101쪽; “희생제물은 처음에는 바로 인간 자신이었다가 인간을 대신하는 제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기적으로 희생된 존재는 신적인 왕이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외 어떤 사람이 신적인 왕의 대체물로 정기적으로 희생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인간은 아주 위급한 시기들에 희생되었지만, 다른 때에는 인간을 살해하는 척만 했으며 어떤 다른 희생물로 대체하기도 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인간을 결코 희생물로 삼지 않았으나 대개 그가 희생물이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방식으로 취급되었다. 가령 국가 공동체가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적 재해나 역병이나 전쟁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고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가진 존재가 희생양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가 공동체가 위협을 받는 상태에서 가장 고귀한 인물이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생겨난다. 그래서 국가 공동체에서 가장 높은 왕이 직접 희생양이 되거나 왕의 딸 또는 아들 및 가장 아름다운 처녀가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의 안위를 위하여 성을 쌓는데 제물로 바쳐진다. 이처럼 버려짐과 바쳐짐의 공희와 유사한 경우는 제주도에서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흔적이 남아 있다. 이 장에서는 섬에 버려지는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섬에서 버려지는 공희의 경우 남성의 경우와 여성의 경우가 있다. 신안군 흑산면 진리 당제 당신화는 귀공자의 피리 소리에 반한 각시당으로 인해 섬에 갇혀 피리만 불다 죽은 소년의 이야기와, 섬에 고립되어 죽은 처녀의 이야기가 있다.⁹¹⁾ 여기에 제주도 마라도 아기업게의 경우와도 대비시켜보면, 이들은 생계를 위해 섬에 가고, 풍랑으로 섬에서 나올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은 제물로 섬에 남겨지게 되고 그들의 희생 덕으로 다른 사람들은 무사히 섬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 섬에서 남겨져 죽은 사람들처럼 비정상적이고 억울한 죽음은 원귀를 만든다. 원귀들을 위해 어부들이 제사를 지내주고 원한을 풀어주자 원귀들은 풍어로 이에 보답한다. 이처럼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모셔짐, 풍어는 동해안 어촌 어디에서나 생길 수 있는 보편적인 상황으로 그 비극적 의미가 극대화된 것이다.

마라도 애기씨당본풀이는 마라도에 홀로 남겨져 죽은 아기업게의 내력을 담고 있다. 아기업게의 희생에 따른 죽음이 중요한 서사이다. 아기업게의 죽음으로 섬에 갇혀 있던 해녀들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아기업게의 존재, 희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따라서 제주도 구비설화에 드물지 않게 등장하는 아기업게가 제주도에서는 어떤 존재인지, 그의 희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음은 마라도 아기업게본풀이 내용이다.

<마라도 아기업게당>

허씨애기 열닉술에 알드르 이척 애기업게로 가,
거기 잠수 서이 마라도에 물질을 갔다가 오월 장마이 되어서
사흘을 거기 무인지경에 천막을 쳐서 죽게 되는데,
흐를밤 몽에는 산신대왕이 느른서 선물을 흐되,
“열닉술 난 처녀를 두고 가민 너가 살 것이라.” 흐여,
그런디, 이제는 날이 새여, 태가 나오라,
올라온 덕으로 섬비물 와서 태에 올라, 열닉술 난 애기업게?라

91) 표인주, 『공동체신앙과 당신화연구』, 집문당, 1996.

“저디 지성귀 넌 거, 강 7정 오라.” 하여,
 애기업겔 똑기 털어치와두언 태를 툃와 떠나 오니,
 그 할망이 낮에 일되 밤에 일되 열나흘 굶어 죽으니,
 뒷햇 스월이 나니 거길 간 보니 팡만 슬근하엿으니
 이제는 아미선관 신도본향 일되중즈로 들어사니,
 이 무을에선 이 당을 잘 위하니 일신 펜고흡네다.⁹²⁾

해녀들이 마라도에 물질하러 갔다가 나오지 못하니 꿈에 산신대왕이 나와서 열네살 처녀를 두고 가면 살 수 있다고 하여 놓고 나온다. 다음 해에 가서 보니 처녀는 죽어 있었다. 바다 일을 하는 공동체에서 처녀를 당신으로 모셔고 제향한다. 이 본풀이는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원혼과 관련된 처녀당본풀이에 속한다. 이 당은 마라도 애기업개당 또는 마라도 할망당이라고 지칭한다.

마라도라는 환경적 요인이 처녀를 죽게 한 것처럼 말하지만, 죽음의 직접적인 책임자는 함께 갔던 어부와 해녀들이다. 이들, 공동체는 마라도라는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으로 자연에 처녀를 바치는 방법을 선택한다. 아기업게는 어부와 해녀들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존재에 관해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희생 제의는 고대부터 있었던 제의이다. 이러한 고대적 제의의 양상을 제주 본풀이의 인신공희 서사나 액막이 부분 서사에서 볼 수 있다. 본풀이에 전승되고 있는 인신의 희생 제물은 말이나 소로 변화되었다가 지금은 닭을 바치는 것으로 되었다. 그런데 이마저도 닭의 희생이 반생태적이라는 관념이 퍼지면서 소고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고대의 제의 형태인 인신공희 서사가 제주도 마라도 아기업게, 수산리 진안할망의 본풀이에서 전승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제의에 희생된 인물에 대하여서 중점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

마라도 아기업게당본풀이에서의 아기업게가 누구인지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 김통정 장군과 관련한 이야기에서 아기업게에 대한 논의는 있다. 아기업게의 역할에 따른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기능을 하는 호국여산신”으로, “결국은 가해자이지만 한편으로는 지배집단에 의해 피해를 당한 토착민”으로, “제주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존중되어야 할 생명의 상징으로 보았고, 또다른 시점으로 아기업게

92)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각, 542쪽. 송경순 구송.

를 하위 주체로서 원주민의 위치를 말해주는 존재로 설명하였다.⁹³⁾

이 글에서는 아기업게라는 인물은 우리 주변에서 생활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인간의 원형적 비극에 초점을 맞춘다. 제주도에서 아기업게는 주변에 흔히 있는 인물이다. 남의 집 아이를 돌보아주며 사는 아이로 가장 하층민적인 존재이다. 김통정 이야기에서도 나오듯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약하고 힘없는 아이로 무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약자이다. 이처럼 곤궁하고 약한 존재를 희생함으로 희생 제의의 신성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어려운 상황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가장 고귀한 존재가 희생된다. 여기서 가장 고귀한 존재란 왕이나 공주 같은 높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기업게처럼 가장 곤궁하고 약한 존재일수록 제의적 현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다. 아기업게와 같은 곤궁하고 나약한 상황은 비극적 승화를 끌어내어 제의적 영험함을 높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어부와 해녀들은 생업을 위해 마라도에 갔다가 섬에 갇힌다. 제일 연장자의 꿈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처녀를 바치면 일이 해결된다고 전한다. 이러한 현몽 관련 화소는 인신공희와 관련된 이야기에 자주 등장한다. 자연 현상에 의한 극한 상황을 초자연적인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였고, 풍랑을 일으키는 바다의 신이 분노한 것이며 이 분노를 잠재우는 방법으로 인신공희를 택한 것이다. 이 화소는 인신공희의 필요조건으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다는 정당성을 내포하고 있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고대의 제의 자체가 희생 제의이며 인신 공양이 원형이다. 꿈속에서의 지시대로 처녀를 섬에 두니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인신 공희에 따른 무사안녕, 완성의 결말은 공동체의 제향이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처녀를 바치고, 처녀를 위한 당을 설립하여 제를 지낸다.

마라도 애기씨당본풀이는 전설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전설로 많이 전해오고 있다. 전설의 내용이 본풀이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정형화되어 구술되고 있다. 고광민의 논문을 보면, 마라도에 돌로 제단을 만들어 놓은 처녀당은 메

93) 권태효, 「제주도 김통정이야기의 당신화 및 전설로의 변용양상」, 『구비문학연구』8, 1999, 182쪽; 이남옥, 「김통정 설화 연구」, 『탐라문화』2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302쪽; 배윤정, 「김통정 이야기의 전승과 역사의 재구성」,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28쪽; 이소윤, 「제주도 역사 전설과 그 본풀이에 나타난 기억서사의 형성원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47-50쪽.

인심방이 없어서 본풀이로 불리워지지 못하고 전설로만 구전되고 있고, 섬 주민들은 ‘메’ 한 그릇과 ‘건어’를 준비해서 스스로 제를 올리는 실정이라고 하고 있다.

다음은 마라도 아기업게와 관련된 전설이다.

마라도 사람이 아이 살 때 물질 강 오다가, 좀녀들 실은 배가 안개가 끼서 어디 못 가니까 급하게 뒤편이든. 뒤편이 이제 열두명 실은 해녀들 시경 그디 가니까 다시 안개 끼서 캄캄해서 길을 못 찾으니까 하루 꿈에는, 그 주장헌 해녀의 꿈에는 ‘너희들은 그냥 가지카부덴 흐느냐? 이디 너네 하나 놔동 가야지 그대로는 못 간다. 너네 그대로 가면은 니네 목숨은 다 바친다.’ 경했거든 경해서 하니, 또 배임제 남제분네 ‘게매 이상하다.’라고. ‘나도 이만 저만해서 이상하네 우리가 어떻 흐느냐?’고, 우리 목숨, 처녀 그 14살 난 아이 업게로 들와 갔거든. 업게로 들와가니까. ‘이 아이를 놔동 가야지 우리 목숨을 어떻 흐느냐?’고. 경 하니 사공하고 배 임제 저 여자하고 잘 말해가지고 테역बाट 강 서로 놀다가 아오는 놔동 갈 거로. 오라서 배에 탁 올라가지고, 그 아오보고, “저기 뭐 내비여시니까 가져오라.”고 하니까. 가는, “나 강 오기 전에 가지 말라.”고 했거든.

가지 말라고 해서, 거 다 걸으니까 어느새 놀 듯이 안개도 걸으꼭 돛대 두개가 막 돌아갔거든. 경행 그제 아오는 돌아당 해녀 하나가 내중에 나우에 처녀가 벌린 것에 돌아져서. 돌아졌다가 하니까 거 여자하고 저 우리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디 마라도 사람들 들어강 사니까 매해에 처녀 옷을 아이들 옷처럼 행 걸고 그디 임시 간 사람도 우리 물질하래 가면은 두어 둘 살면은 오리라 해서 거기 가서 여기까지 데려와. 게면은 오는 날꺼정 감기하나 안 걸려. 경하난 이제 사람들 막 가도 이제 아무런 폐도 없고. 그디 사람이 상하지 안해서 살아. 경해서 하니까 그 처녀가 열넉살에 거기서 죽언. 할망당 모셔. 여기서 물질을 가도 거기부터 가서 해녀들이 오그락 절혀 경하든 틀림없이 오라.⁹⁴⁾

위의 이야기는 본풀이의 서사 내용보다 더 풍부하다. 고기를 잡으러 간 사람들이 아기업게를 섬에 두고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신앙으로 위하는 내용 또한 자세히 구술하고 있다. 이 아기업게당을 할망당으로 지칭하며 직능 또한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마라도에 사람이 살지 않을 때 물질 갔다가 안개가

94) 제주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백록어문』 15, 1999, 292쪽. 강필봉(남, 78세) 구술자료.

껴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다. 그때 한 해녀가 처녀를 두고 가야 무사히 섬에서 나갈 수 있다는 꿈을 꾸고, 어부와 해녀들이 의논하여 열네 살 난 아기업게를 두고 오니 어부와 해녀들이 무사히 섬을 나올 수 있었다.

본풀이에서 보이지 않는 흥험에 관한 서사가 이 설화에서 보인다. 위 설화 중 “경행 그제 아으는 돌아당 해녀 ㅎ나가 내중에 처녀가 벌린 것에 돌아져서. 돌아졌다가 ㅎ니까 거 여자ㅎ고 우리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디 매해에 처녀 옷을 아이들 옷처럼 행 입지곡 [그래서 그때 자신의 아이를 보기 위해 아기업게를 데려갔던 해녀가 나중에 아기업게가 죽었던 곳에 매달렸다고 하니까 그 해녀하고 우리가 거기에 매해마다 처녀 옷을 아이들 옷처럼 해서 입히곡]” 하는 대목은 해녀의 아이를 보는 일로 함께 갔던 아기업게를 섬에 놔두고 온 후에, 그 해녀가 아기업게를 위해 세운 비석에 옷을 입히고 제향을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자신들의 삶을 위해 가장 약한 아기업게를 죽게 만든 것에 대한 무거운 마음에 기인한다. 마라도에 사람들이 살게 되고, 또는 어부와 해녀들이 자주 드나들며 몇 달씩 살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꼭 이 당에 가서 빌면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마라도 아기업게당은 생업수호신, 산육과 치병, 호적, 장적, 물고를 차지한, 본향신이라고 주민들이 관념하며 마라도 모든 주민이 다니는 당이다. 마을 본향처럼 관념하는 당이지만 일뤼당적인 성격이 있다. 마라도 아기업게당의 서사를 통해 일뤼당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아기업게의 생업적 역할에 따라 아기업게당은 아이의 산육과 연결이 된다. 또한 치병의 직능도 있어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찾아가 개인적으로 가서 비념을 하는 곳이다.

마라도 허씨 아기업게당은 마을 본향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마라도에 있는 유일한 당이다. 1975년 마을 회의에서 포제의 지제가 결의될 만큼 마라도 주민들은 마라도 섬을 관장하는 토지지신으로 아기업게당을 인정하고 있다. 1976년 미신타파로 마라도 아기업게당을 부수고 그 자리에 불당을 건립하여 부처님을 믿도록 강요하였지만, 주민들은 아기업게당을 망동산 아래 바닷가로 옮겨 제향을 계속하였다.⁹⁵⁾

마라도 아기업게당은 일뤼당적인 면모가 보인다. 이 신은 육아를 돌보는 산육신

95) 이기욱, 「도서와 도서민, 마라도」, 『제주도연구』, 제주도연구회, 1984, 191쪽.

임과 동시에 마을의 모든 것을 지켜주는 본향신인 셈이다. 이곳에서 무속제의를 올릴 때는 메 한 그릇만 올리지만 해녀들이 용왕에게 또는 어부들이 선왕에게 제의를 지낼 때는 메 2기를 올린다.⁹⁶⁾ 마라도 아기업계당은 어부와 해녀를 위한 생업 수호신적인 면모, 아이의 육아와 치병 등 일렉당신적인 성격도 있다. 마라도 아기업계당은 아기들에게 휴엄을 주어 위함을 받는다고 하고, 이 당에 다녀서 아이들이 바다로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⁹⁷⁾ 따라서 이 당은 제일이 칠일로 일렉당계열이면서 어부와 해녀들이 다니는 개당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이처럼 마라도 아기업계당은 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당이다. 이러한 요인은 마라도라는 환경적인 특성도 있지만 한정적인 공간에서 살아가야 하는 주민들의 다층적 염원이 투영되기 때문이다.

4) 성에 바쳐짐과 공희

진안할망당은 성산읍 수산리 마을에 있는 수산진성을 쌓는 과정에서 희생된 처녀를 위한 당이다. 이처럼 성을 쌓는데 인신공희의 경우는 월성 서성벽에서도 발견된다.⁹⁸⁾ 성을 축조하는데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가 제물로 희생되었는데 다들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임을 말해준다. 이처럼 인신공희는 고대부터 전해지던 것인데 제주도 본풀이에도 이러한 습속이 전승되고 있다. 월성 축조의 인신공희는 제주도 수산리 진안할망의 인신공희와 유사하다. 수산리 진안할망당 본풀이에는 수산진성을 축조하기 위해 처녀를 희생 제물로 쓰고 있다. 하지만 이 처녀를 신격화 하여 제향을 한다는 점이 월성 인신공희의 경우와 다르다.

96) 고광민, 『마라도의 역사와 민속』, 한그루, 2017, 147쪽.

97) 고광민,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98) 장기명·최문정·박정재, 「신라 월성 서성벽의 축조 공정과 인신공희」, 『영남고고학』92, 2022, 138-144쪽. “월성은 신라 마립간기에 축조된 거대한 토목 구조물로서 인신공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성벽 체성부가 본격적으로 축조되기 전에 서성벽2에서 정지층의 공간을 활용하면서 중심 토루의 설계 기준선에 맞춰 배치되고, 인신 희생, 동물 뿔기, 토기 공헌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의도적 매납이 인정되어 제의적 기획성을 갖춘 점 등을 통해 개괄적 의례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성 서성벽 인신공희에서 성년 여성 인골은 막 성장이 끝난 연령대로 추정되고 뼈 굵기나 발달 상태가 왜소한 체격이다. 1990년 발굴조사보고서-성벽 축조와 관련된 인신 희생은 최소 20개체 이상이며, 다양한 연령대를 보이며, 대체로 영양 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낮은 지위를 지닌 계층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인신공희는 역사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제의는 공동체의 외부 환경에 따른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행하게 된 것이다. 이들 공동체는 가장 약한 여자아이에게 모든 책임과 희생을 떠넘기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비굴함은 그들을 신으로 모시고 제향하는 방법으로 조금이나마 희석화하려고 한다.

성산을 수산리 진안할망당의 본풀이를 통해 진안할망의 희생 제의와 신앙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음은 수산리 진안할망당본풀이 내용이다.

진안할망은 성담쏘굽에 할망을 놓안 성을 쌓난 진안할망이엿 습니다. 옛날 고려적에 여배에서 여놈들이 쯤쯤 침입을 흐연 “성담을 둘러라” 혼디, 성담이 자꾸 몰아지연, 흐로는 꿈에 산신이 나타나고 “열시슬된 처녀를 놓왕 담을 쌓민 좋기엔” 흐난 열시슬 난 지집애기를 놓고, 성을 둘러섯습니다. 그후로 성담은 잘 되었습니다. 단꺽들이 흐는 이력이 부족흐나 집안이 펜치 못흐민이 할망안티 왕 빌민 펜안습니다. 11월 14일 동지제. 쯤손에 생기 맞는 날.⁹⁹⁾

위의 본풀이 내용을 보면 왜구 방어를 위한 성을 축조하면서 인신공희가 이루어졌고, 제물로 바쳐진 처녀를 위해 마을에서 제를 지낸다. 처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들을 돌봐주는 당신이 된다. 수산진성 쌓는 일은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왜구의 침입을 막는 진성 축조에 성공하려는 관과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인신공희가 이루어진다. 인신공희라는 공동체의 폭력은 성의 완성과 보호가 가능하게 한다. 이로써 제물로 바쳐진 처녀는 지역민들에게 제향을 받으며 수호신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본풀이는 고려 때라는 역사적 시간과 왜적의 침입이라는 사건이 배경이 된다. 외부의 침입은 어린 여자라는 약자의 희생이 따르게 한다. 하지만 왜적이 여자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외부 침입에 대한 보호 욕구의 마음이 반영되어서 처녀공희라는 집단적 폭력을 행사한다.

수산진성은 지금으로부터 약 587년 전부터 운영되어온 제주도 내에서 현존하는 방호소성 중 가장 오래된 성이다. 왜구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방호소 역할을 했던 시설이다. 1439년에 축성을 시작하여 1443년에 축성을 완성하였다. 4

99)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2016, 442쪽, 조옥순 구송.

년여간 축성을 쌓는 동안 마을 주민들은 물자와 노동력을 제공하느라 어려운 시절을 보냈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설화속에 잘 나타난다.

성을 쌓을 때 마을 주민들이 모두 부역을 하고 공출을 내는데 유독 한 여인은 공출을 내지 못했다. 관리가 공출을 독촉하는데 아기가 '으앙'하고 울자, 집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저 아기라도 데려가라고 했다.

공출 관리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어넘겼다. 그 후 웬일인지 축성 작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성을 쌓으면 이유없이 자꾸 무너지곤 했다. 어느 날인가 지나가던 스님 한 분이 '왜 주꼴다던 원숭이띠 아기를 받아다가 바치지 아니 하시오.' 하는 것이었다. 그때야 공출 관리는 그 집에 가서 아기를 달라고 하니 아주머니는 망설임 없이 내주었다. 아기를 땅에 묻고 성을 쌓으니 정말 성이 무너지지 않고 수산진성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밤마다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동네의 한 부인이 제사를 지내고 퇴물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니 아기 우는 소리가 그쳤다. 처음에는 신당으로 모시지 않았으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신앙의 대상으로 바뀌었고 영험이 좋아 자녀의 진학, 출세와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많이 찾으며 인근 부락인 고성리, 오소리 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제주시 등지에서까지 찾고 있다. 그러나 심방들은 당신(당신)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안동헌은 박동헌 내동헌 참방할망 옥할망 옥쇠나장할마님은 되지기로 마련하고 흡지기로 마련하여 간간생이 노라왕 이기는 송사 지게 하고, 지는 송사 이기게 하는 할망이우다.' 라는 사설을 본풀이에 넣는다고 한다.¹⁰⁰⁾

위의 내용은 마을에서 내려오는 수산 진안할망 이야기다. 다른 수산 진안할망본풀이에서 보이지 않던 처녀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나오고, 진안할망을 제향하게 된 경위가 자세히 나와 있어 참고할 만하다.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성을 쌓기로 하지만 그 성이 자꾸 무너져 완성하지 못한다. 원숭이띠 처녀를 바쳐야 성을 완성할 수 있다는 스님의 말에 처녀를 바치고 성을 완성한다.

인신공희 후 제를 지내는 것은 억울한 처녀의 원한과 고통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위함이다. 이곳에서 아기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지만, 이는 공동체로의 일원으

100)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제주의 마을 성산읍 수산2리』
(<https://www.jeju.go.kr/vill/susan2/intro/folk.htm>)

로 지켜주지 못한 괴로움에서 비롯된 환청일 수 있다.

본풀이 내용에서 보자면 억울한 죽음을 위로한 한 사람의 제사로 시작했으나 마을 전체 도는 인근 마을로까지 신앙이 퍼지고 있다. 그 요인을 영험이 좋아서라고 하고 있다. 자녀의 진학과 사업의 성공으로 많은 이들이 찾는 당이다.

진안할망당은 수산진성의 북쪽 한 부분에 있다. 성을 출조할 때 돌담이 자주 무너져 내려 사람들이 죽고 다치자, 잔나비띠 소녀를 제물로 바쳐 성담과 함께 묻은 후에 진성을 완성할 수 있었다. 진안할망당은 억울하게 죽은 소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설치한 당이다.¹⁰¹⁾ 진성을 쌓는 일은 주민들에게 힘든 일이다.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고, 물자를 공출해간다. 따라서 여러해 동안 성을 쌓으면서 동네 주민들은 살기 어려운 시기를 보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예로 향파두리성을 쌓을 때 그 마을 주민들이 앞사람 똥을 먹기도 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기도 한다.

이 본풀이에는 노동력과 공출에 관한 주민들의 어려움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고, 수산진성을 완성하기 위해 희생된 진안할망에 관한 내용만 전승된다. 하지만 현재 진안할망을 위해 제를 드리는 당도 있고, 지금까지 의례를 행한다.

이 당은 영험이 좋아 자녀의 진학, 출세와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많이 찾으며 인근 부락인 고성리, 오조리 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제주시 등지에서까지 찾아오던 당이지만 현재는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진안할망의 죽음이 관에서 행하던 성을 쌓는 일에 희생되었기에 이 당의 직능 또한 관청과 관련한 기능으로 관념하고 있음을 추측해본다.

수산 진안할망당은 단골 개인이 찾아가서 비념을 하기도 하고, 수산 마을굿을 지내기 전에 심방이 진안할망당을 찾아가서 할마님을 수산 마을 당으로 모셔간다.

마을굿 헌 날 새벽에 여기와서 할머니 걸읍서 행 본향으로 모성가곡, 경헌 디우다. 이 당이. 대대손손 오늘까지 노렸습네다. 옛날엔 우리나라 상시관에 과거보레 가젠 해도 이밤광 저삼 새에 오랑 축원 올려동 가곡, 이제도 시국이 변천이 됩니 어느 대학시험에도, 공무원 시험 회사 직장 들어가젠 해도 할마님신디 오랑 다 빌어가곡, 영 험네다. 어느 먼질을 가젠 해도 할마님신디 오랑 빌어 가곡, 무사하게 헤여 줍센 헤영 오랑 가민 우리나라 상시관이 어느 장원급제 문성급제 팔도도자원을 허영 다 허곡, 시험 잘뉘게 허곡, 신

101) 수산1·2리마을회, 『수산리지』, 2021, 259쪽.

굽혀던 할마님이웨다. 오늘은 이제 어느 시대 현중은 모릅니다만은 입으로 구두로만 내려오난,

옛날옛적입네다. 성을 둘루젠 허난 이디만 오라가민 성담이 무너지곡, 아니뵐로구나. 흐를날은 절간 지컨 중이대스님이 넘어가단 천기를 둘러보니, 경허지 말곡 열다섯 십오세 미만 비바리 애기 데려당 이 알에 놓아근 성담을 쌓아사, 이젠 편안허켄 허난, 열다섯 십오세 알로 비바리를 허단

성담을 쌓으니 이 성도 편안허곡, 헌디 흐를날은 소리 제껴가난, 어평헌 일인고 어디 간에 문점허난 혼넉으론 조상이영. 혼넉으론 영혼이엔 허난, “경허민 어평험네까.” “상정월 이제 첫제일날 허영 오물떡에 연주청 헤영 질산 받아 조기, 생선 은메단데 산메쳐 농곡 가근에 빡센.” 허난, 오라간 빌어가니, 이제도 돌고망에서 조상이 나오랑 밥을 거려 먹영 들어간 게 그게 병이 좋아가곡, 글로 옛날엔 이 밤광 저 밤 사이에 남자 어른들 차롱에 메 혼공기 허영 오랑 절허동 가곡 헤여수다만은, 시대가 변천이 뉘여가난 옛날엔 구덕 지영덜 7는대구덕에 올레가 닳아지곡, 올레 7득, 마당 7득허게 덩겨수다만은, 이제도 만민즈순덜이 나이가 들곡 몸이 노신이 뉘여가곡 허난, 좇아오는 즈순덜도 엇어지어가곡, 영 허니 할마님도 혼넉으론 섭섭허여도 수산 밋을은 이제 상정월 나민 브름 넘곡 스무날이 넘어가민 날 택일 반앙 밋을 곳 허민, 그때 할마님전 좇아오랑 축원공연 올려수다만은, 이번 참에 즈순덜이 모두와 웃들런에 시연회를 허난, 오늘도 봅서. 얼굴 물론 즈순덜 아는 즈순덜 마당 7득 좇안 오라수다. 할마님도 지꺼지고, 지쁘고 영험구나. 영 허시니 다 편안허게 험서.¹⁰²⁾

(마을곳 하는 날 새벽에 여기 와서 할머니를 모셔서 본향으로 가고 하면서 이 당이 대대손손 내렸습시다. 옛날에 우리나라 상시관에 과거보러 가려고 해도 밤에 와서 축원 올리고, 지금도 대학시험, 공무원 시험, 회사 직장 들어가려고 해도 할마님에게 와서 다 빌고 합니다. 어느 먼 길을 가려고 해도 할마님에게 와서 빌고, 무사하게 다녀오게 해달라고 해서 와서 가면 시험 잘 되게 하고, 신급하던 할마님입니다. 오늘은 어느 시대에 했는지 모릅니다만은 입으로만 내려오니

옛날 옛적입니다. 성을 쌓으려고 하니 여기만 오면 성담이 무너지고, 아니 되겠구나. 하루는 절 지키던 대사님이 넘어가다 천기를 둘러보니, 그렇게 하지 말고 열다섯 십오세 미만 비바리 처녀 데려다가 이 아래 놓아서 성담을 쌓아야 편안하겠다고 하니, 열다섯 십오세 처녀를 하다 성담을 쌓으니, 이 성도 편안하고 한데,

102) 2022년 5월 28일 성산읍 수산리 진안할망당제(수산본향당 활용 사업에 따른 재연 의례), 오용부 심방 구송.

하루는 소리가 시끄럽게 나니, 어떤 일인지 문점하니 한쪽으론 조상, 한쪽으론 영혼이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합니까?” “상정월 이제 첫제일날 해서 오물떡 연주청 해서 조기, 생선 은메단메 산을 메치고 해서 비세요.” 하니, 와서 빌어가니,

이제도 돌고망에서 조상이 나와서 밥을 거러 먹고 들어간 것이 병이 좋아가곡, 그렇게 옛날엔 밤에 남자 어른들이 차룽에 메 한공기 해서 와서 절하고 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기 시작하니 옛날엔 구덕 저서 올레가 닳아지도록 가득하게 다녔읍니다만은, 이제 자손들이 나이가 들어가니, 찾아오는 자손도 없어지고 하니, 할마님도 섭섭해도 수산 마을은 이제 상정월 나면 보름넘곡 스무날이 넘어가면 날 택일 받아서 마을굿 하면, 그때 할마님전에 찾아와서 축원공연 올렸읍니다만은, 이번 참에 자손들이 모두와서 같이 시연회를 하니, 얼굴 모르는 자손, 아는 자손들 마당 가득 찾아왔습니다. 할마님도 즐겁고, 기쁘고 합니다. 이러니 다 편안하게 해주시길.)

평소에는 입시나 승진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조용히 가서 비념하며 빌다 가는 곳이다. 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진안할망 의례를 재현한 것이다. 이날은 마을의 남·녀 모두 참석하였고, 단골 할머니들이 자리를 차지하여 앉았다. 이 당은 수산리 마을굿 할 때 먼저 들려서 진안할마님을 모셔간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올레가 닳도록 이 당에 사람들이 많이 다녔었다고 전한다. 예전에는 남자어른들만 주로 다녔다고 하고 있으나 그날 마을 어른들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마라도 아기업게당, 수산 진안할망당, 골르락당은 제향하는 신앙민들이 공동체이다. 처녀당 의례가 개별적이고, 혼자 조용히 치러지는 것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당들은 성격은 공동체성을 띠지만 의례는 개별적으로 행한다. 제향 주체가 해녀공동체이거나, 마을 공동체, 향교 공동체라는 성격을 띠지만 당굿을 하거나, 서로 모여서 의례를 행하지는 않는다. 제주도 공동체를 띤 본향당제나, 영등굿 또는 잠수굿과 다르게 조용히 행하여진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빌어야 할 사안이 생겼을 때 조용히 혼자 갔다 오는 일렛당의 의례 형태와 유사하다.

마라도 허씨 아기업게, 수산 진안할망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희생된다. 사계리 골르락당의 오씨아미는 사회체제로 인한 혼사 장애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향교에서 남성들만 제향한다. 이 당들의 공통점은 남·녀가 모두 찾는 당이라는 점이다. 이 당의 직능 또한 마을 공동체와 연관되고 있다.

마라도 허씨 아기업게당은 마을 본향의 기능을 하고, 수산 진안할망은 남성들의 주 관심사인 시험, 입시, 승진의 직능이다. 굴르락당은 향교에 다니는 이들이 제향하며 관청의 시험, 입시, 승진의 직능을 지니고 있다.

이 당들의 당신들은 공동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고, 그 공동체는 처녀의 죽음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처녀들은 억울하다고 흉험을 표출할 필요가 없다. 특히 진안할망당과 굴르락당은 주로 남성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성격의 직능이며, 특히 굴르락당은 향교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남성들만 참여할 수 있는 당이다. 이들은 처녀의 죽음에 책임 의식을 지니고 있고, 그에 따라 처녀 원혼을 위해 제향을 한다.

이처럼 처녀 원혼의 분노 표출에 따른 흉험 주기는 단골에 따른 것이다. 단골에 따라 직능이 달라지고, 그 직능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따른 것으로 기능이 분명하게 제시된다. 여성들만 가는 당인 볼래낭할망당과 토산 알당은 산육과 치병을 주된 직능으로 삼고, 신들이 적극적으로 흉험을 드러내고 있고, 남성들이 주 단골인 진안할망당, 굴르락당은 시험, 입시, 승진 및 본향의 기능으로 신들이 흉험을 드러내지 않는다. 직능면에서는 다르지만 마라도 아기업게 또한 신앙민들에게 주는 흉험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보면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는 흉험이라는 방식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 여성신들은 공동체의 보호를 맡고 있다.

인신공희의 방식은 고대적 제의 형태로 제주도의 여러 곳에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주로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한 사람이 희생되는 형태로 진행되며, 공동체의 성격은 남성과 여성 성별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마라도 아기업게는 해녀들의 안위를 위한 희생이고, 수산 진안할망은 마을 전체의 안위를 위한 희생이다. 이 외에도 종이나 제방을 완성하기 위해 제물을 희생한다. 이러한 방식은 세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제의 형태이며, 가장 가치있고 신성한 희생을 통해 안전을 보호받으려는 신과 인간들의 상호교환적 의미가 있다.

진안할망처럼 마을의 안위를 위한 희생과 유사한 설화가 있다. 예전에 제주 목관아의 관덕정에도 상량식에 얽힌 인신공희가 있다.¹⁰³⁾ 제주 외에 에밀레종을 만들기

103)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96, 191-193쪽. “이 정자를 지으려고 할 때 목사는 전국에서 유명한 목수들을 불러들였으나, 집은 다 지으면 쓰러지고 다 지으면 스러지고 하였다. 어느 날 지나가던 중이 닭이나 돼지 상량식으론 안되고, 인상량식을 해야합니다.라고 하였다. 어찌 사람을 희생하라 걱정하던 목수들에게 스님은 아무날 아무시에 상량할 것을 주니하여 ‘상량’하고 큰소리를 지를 때 지나가던 술장수가 죽을 터이니, 그를 희생으로 상량하면 된다고 일러 주었다. 과연 상량식 날, 큰 소리에 놀란 술장수가 무거운 술에 깔려 죽었고, 그를 희생으로 상량식을 올리자,

위해 아이를 희생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다. 또한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신농 마을의 당제에는 인신공희로 스님이 희생된다.¹⁰⁴⁾

이처럼 희생되는 인물은 다양하며, 그 시대의 가장 성스럽고, 소중한 것이 제물로 바쳐진다. 스님이 되기도 하고, 아이가 되기도 하며, 처녀가 되기도 한다. 이 희생되는 제물은 젊은 여성인 경우가 많다. 가임기가 되었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택한다. 무한한 생산성을 가졌지만 순수하고 깨끗한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이로써 생산과 풍요는 모든 것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가임기 처녀의 풍부한 생산성으로 풍요를 기원하듯이 미완성을 완성으로 충족시키는 풍요로움의 관념으로 성 쌓기, 제방 쌓기 등 물질과 처녀를 일치시키는 현상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관덕정은 다시 쓰러지지 않았다.

104) 표인주, 『공동체신앙과 당신화 연구』, 집문당, 1996, 390쪽. “마을 앞의 원뚝을 막을 때 지나가는 스님이 술에 취하여 쉬어 가다가 잠이 들어서 이 스님을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지냈다. 제방을 막은 후에 비가 오려고 하면 애두렵다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 한편 이 마을에 천재지변이 자주 일어나게 되어 천제를 지내는데, 그 후로 천제를 지낸다.”

Ⅲ. 처녀당신의 직능과 성격

처녀당의 성격은 수호신, 산육과 치병, 시험 송사의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이 직능은 여성 당신화의 직능과도 일치한다. 처녀당신은 제주도 여성 당신화의 한 범주로 원혼 신격을 말한다. 그리고 여성 당신화의 성격이 변화되는 모습 또한 처녀당신에 적용하여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작은 범주에서 큰 범주로의 확장에 따른 논의를 통해 제주 여성 당신화의 성격과 흐름을 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제주도 당신본풀이에서 여성신의 기능은 훨씬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치병의 기능, 기자 및 산육의 기능, 생업 수호신과 같이 단편적인 직능들이 있는가 하면, 치병, 생업 수호, 산육의 기능이 섞이면서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제주도 당신앙은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전통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이라는 공간은 여성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 공간에서 여성들은 신앙의 상징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그 내용에 감성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전통 신앙을 전승하며 정체성을 획득한다.¹⁰⁵⁾ 당 신앙은 여성들에 의해 관습화되면서 당과 그곳에서 부르는 본풀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승된다.

이 장에서는 처녀당신의 직능과 성격을 제주 여성 당신화와 견주어 다룬다. 처녀당신이 제주 여성 당신화에서 작은 범주에 속하지만 이를 통하여 여성 당신화의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공간으로서의 당이 그들을 위한 당신앙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필요에 따른 직능으로의 변화

처녀당신은 죽음을 겪은 여신이 각자의 직능을 보이며 당신으로 좌정한다. 이 여신들의 직능은 제주도 여성 당신과 일치함으로 서로 견주어 보면 처녀당신의 성격이 명확해진다. 또한 이를 통해 제주도 처녀당신의 성격을 고찰할 수 있다.

제주도 여성 당신은 생산성을 기본으로 생업 수호신, 산육신, 치병신의 직능과 함께 시험과 송사 등 관운과 관련한 직능을 드러낸다. 처녀당신의 직능 또한 이와

105)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제주여성의 삶과 공간』, 제주문화, 2007, 255-313쪽 참고.

유사하다. 다음 표는 처녀당신의 직능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5] 처녀당신의 직능

당명	신명	직능	제일
호근이마루 으드렛당	예리뎨뵓 제샹곡 하로산 허자복이 샹마을 허좌수 하마을 황토나라 황토부인	치병	매달 8,18,28일
현씨일월	현씨일월	치병, 해원	9월 8일
골르락당	골르락당 오씨아미	시험, 진급	택일
볼래낭당	볼래낭 박씨할망	어업·해녀 수호, 산육·치병	택일
토산 알당	요드레한집	치병, 액막이	3·6·11월 8일
마라도 아기업계당	아기씨 일뤼한집	어업·해녀 수호, 산육·치병	정월 택일, 7일
진안할망당	진안할망	시험·송사	묘일

위의 [표5]에서 처녀당신의 직능과 제일은 치병과 생업 수호신, 산육, 시험·송사이고. 8일, 7일, 택일이 주이다. 또한 볼래낭당과 마라도 아기업계당은 생업 수호신에서 일뤼당의 성격, 그리고 본향당과 같은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사계리 골르락당과 수산 진안할망당은 시험과 송사의 직능으로 관청할망의 성격을 지닌다.

이처럼 제주도 처녀당신의 직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여성 당신의 직능과 일치한다. 제주도 여성 당신의 직능은 산육과 치병을 관장하는 일뤼당신과 으드렛당신, 생업을 수호하는 용왕해신부인, 시험·송사를 관장하는 관청할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외에 마을의 본향신으로 좌정한 경우도 있다. 처녀당신의 직능 또한 이처럼 분류할 수 있는데 산육·치병과 생업 수호신의 관심사는 주로 여성들에 의한 것이고, 시험·송사의 관심사는 주로 남성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주로 기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직능과 남성들이 주로 기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직능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이는 제주도 당신화의 성격을 살펴보는데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다.

또한 여성 당신화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양상과 일치한다. 제주도 여성 당신은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중층적인 신앙을 띠고 있다. 생업 수호신에서 일뤼당신의 성격, 그리고 본향신적인 성격까지 포함한다. 이는 처녀당신의 성격도 일치하기에 앞

서 살펴본 직능을 토대로 여성신의 복합적 양상을 살펴보고 신앙민의 필요에 따라서 신앙이 변화한 것임을 논한다.

둘째, 으드렛당신이 조상신에서 당신으로의 확장을 보인다. 호근이마루 으드렛당과 현씨일월, 토산한집은 제일이 팔일로 치병을 관장한다. 이들은 조상신적인 면모를 보이면서도 당신으로 확장되어 전승되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때문인데 주변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상신에서 당신으로 확장된 서사를 보이는바, 그 본풀이의 양상 또한 다르다. 이처럼 처녀당신의 직능은 여성 당신화의 전반적 양상을 알 수 있기에 연구 가치가 있다.

전통 사회에서는 마을의 재앙과 질병은 신의 조화로 인한 것이라고 믿었다. 이처럼 의례를 행하는 데에는 불행이라는 요소가 큰 역할을 한다. 권선경은 서울 행당동 아기씨가 천연두에 걸려 죽은 처녀신이며 천연두의 신인 호구신이라고 주장한다.¹⁰⁶⁾ 이처럼 아기씨를 모신 후로 사람이 죽고 질병이 생기는 것이 없어졌다. 아기씨는 질병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질병을 없애도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신인 것처럼 여겨진다. 이처럼 신의 직능과 영험과이 나타나고, 성격이 신앙 전승에 나타난다.

일렛할망은 산육을 담당하는 여신으로 생산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에 으드레한집 또한 곡창지대였던 나주가 곡창이 비니 제주로 오게 되는 신임을 조상신본풀이와 으드렛당본풀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처럼 으드레한집은 나주 금성산에서 온 신으로 생산성과 풍요를 기본으로 전제하는 여신이다. 이 신들의 서사는 복합적이고 중층적 구조를 띠고 있다. 신앙 또한 사회와 생활의 변화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산육과 치병의 직능

제주도 여성 당신에서 일렛당과 으드렛당이 큰 축을 이루며 확장되었다. 일렛당의 직능은 산육과 치병으로 아이들의 성장과 관련하고, 허물과 관련한 피부병 또는 안질을 관장한다. 으드렛당은 치병으로 신병 및 광증처럼 겉으로 상처가 드러나지

106) 권선경, 「서울지역 당신화 연구: 행당동 아기씨당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11, 한국무속학회, 2006, 165쪽.

않은 병과 관련한 직능을 맡는다. 이 당들은 제주 여성 신앙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이다. 이 당의 신을 일뤼할망, 으드레할망으로 부르며 자주 찾는다. 직능이 정확하게 분화되었던 신앙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중층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산육과 치병만 관장하지 않고, 생업 수호 및 마을 전반을 돌보는 본향의 성격을 띠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우선 일뤼의 전문적 직능으로 산육과 치병에서 점차 중층적으로 변화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처녀당신에서 산육과 치병, 생업 수호신은 여성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기원하는 사항들이다. 산육과 치병에 관련한 사항은 여성 당신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일뤼당신과 으드레당신의 직능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여성들이 주로 관심을 보이는 산육과 치병의 직능인 처녀당신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논의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일뤼당신은 필요에 따른 신앙으로의 변화를 보인다. 볼래낭 박씨할망당과 마라도 아기업게당은 제일이 칠일이며, 일뤼당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생업수호신과 본향의 성격까지 보태며 신앙이 확장되고 있다. 이는 생업 환경의 변화와 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여성 신앙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밝혔듯이 일뤼당신과 으드레당신은 신앙민의 필요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며, 환경적 사회적 요인에 따른 전파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논한다.

바다 일을 생업으로 하는 여성들이 자주 모이며 공동체성을 띠고, 이들만의 관습으로 신앙은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다. 제주의 해녀와 어부들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며 결집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업인 풍어와 가족의 안녕을 위해 신앙을 강화해 나간다. 당신앙의 중심인 여성들은 바다에서의 무탈함과 풍어, 가족의 안녕을 비는 것이 주요한 관심사다. 이처럼 복합적이고 중층적 성격의 처녀당은 볼래낭 박씨할망, 마라도 아기업게, 토산한집의 경우이다. 이 당들은 생업 수호뿐만 아니라, 일뤼당신적인 성격이 있으며, 신앙민들은 본향이라고 생각하며 다니고 있다.

해녀들인 경우가 많은 관계로 바다 일을 관장하는 생업 수호신적인 성격까지 덧붙여 보태게 된 것이다. 마라도 아기업게당 또한 이름에서 보이듯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뤼할망에서 자연 환경적인 영향에 따라 생업 수호신적인 성격까지 보태게 된 것이다. 처녀당신의 직능의 변화는 신앙의 변화와 견줄 수 있는데 이러한 당신의 양

상은 신앙민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생활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신앙으로 바뀌고 있다.

여성 당신에서 일렛당신은 산육과 피부병을 기능을 중심으로 관장한다. 직능은 같지만 서사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 여성 당신에서 일렛당신은 남성신과 결혼하고, 육식 금기를 파괴하는 죄를 지어서 따로 좌정하게 된다. 결국에는 여성신 혼자 좌정하게 되는 것으로 처녀당신의 좌정 형태와 같은 형태가 된다. 이처럼 홀로 좌정하는 형태는 산육·피부병과 관련한 직능 때문이다.

일렛당신의 직능을 차지한 처녀당신은 신흥리 볼래낭 박씨할망과 마라도 허씨 아기업게이다. 이 신의 주된 직능은 산육·피부병과 안질이다. 이러한 직능과 관련한 요인은 토산 웃당인 신중도한집의 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죽은부인이 마라도에 있는 큰부인을 설득하여 오는 과정에서 한 아이를 잃어버린다. 아이는 몸이 찢겨서 상처투성이가 되고, 하늘의 새가 내려와서 한쪽 눈을 찌어버린 모습으로 발견된다. 아이의 찌힌 한쪽 눈으로는 단골들에게 안질을 주어 얻어먹을 수 있게 하고, 몸이 찢겨진 것은 피부병을 주어서 얻어먹는다. 아이를 데려오고 일곱 애기를 키워서 장성하게 한다. 아이의 몸이 찢긴 것과 눈이 찌힌 것으로 일렛당신이 단골들에게 피부병과 안질이라는 병을 주고 고치는 직능임을 밝히고 있다. 이 상처투성이의 아이는 직능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요소이다.

토산 웃당은 일렛당이며, 제일이 칠일이다. 현재 신복만 심방이 당을 메고 있다.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 칠일날 간단히 비념을 한다. 아이들이 아플 때도 이 당에 와서 빌면 아이의 병이 좋아진다. 일렛날이라고 다 당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칠일날 중에 굶은날도 있어서 단골들의 생기 맞은 날을 미리 봐서 당에 간다.¹⁰⁷⁾ 단골들 개인이 가서 간단히 빌기도 하고, 신복만 심방이 함께 가서 간단한 의례를 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례 행위는 볼래낭 할망당이나 마라도 아기업게당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마라도에는 심방이 없어서 단골들이 개인적으로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복만 심방의 말에 의하면, 단골들이 피부병과 관련한 병이 나면 일렛 할마님한테 빌고, 의례시 사용했던 천을 불에 태워서 남은 재를 몸에 바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일렛할망 당에 걸었던 물색을 태워서 몸에 바르는 유감주술은 본풀이 속에서 종종 보이는 것으로 제주 생활속에서 행해졌던 관습이라고 볼 수

107) 2023년 2월 4일 토산 일렛당에서 진행한 신복만 심방과의 인터뷰.

있다.

토산한집의 직능은 광증, 액막이, 치병과 신병이다.¹⁰⁸⁾¹⁰⁹⁾ 의례시에도 액막이가 주를 이룬다. 또한 토산 알당에서 사신 신앙을 지우고 있다. 알당 비념시에 사신과 관련한 어떠한 화소도 찾을 수 없다. 다음은 2022년 토산 알당 당제일의 심방 말 명 중 일부이다.

강씨 즈순

식중독이여 돌림병덜이여 허게 말앙 식구들 가고오고 코로나덜토 허게 말앙 덜 고양덜 넘어가게 시겨 줍서. 강씨 즈순 직장으로 즈들일도 나게 맵서. 텡 기명 이별운수도 막아줍서. 신병께도 다 막읍서. 급헌 소식 올 일도 막아줍서. 학교 오고 가는 즈순들도 굿인 일 막읍서. 물에 낫나게 허지 맵서. 이 즈순덜 감기도 허게 맵서. 네 식구 올금년 고양덜 넘어가게 시겨줍센 헤여 메날 걱정 근심덜 허당 오랏습네다. 천왕손덜 막아줍서. 지왕술덜 막아줍서. 인왕술덜 막아줍서 동으로 오는 액 서으로 오는 액 남으로 북으로 오는 액 년 다 막아가명 주잔덜랑 마꿨데 내보내쿠다. 먹저쓰저 허던 균졸덜 지사귀 명 정성드리난 받아사근에 오곡 가곡 허명 새불턱에 즈순덜이우다. 마강 농 사덜토 허고, 애기덜 직장도 허고, 공부들 허곡 영 허명 들곡나곡 허는디 몸 으로 신병기나 엇어지곡 처서에 액덜 막곡 허쿠다.급허게 가라 오라 구년실 질 일덜 막아 줍센 허여근 본향에서 즈순덜 도와주어사 험네다. 급헌 소식 올 일덜이영 막아줍서. 고맙수다.¹¹⁰⁾

토산 알당 의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골들의 개인 점을 보고, 액을 막아주는 형 식으로 이루어졌다. 집안 모두의 산을 받고 안좋은 사람들은 액막이를 한다. 액막 이 비념 속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 무탈함을 비는 것이 중요 한 내용이다. 토산 알당에 다니는 신앙민들은 주로 해녀들이며 그들은 당에 가서 비념 형식으로 의례를 행한다. 다음은 비념 형식 중 액막이 내용이다.

“설우시던 선주님아, 아기씨 살리커건 어서 대통기 시왕당클 이알로 쉼를

108)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개정판), 2016, 488쪽, 강만원 구송. “어릿두릿 안광대 가 되어가난~ 머리에 발갈쇠로, 머리에 앓진 대말치로 대액맥일 막읍서. 액맥이 막는 법이우다.”

109) 赤松智城·秋葉 隆, 심우성 역, 『朝鮮巫俗의 研究(上)』, 동문선, 1991, 229쪽. “홀연히득병하야, 전신불수가되거늘~ 혼일을 매즈면서, 옷봉정성도 안이하야 무심하니 고약허기 한량업서, 신병을 내가 주엇노라.”

110) 2022년 4월 8일(음3.8) 토산 알당 당제일. (영상 제공: 류진옥)

내여놓아 천오도액을 막아사 아기씨 살리리다.” “어서 걸랑 그리하라.” 쉼
잡아 전물제 독 잡아 전물제여. 그제사 아기씨 살아나는구나.

나를 울어 곳을 흐거든 나 녹는 방안에 강 보라. 금동괘상 이서지니, 우리
아바님 쳇 서울 가고 올 때 물맹지도 동에전 강맹지도 동에전, 마은대자 상
청드리 서른대자 중청드리 수물대자 하청드리 고비첩첩 누올려시니 마은
뎍 상방울 서른뎍 중방울 수물뎍 하방울을 무어놓고 나의 간장을 풀림
시민 나가 살리라.¹¹¹⁾

토산한집은 빙의를 통해 제향하는 방식에 대해 알려준다. 시왕맛이를 하고, 소
와 닭의 희생을 통하여 액막이를 하라고 한다. 소를 잡기가 쉽지 않은 시절에 소
한 마리를 통으로 올려 액막이를 하라는 것은 그만큼 큰 정성을 들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 정도의 정성을 들여야만 흉험의 액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큰
곳을 하던 도중에 강씨 아가씨는 한씨의 입을 빌어 연갑을 열어 자신이 갖고 있던
옷감으로 곳을 해달라고 한다. 연갑을 열어보니 옷감에 ‘청만주에미, 흑만주에미’가
말라 죽어 있어서 뱀의 형상을 그려서 곳을 하였다. 단골을 맺고 곳을 하여 억울
한 간장을 풀면 토산한집이 살겠다고 하는데 이는 토산 당제 중 방울뿔에 대한 제
차를 말하는 것이다. 맺혔던 한을 푸는 형식을 빌어서 토산한집의 맺혔던 간장을
풀고 있다. 즉 푸다시 곳을 한다.

토산한집의 직능은 신병, 즉 머리가 아프거나, 마음의 병으로 아픈 것까지 포함
하는 치병과 나쁜 액을 물리치는 액막이의 기능까지 있다. 토산한집이 오씨아미를
죽게 만든 것 자체가 액막이의 직능에 따른 흉험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토산한집
과 오씨아미가 신병을 일으키게 하며 치병의 직능을 내보인다.

볼래낭당과 마라도 아기업게는 여러 직능이 섞여 있으면서 중층적인 신앙을 보
이는데 이러한 점은 점차 여성신에 대한 신앙이 강화되어 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렛당신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일렛당신의 경우에는 오히려 산신을 대신하
여 주신격으로 부상하는 사례도 흔하게 볼 수 있다.¹¹²⁾

이처럼 여성신앙이 생업수호, 산육과 치병이 보태지면서 여성 신앙이 강화된다.
여성들은 생업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성을 띤다.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은 더욱 결집

111)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2016, 485쪽. 안사인 구송.

112) 강정식, 「한국 제주도의 해양신앙」, 『도서문화』,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2006, 131쪽.

되고, 관습화하면서 여성 신앙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바다 일을 생업으로 하는 생업 수호신과 결혼한 여성의 주 관심사인 육아·치병과 관련한 직능으로의 변화를 예로 들 수 있다.

2) 시험 및 송사의 직능

처녀당신에서 시험·송사 직능은 남성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기원하는 사항들이다. 이러한 직능과 관련한 사항은 칠성본풀이에서 분화된 부군칠성의 직능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직능은 남성들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 직능에 따른 처녀당신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한다.

첫째, 시험 및 송사의 직능과 관련한 신앙은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수산 진안할망당과 사계리 골르락당은 개인적으로 제일을 택일하여 찾아가 비념하는 곳이다. 이러한 직능과 관련하여 여성 당신화와의 비교를 통해 변화에 따른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칠성본풀이의 관청할망 관념이 분파된 것이다. 수산 진안할망당과 사계리 골르락당은 서로 유사한 관련이 있고, 이 공간은 나라에서 필요로 하여 생긴 곳이다. 수산 진안할망당이 있는 공간은 왜구의 침입을 대비하여 성을 쌓았고, 사계리 골르락당이 있는 공간은 대정 향교로 나라의 교육기관이다. 여성 당신화에서 시험 및 송사의 직능도 공무와 관련한 장소에서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칠성본풀이에서 관청할망의 분파 양상과 견주어 설명할 수 있다. 위에서 밝혔듯이 시험 및 송사와 관련된 당은 사회 환경적 요인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며, 칠성본풀이의 관청할망과 관련하여 전파되고 있다.

당신앙은 여성들 중심의 신앙이지만 사회적 환경에 따라 신앙의 양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수산 진안할망당과 사계리 골르락당의 직능처럼 시험, 승진과 관련한 당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처럼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라 신앙이 아예 바뀌는 경우의 당이 있다.

여성들이 관심이 있는 기원은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변한다면 남성들이 관심 있는 기원과 관련한 당은 직능이 바뀌어버린다. 이는 생활 환경이 변화함으로 현재 필요한 신앙으로 바뀐 것이다.

남원읍 하례리의 어캐할망당 또한 송사와 시험에 관한 직능을 지닌 할망당이다. 이 당은 직사동네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과 같은 시기에 점마소 자리 장릉이라는 곳에 당을 모시기 시작했고, 이 당의 당신은 어캐할망 또는 ‘장통할망’이라고도 부른다.¹¹³⁾ 점마에 앞서 이 당에서 제를 지냈다고 한다. 이 당의 기능은 원래 마소를 잘 기르게 해 달라고 빌었던 당이지만 지금은 집안 대소사에 관한 소원을 비는 당이다. 이 당은 신력이 아주 쎄어서 송사가 있을 때 정성을 들이면 이긴다고 한다.¹¹⁴⁾ 이 당신의 계보는 산신계 관청할망이다.¹¹⁵⁾

이 당은 수렵 목축과 관련된 신으로 우마를 잘 기르게 해달라고 빌었던 당이다. 이러한 기원은 개인적인 생업이 아니라 관청과 관련된 것으로, 근래에 와서 말목축과 관련된 생업이 축소되면서 관청당의 직능으로 변모된 경우이다. 요즘은 각자 집안에서 송사와 입시 시험이 있을 때 찾아가서 빌면 효험을 보는 당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유사한 변화를 겪은 당이 서귀포시 보목동의 구두미 관청할망당이다. 원래 명칭은 구두미갯당으로 주로 해녀들이 모시는 당이다. 그러나 지금은 관청과 연관된 일이 생겼을 때나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비는 당이 되었으며, 입학이나 취업 합격을 기원하는 당으로 변화되었다.¹¹⁶⁾ 관청할망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진급, 시험, 송사와 관련된 신이다. 이러한 당의 변화는 생활 환경의 변화와 실용주의적인 양상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모습으로 변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송사, 입시 및 승진 시험에 대한 직능을 갖는 당신이 있다. 표선면 성읍리의 안할망당, 대정읍 보성리의 가원당이다. 표선면 성읍리의 안할망은 관청할망이라고 하고, 직능은 입학, 취직, 성급, 경기 등의 성취이다. 다음은 성읍리 안할망당의 본풀이 내용이다.¹¹⁷⁾

① 제주시 칠성골에 딸 일곱을 가진 집이 있었는데 첫째 딸을 칠성골로, 둘째 딸은 정의현 관리의 부인으로, 셋째 딸은 대정현으로, 넷째·다섯째 딸

113) ‘어캐’란 직사와 돈드르 사이 일대에 약 400m 정도 병풍처럼 늘어서 있는 절벽을 말한다.
 1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가 떠낸)우리고장 이야기: 서귀포시 IV 남원읍』, 2014, 440-441쪽 참고.
 115)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8. 산신계 관청할망이라는 것은 한라산신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축을 관장하는 관청적 직능에서 차용했을 것이다.
 116) 조성윤·이상철·하순애,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131쪽.
 117) 남제주군 제주대학교박물관,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1996, 356쪽.

은 안고팡지기의 아내로, 여섯·일곱째 딸은 용수당과 창방지기의 아내로 각각 시집을 갔다. 정의현에 시집 온 딸은 인물이 뛰어나 비범하고 영리하니 관청에 드나들게 되었고, 관청에 다니는 사람이 모두 그녀를 따랐다. 그녀는 앉아서 천리를 보고서서는 만리를 보는 능력을 지녔다. 그후 그녀가 죽자 관청에 다니는 사람들이 극진히 모신 것이 현재 안할마님이 되었다.

② 육지에서 상자가 떠내려 왔는데 그 속에는 일곱 사람이 있었다. 일곱 사람은 정의현에 정착하여 큰딸은 안할망이 되고, 둘째 딸은 창방할망이 되고, 셋째 딸은 개당할망이 되고, 넷째 딸은 형방할망이 되고, 다섯째 딸은 쇠당할망이 되고, 여섯째는 관전발, 막내딸은 문유당이 되었다. 큰딸인 안할망에게는 토지지관, 육방하인, 삼만관속의 세 부류의 하인이 있어 지금도 양푼에 수저를 세 개 꽂아 메를 올린다.

위의 본풀이는 두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딸들의 좌정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이다. 첫 번째 내용은 제주시 칠성골에 사는 딸들이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시집가는 내용이 나온다. 그 중에서도 둘째 딸이 안할망으로 좌정할 수 있었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둘째 딸은 인물이 좋고, 비범하고 영리하고 신통력까지 겸비한 인물이다. 또한 할망은 통솔력도 지니고 있어서 관청 사람들이 따르고, 대접하며 모시는 것이다. 관청에 시집간 둘째 딸이 안할망으로 좌정하게 되는 것도 관청할망과 안할망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내용은 육지에서 상자가 떠내려오고 그 안에 일곱 딸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칠성본풀이와 유사하다. 칠성본풀이의 일곱딸은 함덕에 정착하지만, 안할망의 일곱딸은 정의현에 정착한다. 각각의 좌정처는 다르지만 일곱딸이 모두 자기가 좌정할 곳을 찾아가는 것은 동일하다. 칠성본풀이에서 여섯째 딸이 관청할망을 차지하지만, 여기서는 첫째 딸이 안할망을 차지한다. 관청할망을 차지하는 것이 첫째인 경우, 둘째인 경우, 여섯째인 경우 등 다양하다.

표선면 성읍의 안할망이나 대정읍 보성리의 관청할망은 정의현과 대정현의 읍치(邑治)가 있었던 곳에 위치한 당이다. 본풀이의 서사가 충분하지 않아 칠성본풀이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기는 하나, 현용준은 칠성본풀이와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다.¹¹⁸⁾

118) 현용준의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서 안할망본풀이에 대하여 칠성본풀이 참조로 안내하고 있

조선시대 관청이 있었던 곳에 관청할망을 모신 당이 존재한다. 처녀당신에서 수산 진안할망은 관이 쌓은 진성으로 나라의 안위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보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계리 골르락당은 향교 뒤편에 위치하여 있고, 향교는 나라에서 여는 교육 기관이다. 여성 당신에서 성읍 안할망과 보성 관청할망은 모두 성읍에 위치한 관청이다. 이곳뿐만이 아니라 대정현 소재지에 있는 산짓당 본풀이에는 관청할망과 옥할망, 부군할망과 관련한 신명들을 거론하고 있으며, 이들은 관청과 관련된 직능이 있는 여신들이다. 또한 이 본풀이는 성읍의 옥할망과 유사하다. 지금 보성초등학교 운동장 서남쪽에 옥터가 있었다. 서문당은 대정성 안 서문 근처에 있던 당으로 현에서 제를 지내었다.¹¹⁹⁾

2. 조상신에서 당신으로의 확장

1) 조상신과 당신의 성격

현씨일월, 토산한집, 호근이무루 으드렛당은 조상신의 성격을 지니면서 당신의 성격도 공유한다. 현씨일월은 입무 실패와 관련한 서사로 심방 관련 조상신본풀이의 서사와 유사하다. 심방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여성이 입무의 미완성으로 좌절하고 실패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이다. 조상신본풀이에서 입무 실패에 따른 여성들은 집안 반대로 죽음을 겪고 그 집안의 조상으로 좌정한다. 현씨일월 또한 입무 실패를 겪고 죽은 후에 현씨 집안 조상으로 좌정한다.

호근이무루 으드렛당은 오좌수 집안의 조상신이면서 마을에 당을 마련하여 의례를 지내기에 당신으로 좌정하고 있기도 하다. 감산리 마을은 오씨 방계의 가구들이 살면서 모시는 신이다. 이 당은 오씨 집안에서 모시기 때문에 조상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

119)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이남부 구술, <대정읍 산짓당 본풀이>. “산짓당은 삼문안에 염색할망, 부군할망, 구실할망, 옥할망 올라스민 스령방도 부군할망, 관청할망도 부군할망, 칠성할망도 부군할망, 상청할망도 부군할망, 이변청할망도 부군할망, 일천석 삼천석 받아오던 창(倉)할망도 부군할망, 올라스민 객세(객사)할망 부군할망, 누르스민 궁깃(구멍)할망 부군할망, 신숫할망 부군할망, 육방하인 삼만관속 일기성에 일관리에 주어 고통 나팔 받아오던 신전님 가는 연봉 오는 연봉 신전 받아오던 신도본향 한집님. 제일 주손에 생기 맞은 날.”

위의 당신외에 토산한집 또한 조상신의 흔적을 볼 수 있다. 토산한집 본풀이 내용 중 오씨 선주가 가지고 왔던 ‘강맹지, 물맹지’는 조상신 신앙을 볼 수 있는 화소이다. 조상신본풀이에서 여성들은 ‘강맹지, 물맹지’를 따라 오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그 집안의 조상으로 모셔진다. 원혼이 깃든 명주옷을 입은 딸이 광증을 일으키거나, 명주에 뱀이 사려 있거나 하는 모양새를 취한다. 이처럼 이 명주는 원혼이 깃든 물건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뱀의 형상처럼 여기기도 한다. 명주는 딸들이 시집갈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뱀과 관련한 조상신은 딸들에게로 전해지는 습속과도 연관된다.

가) <광청아기본풀이>

송동지 영감은 이물 귀양 장판문을 열안보난 아기씨는 없고 오합상자만 이십디다. 송동지 영감이 이게 신멧뽕이 나왔구나. 김녕 한 개포에 베대봉을 허연, 딸 삼형제가 느려간다. “아바님아, 아바님아, 멀밧기가 나암수가. 수질기가 나암수가?” 아이고 설룬 애기덜아, 멀밧기도 아니허고 수질기도 아니남저. 나 육지 간 족은어멍 정허연 살단, 니네덜 나시 이거 옷 허연 보내여시메 하나씩 입어보랜허난, 큰똥아기 입어가난 느단독지 청주녕이 뉘연, 셋똥아기 입어가난 웬독지 흑주녕이 뉘고, 족은똥아기 입어가난 흘연광짱 불연실연실장을 불러준다. 송동지 영감은 열 일을 다 하여도 병은 아니 조난, 갯마리 이대연 살 때난 간 문병은 지난 “아기씨 7튼 조상이우다. 녁매무색에 딱라운 조상, 황매무색에 딱라운 조상이우덴.” 허난.¹²⁰⁾

나) <토산 알당>

“나를 위하고 기도 원정허염건 나 놓은 귀상 금동괘 문을 열고 보라. 우리 아바님 헛 서울 가실 때 나 낮이 진상 상납허여 온 것이 있다.” 강맹지나 물맹지 새미녕 고리비단 능나귀를 내여놓아 마흔대자 상방울로 노념허자. 서른대자 중방울로 노념허자. 간장 본인 풀어놓자 애기씨가 푹푹릿 살아난다.¹²¹⁾

다) <토산 알당>

“아기씨상전 살리저 굿입네다.” “나를 살리저 허는 굿이민 쾌상 연갑 열고 보민 아바님 헛 서울 간 때 물맹지도 동에전 강맹지도 동에전 이시니, 마음

120) 김현선·현용준·강정식,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보고서, 2006, 308쪽. 이종춘 구송.

121)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235쪽, 고봉선 구송.

대자 끈어놓아 이 내 간장 풀려줍서. 서른대자 끈어놓아 이 내 간장 풀려줍서. 수물대자 끊어놓아 이 내 간장 풀려줍서. 무친 간장 풀려줍서.” 쾌상 연갑 올고 보니 물멍지도 도에전 강맹지도 도에전 이서 내풀이니 청만주에미 흑만주에미 붓붓 몰라 죽어시니, “이는 어찌허여 좋으리요.” “대백지 훈 장 내여놓서.” 대백지 훈 장 내여 노니, 그 얼굴에 그 서늱에 메치기상 그려놓고 열두석에 노념만판 흐시웁고 지어진봉 허여가니, “이만 허여 신뵙 아니 좋겟읍네다.”¹²²⁾

위의 자료 중 가)는 조상신본풀이 중 광청아기본풀이의 내용이고, 나)와 다)는 당신본풀이 중 토산 알당본풀이의 내용이다. 바다 건너 제주로 들어오는 ‘오합상자’, ‘금동궤’, ‘쾌상 연갑’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명주 옷감을 입어서 광증이 생기기도 하고, 옷감 안에 죽어가는 뱀이 사려 있기도 한다. 바다를 통해 상자가 떠내려오는 화소는 일반신본풀이의 칠성본풀이를 포함하여 제주 본풀이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서사이다. 이 상자를 제일 먼저 발견하고 모시는 인물이 사신을 조상으로 모시게 되고, 이 신앙이 당신앙이 되면 상단골이 되는 구조이다.

‘강맹지, 물멍지’는 의례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명주는 광청아기의 존재성을 드러내는 상징물로서 물색으로 만든 선양기를 추끼며 놀리고, 곳이 끝나면 본주는 그 선양기에 지를 싸서 바다에 바친다.¹²³⁾ 토산 알당에서는 <방울푼> 제차에서 병에 걸린 환자를 앓히고 긴 무명을 씌워 방울친으로 놀러대고, 방울을 푼 긴 무명을 바닥에 뱀이 파리를 튼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 무명을 광으로 들어다 모신다.¹²⁴⁾

토산한집은 ‘강맹지, 물멍지’ 외에 뱀신앙으로서 조상신의 모습을 보인다. 칠성본풀이에서 칠성신이 제주도로 입도할 때 상자안에 뱀의 형상으로 보여지고, 조상으로 여기는 단골과 연을 맺는다.

가) 법성이가 무쇠설곽을 개말디레 7저단 올안 보았수다. 그영허난 그 쏘 곱엔 황구렝이 훈쌌 적구렝이 훈쌌이 소랑소랑 스려져두서 눈은 햇뜻 세는 맬록! 금착흐였수다. 법성인 “과연 잘못흐였수다. 살려줍서. 나에 태운 조상님이건 존 딜로 강 점제흐시민 제를 지내겟수다.” 허난 그게, 법성이 조름에

122)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610쪽, 한원평 구송.

123) 류진옥, 『제주도 조상신 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79쪽.

124)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491쪽

조찬 오란, 이젠 당오름 뱅풍기정으로 현연 쟁길처 존 딜로 오란 좌정헌난 당설립이 되었수다.¹²⁵⁾

나) “선주님아, 선주님아, 뱃장 알을 보옵소서. 우리 조상이 이신 듯 흡네다.” 그말 들은 안씨선조, 아닐커 가고 보니, 현 아구린 천아에 부떠 현 아구린 지아에 부떠, 천구아구 대맹이라 웨오느다 빙빙 사려 물집을 막아십데다. “우리 조상이 분명하다.”~“선주덜아, 나는 나주 기민창 동서남북 창고안을 직하던 무곡섬의 초상인디, 기민창고가 비여가니, 나 갈 길이 엇어져 무곡을 뜰라 오랏구나. 느네 선주덜 사는 울성장안 돌아봐도 내 몸 곰출 디가 엇어져, 나 갈 딜로 갈 테이니, 안씨선조 상단굴 무어 송씨선주 하단굴 무어 박씨선주 제민단굴 무어, 삼뽕일 기일제사 일년 한번 철갈이로 나에게 상 바찌민 좋은 재산 일루와 주곡 천하거부 시겨주마. 나는 조천관 새콧알로 가는 선도 초지로다. 오는 선도 차지로다. 삼천좁수 일만어부 내 초지가 뒤편이니, 조손 초아 상을 받고 좋은 재산 이라 주마.”¹²⁶⁾

토산 알당은 나주 금성산의 뱀신이 제주도로 입도한 것으로 조상신격인 사신 신앙과도 연관된다. 제주도에 뱀신앙은 전도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위의 가)는 한경면 고산리의 <당목잇당본풀이이고, 나)는 조천리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의 내용이다. 가)는 서쪽 지역으로 분파된 뱀신앙이고, 나)는 동쪽으로 분파된 뱀신앙이다. 이처럼 뱀신앙의 분파는 외부에서 입도한 뱀신앙과 토착적인 뱀신앙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전승하며 강한 영향력을 끼쳤다. 나주기민창조상은 안씨 선주의 조상으로 모셔지다가 조천리 새콧알로 모셔지며 조천리 새콧당과도 연관성이 있는 본풀이다.

위 본풀이들도 조상신에서 생업수호신으로의 확장을 보인다. 이는 생활환경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산성을 기본으로 하는 사신을 모셔 풍어를 기원하며 신앙이 활발하게 확장되는 양상이다.

2) 분파 양상

현씨일월과 호근이마루 으드렛당 두 본풀이의 직능은 치병이라는 성격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현씨일월은 부(富)라는 부차적인 기능이 보태는 형태를 보인다. 두

125) 진성기,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553쪽, 김병효 구송.

126)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680쪽, 안사인 구송.

본풀이의 성격에 따른 분화양상이 다르다. 호근이무루 으드렛당은 치병신의 직능과 안덕면 사계리의 오씨 집안에서만 모시는 조상신격으로 머물고 있다. 현씨일월은 치병의 직능을 갖는데 현씨 집안에서 신천리 마을로, 신천리 마을에서 이웃 마을로 확장하고 있다.

치병의 직능을 가진 현씨일월이나 토산 으드레한집은 흉험을 줄 때 가슴에 불이 붙는 고통, 머리를 아프게 하는 두통을 준다. 가슴에 불이 붙는 고통은 화병의 일종으로 정신병에 속한다. 이씨할망은 자신이 겪었던 가슴에 불이 붙는 고통을 오씨 집안에게 돌려준다. 화재로 인한 흉험으로 오좌수 집안의 조상으로 대접을 받는데, 안덕면 감산리까지 신앙의 분파를 보인다.

현씨일월은 제향을 받고 강씨를 낳게 해준다. 추가로 좋은 나무로 배를 만들고 각서추물을 올려서 바다에 띄우기를 원한다. 현씨일월의 오라비들까지 위하니 완전히 병이 낫고 현씨와 강씨 부부는 부자가 된다.¹²⁷⁾ 이 부부가 부자가 되고 잘사니 이웃들이 모시기를 희망하여 마을 당신으로, 이웃 마을로 확산된다.

고광민은 현씨일월이 마을에 본향 신으로 좌정하면서 시집가는 여자 뒤를 따라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까지 분파된 당신이라고 하고 있다. 남원읍 하예2리에서만 ‘가짓당’으로 모셔지는 실정이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집안에서 ‘안칠성’ 내지는 ‘밭칠성’으로 신을 모신다고 말한다.¹²⁸⁾ 여기서 안칠성과 밭칠성으로 모신다는 것은 일월 조상으로 위한다는 의미이다. 제주의 ‘안칠성/밭칠성’ 신앙이라기보다는, 제장(祭場)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현용준의 설명에 의하면 조상신은 상설적인 제장이 없이 필요한 때에 집에서 굿을 하여 청해 위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울타리 안의 뒷꼰 또는 집 안의 고팡(庫房 : 곡물을 보관하는 방)에 상설적으로 모시는 집안도 있는데, 전승을 종합해 보면 후자가 본래적인 것이라 생각된다고 하였다.¹²⁹⁾

현씨일월은 스스로 죽음을 택했기 때문에 단골과 죽음의 관계를 설명하기가 어

127) 제주대학교 국어교육연구회, 『백록어문』, 1988, 354쪽. 고산옥 심방 구술. “물막은뱃 선씨조상은 그 새각시, 새서방도 잘 살았 쓸 훈되 풀아건 뱃 하나 사곡 헛곡지게 풀아거네 뱃 하나 사곡, 쇠 하나 사곡, 물 하나 사곡 영 헤가난에 천하거무가, 대부재가 되어가난 방상(친척)마다 우리도 위하져 모두 송이송이 아들 간디 뿔 간디 밭이 벌곡, 줄이 벌곡, 아니 간 디가 없수다.”

128) 고광민,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14쪽.

129) 강소전, 「심방 관련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정」, 『탐라문화』 3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60쪽.

럽다. 현씨일월은 현씨를 상단골로 하기로 정한다. 현씨일월이 단골을 정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님 쪽의 현씨 조상으로 갈지, 어버님 쪽의 고씨 조상으로 갈지 고민한다.¹³⁰⁾ 결국엔 현씨를 상단골로, 고씨를 중단골로 정한다. 자신의 부계와 모계를 단골로 정하고, 천하 거부로 잘살게 한다.

현씨일월은 여성에게 흥함을 주고, 부모 양쪽 집안으로 신앙이 전파된다. 고산옥 본에서는 현씨일월이 흥함을 주는 인물로 현씨집 아들과 결혼하는 강씨 새각시다. 강씨 새각시가 급병에 걸리고, 굶을 하여 낫는다. 강씨 새각씨는 현씨 집안의 며느리다. 이는 현씨 집안사람이라고 인정되며 현씨 집안으로 신앙이 퍼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

신명숙 본에서는 현씨일월이 현씨 상단골의 한 애기에게 빙의한다. 이 과정에서 현씨일월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김씨 선생에게 전한다. 김씨 선생은 현씨일월 당을 처음 마련한 심방이다. 김씨 심방이 현씨일월 당신과, 현씨일월의 부모 무덤까지 모셨다.¹³¹⁾

정두삼 본에 의하면, 현씨일월이 죽으니 마을에서 묘를 만들어준다. 고산옥과 신명숙 본과는 다른 양상이다. 고산옥과 신명숙 본에서는 김씨 선생이 당을 설립했다고 한다. 정두삼 본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현씨일월의 묘를 만든다. 마을 공동체에서 묘를 만들었다는 건 관리하고 제향하는 임무까지 맡았다는 것이고, 마을 공동체에서 본향으로 현씨일월을 모신다는 의미이다. 고산옥과 신명숙 본에서 김씨 선생이 현씨일월과 당신의 부모까지 묘 셋을 돌보고, 이 당을 설립하는 내용이 구체적이다. 따라서 김씨 선생이 현씨일월당의 당면 심방이고, 마을 사람들이 현씨일월을 본향으로 모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씨의 일월 조상숭배를 넘어서면서 본향의 신앙으로 마을 공동체의 신앙 대상으로 그 면모가 바뀌어 간다. 현씨일월은 이 마을에 현씨가 많고, 당시에 현씨가 다른 성씨보다 우위에 있었기에 마을에서 현씨 집안의 조상이 당신으로 전파될 수 있었다.¹³²⁾

130) 제주대학교 국어교육연구회, 『백록어문』, 1988, 359쪽. “삼문전은 저승 삼문전으로 높은 동산 낮은 동산 앞양 울어간다 울어온다. 어딜 가코, 아버님이 우리가 선씨난 선씨 조상으로, 상단골로 불라건, 상단골로 들어가카, 고씨 어머님은 고씨난, 고씨 조상으로 상단골로 발을 번으카.~선씨 조상은 상단골로 들어상 조상으로 상을 받으켄 험수다. ~어멍 펜이랑 중단골로 들어사건 상을 받곡 영혀여건 신호돈 고칩으로 발을 번영 옛날엔 신호 앞동산 고칩이엔 흐민 범도 새도 못지르멍 부제가 되영 천하거부”

131) 고광민,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87쪽. “김씨선생 불러다가 베 다끄라 솔 싱그라 신남 싱그라 영담 돌라라 제전 돌령 서이세끼 무덤을 흐여된.”

토산 으드레한집은 제주 동남부 중심으로 신앙이 분파된다. 토산한집은 나주에서 제주로 와서 좌정한 사신으로 제주 전역에 으드렛당으로 전파된다. 토산 으드렛당은 단골의 딸에서 딸로 따라오고, 이 신을 모시다가 중단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전해진다.¹³³⁾ 시집간 딸이 이 신을 모시지 않으면 남편이 병을 앓기 때문에 이 신을 모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으로 으드렛당의 전파가 활발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³⁴⁾ 이러한 사정은 설화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

다음 자료는 토산의 뱀 신앙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설화의 내용으로 토산한집의 분파 양상을 알 수 있다. 이 설화에 따르면 제주 서쪽에는 뱀신앙이 올 수 없었는데, 이는 토산에서 시집 온 며느리의 신앙을 감산리에서 차단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토산한집의 경계를 말해주는 설화 자료이다.

저 창천 넘어강은 토산의 칠성 위하는 디가 읊다 하여. 글로 경계로 그런 말이 있어.

옛날 감산이 사름이 토산 잇지 아니하여. 그디 간 새각썰 구하여는디 토산 선 저 칠성뱀만 위하는 디거든. 직주서는 제 본덕이주게. 겐디 그디 간 새각썰 구하여는디 저 감산이 새각씨가 오지 안하여. 새각씨가 왔는디 그 칠성은 새각씨 조름만 조창댕기주게. 그 감산이 새각시칩의서 아판에 유울엇던 모냥이라. 계난 유우니깐 검쟁이덜 앞의 간 물으니깐, 그런 때문이다 굿을 하라고.

[조사자 : 토산때문이다예?]

으, 굿을 흐느디 그 아방이 워난 고집이 썩주게. 경하여 심방이 굿을 하는디 심방신디 그 구신(鬼神)을 나오게끔 굿을 해라 했어.

"구신이 나오도록 굿을 하라."

하니까, 그대로 심방은 막 굿할거 아니라. 경하니까니 진짜 베염이 나왔어. 나오니까 이저 특기 그 단지 계난 이것에 들어오게끔 굿을 하라고. 이젠 들어오게끔 굿을 흐난 단지에 베염이 들어올 거 아니라. 계난 이제랑 굿을 설르라고(그만두라고). 이젠 귀신 잡아 불어시니까니 굿 할 필요없다 하였주.

계난 진짜 이젠 토산서가 또 아팠어.

[조사자 : 거꾸로예?]

으, 거꾸로. 경하여 토산서 굿하니까,

132) 진성기, 『남국의 무속』, 1987, 140쪽.

133)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106쪽.

134) 현용준, 『제주도 마을 신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37쪽.

"아, 이만저만한 즈손이 그디 가가지고 증가졌다, 가두아졌다."고.

경해서 사돈네 집의서 완 그 묻은 걸 내놔센 현연 그걸 훗아가벗다(찾아가 버렸다)현여. 그걸 훗아가부난 감산이 저쪽으론 생전 칠성이 읊다 이거 주기.

칠성이 이신디가 남원(南元), 중문(中文) 지구 가지배뀐 읊주.

[조사자 : 계난 뱀을 잡아 단지에 낚 물어부난 빙이 낮아신가예?]

거 구신 잡아분디 뭐 빙이 있어? 계난 가지가 글로 저렌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주. 무수완(무서워선).

[조사자 : 경계가 감산지경예?]

감산, 창전내에 그디 가민 심어 묻영 가두좌부카부덴 그런 말은 있어. 옛 날에.¹³⁵⁾

위의 자료는 중문면 강정리 김정호의 자료이다. 저 창천 넘어서는 토산의 칠성을 위하는 데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안덕면 감산리 사람이 토산에서 새각시를 구해온다. 칠성이 새각시를 따라서 다니는데 새각시가 감산리에 시집을 가니 감산리 집에서 아픈 사람이 생겼다. 점을 쳐보니, 토산 뱀 때문이니 곳을 하라고 한다. 심방이 곳을 하니 뱀이 나오고, 시아버지가 그 뱀을 단지에 가둔다. 그 후에 토산의 새각시 집에서가 아픈 사람이 생긴다. 토산에서 곳을 하니 조상을 가뒀기 때문에 아픈 거라고 한다. 토산 새각시 집에서는 감산리 사돈네 집으로 와서 향아리에 묻은 조상을 찾아간다. 그런 이유로 해서 감산리에서 서쪽으로는 생전 칠성이 없다고 한다. 칠성이 있는 곳은 남원과 중문 가지밖에 없다.

서사 단락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① 토산 여자와 감산 남자의 결연
- ② 감산리의 뱀신앙 출현과 차단
- ③ 토산리로 뱀신앙 복귀

①은 감산리 사람, 즉 신랑의 아버지에 의해서 토산 여자와 감산 남자의 결혼이 이루어진다. 감산리 사람은 토산리의 뱀 신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토산리의 뱀 신앙이 신부를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결혼을 시킨다.

135) 현용준·김영돈·현길언, <토산뱀>,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쪽.

②는 결혼한 후에 감산리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긴다. 이로 인해 굶을 하게 되고, 뱀이 나오자 땅에 묻어버린다. 이것은 뱀신앙의 출현과 차단을 의미한다. 감산리 남자의 아버지를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토산 뱀신앙에 관한 것도 알고 있으면서 눈도 깜짝하지 않고 토산에서 며느리를 본다. 또한 뱀이 나오니 향아리에 가뒹버리기까지 한다. 이처럼 직성이 세고, 강력한 힘으로 토산 뱀신앙을 차단하고 있다.

여자들은 시집을 가서도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모시던 당신앙을 모시기도 한다. 하지만 감산리로 시집 간 며느리는 시아버지에 의해 신앙을 차단당하고, 뱀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시댁에 의해 모태 신앙을 박탈당한다. 구술자는 칠성이 남원과 중문 지경까지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뱀신앙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뱀신앙을 저급한 신앙으로 여기며 뱀신앙의 차단으로 우월감을 내세우고 있다.

감산리와 토산 마을에서 뱀신앙으로 탈이 생긴다. 감산리는 뱀신앙이 생겼기 때문에 아픈 경우, 토산에서는 뱀신앙이 가두어졌으니 아픈 사람이 생긴다. 이는 뱀신앙을 잘 모시지 않으면 집안에 탈이 난다는 속설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감산은 뱀신앙을 완전히 차단함으로 탈을 막고 있고, 토산은 뱀신앙을 모셔와서 탈을 막고 있다.

③은 토산리에 아픈 사람이 생기고, 조상을 잘 대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것을 알고 토산리로 다시 뱀조상을 모셔온다. 이처럼 토산리로 뱀신앙을 모셔오면서 정의 토산이 뱀신앙의 원조격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이 설화는 뱀신앙이 토산에서 감산리로 전승되지 못한 일화를 얘기하고 있다. 이 설화의 제보자는 으드렛당 전승 지역에 대해 감산리부터 서쪽으로 칠성이 없다며 땅에 묻어서 가두어 버릴까봐 칠성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

이 설화에서 며느리는 뱀신앙 전파의 중요한 인물이고, 시아버지에 의해 신앙이 차단된다. 뱀신앙이 여자를 따라간다는 속설이 퍼져 있기에 며느리는 중요한 전파자로 나오고, 시아버지라는 강한 남성이 신앙을 저지하고 있다. 실제 으드렛당 신앙의 사정 또한 서귀포시 중문까지는 토산 알당과 관련된 으드렛당의 모습이 보이지만 안덕면, 대정읍, 한경면, 한림읍, 애월읍에는 토산 으드렛당 신앙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박생옥 본에도 보인다. <토산 알당본풀이> 중 “강씨 한씨 오씨 한집을 우망하고 마부름 붙여 토산당 구신이엿 흥여. 토산으로 동데레 사둔도

아녀고, 대정 일경은 쇠둔, 큰내, 동데레 사둔도 아니고, 셋부름 불민 토산당이 온
대명 ㅎ곡.”이라는 것은 토산 귀신이라고 해서 동쪽을 사둔을 맺지 않고, 대정읍쪽에
는도 사둔을 맺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즉 뱀신앙이 여성을 따라간다는 관념 아래
사둔으로 엮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신의 차단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설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뱀신앙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강한 남성을 내세
우면서까지 차단하려고 애쓴다. 이러한 이유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토산 으드렛당
이 그만큼 강한 전파력을 지니고 있고, 으드렛당의 영험함과 이 당에 대한 두려움
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다.

현용준은 용왕녀가 생업수호신적 성격으로 있었다가 남성신과 결합하면서 용왕
녀의 성격이 사라지고, 일렛당의 신이 남성과 결별하여 따로 좌정하며 남아 있다고
하였다.¹³⁶⁾ 이처럼 수호신적인 면에서 산육과 치병의 기능으로 변화되고, 사람들과
가까운 인신의 형식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추측한다.

강정식은 당신본풀이를 전승과 변이양상을 살피면서 송당계, 한라산계, 예래계,
금악계의 계보로 나누고 지역적인 변이양상을 살펴보고 있다.¹³⁷⁾ 남성신은 산신 본
풀이, 여성신은 해신 본풀이가 원형이었으나 신격이 변모하면서 수렵신과 농경신의
본풀이 결합, 수렵신과 치병신의 본풀이가 결합하는 변천 과정을 겪고 있음을 밝히
고 있다. 현승환은 제주 신화와 제주 생업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며 산업의 변화
에 따른 신화의 현대적 변용 양상을 살피고 있다. 이를 통해 현대 신앙 현장의 상
황을 밝히고 있다.¹³⁸⁾

토산 으드렛당본풀이는 토산한집과 오씨아미의 죽음과 신격 좌정의 서사로 이는
후대의 사회에 따른 신격 변화를 보여주는데, 좀더 생활과 가까운 신으로의 모습으
로 변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녀당신 여성신은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한을 풀어주기 위해 제향을 한다. 하지만
토산 으드렛당은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로 중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첩의 양상이
여성신의 변모하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애초에 여성신들이 대표적인 신이었다가 남성신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여성신이

136)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141~142쪽 참고.

137)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2.

138) 현승환, 「제주도 신화와 공동체 그 현대적 변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22, 한국구비문학학회,
2006.

점차 밀려나게 된다. 남성신은 권위적인 모습으로 바람 위에 좌정하고, 본향신으로 마을을 관장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모습이다. 여성신은 바람 아래로 좌정하고 일뤼당신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신의 형태가 덧보태게 된다. 여성이 희생되는 존재로 그려지고, 공동체가 나서서 제향하지 않으면 안되는 존재로까지 된다.

으드렛당본풀이를 통해서 여성신들의 신앙이 어떻게 변천해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토산 으드렛당은 나주 금성산에서 들어온 사신이다. 나주 금성산에서 온다는 것은 부의 신이고, 외래에서 들어온 신이라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제주로 들어오던 배가 풍랑을 만나 못 들어오자 용왕에게 제를 지내고서야 무사히 들어온다. 이처럼 용왕이라는 여신이 제주로 들어와서 어부와 해녀를 차지한 생업수호신이 된다. 생업수호신인 여신에 일뤼당의 전형적인 형태인 남신과 여신의 결혼 서사가 첨가 된다. 개로육섯도라는 남성신이 토산 으드레한집과 결연을 맺는 과정 자체가 남성신이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에 오씨 애기씨의 좌정 등이 첨가되면서 여성신의 변이가 또 한번 이루어지고 있다.

토산한집이 좌정하고 난 후 왜구의 겁탈로 인해 오씨 또는 강씨 형방의 딸이 죽고 신격화가 되는 서사가 보태게 된다. 이것은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의 모습이며, 신화적인 모습이라기보다 후대의 사회상이 반영된 것이다. 즉, 신적인 면모에서부터 인간 사회의 약자인, 처녀의 모습으로 전개된다.

토산한집이 겁탈을 당한 경우, 오씨 형방의 딸이 겁탈을 당한 경우, 강씨 형방 딸이 겁탈을 당한 경우가 본풀이마다 다르게 서술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 또한 이 본풀이의 혼란스러움을 더하게 한다.

토산한집의 입도부터 좌정까지를 보면, 변화와 첨가, 층위의 변이까지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토산한집은 나주 금성산에서 쫓겨나서 제주로 오게 된다. 나주 금성산에서의 쫓겨남 서사는 부(富)의 이동에 따른 변화로 조상신본풀이의 사신의 입도의 모습과 유사하다. 토산한집은 용왕국 아기씨의 모습으로 어부와 해녀를 차지하며 생업수호신의 모습을 보인다. 온평리의 명오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토산으로 가는데 개로육섯도를 만나고 손목을 자른다. 남성신과의 만남과 손목 자름 화소는 여성신에서 남성신 중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토산한집이 손목을 자르며 남성 중심의 신앙 체제로의 변화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토산한집이 개로육섯

도의 행실이 과썸하여 용왕국에 가서 한탄하지만 오히려 남자의 말을 거역했다며 호통을 듣고 개로육섯도와 결연을 한다. 이로써 완전한 남성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남성 중심 사회가 되면서 여성 신이 중심에서부터 점차 밀려나게 된다. 그러면서 여성이 희생되는 존재로까지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IV. 제주도 처녀신의 특징

제주도 처녀신의 죽음과 관련한 서사 및 신격화는 타 지역의 여성 원혼 신화와 유사한 형태와 성격을 지닌다. 타 지역의 여성 원혼 신화와 제주도 처녀신을 비교해 제주 처녀신의 독자적인 면모를 찾아볼 수 있기에 그 특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제주도 처녀신의 특징을 살피기 위해 우리나라 육지부에 전승하는 원혼 중 제주도 처녀신과 유사한 사례를 열거하면서 제주도 처녀신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제주도 처녀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다.

1. 여성 인신의 보편성

여성 원혼의 경우는 제주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바다 중심으로 폭넓게 전승되고 있다.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지역에서 특히 인물신이 많이 보인다. 이는 생업의 불안전성에 다른 환경적 요인이 주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이승철의 『동해안 어촌 당신화 연구』에 실린 자료와 표인주의 『전남의 당신화 연구』에 실린 자료를 예증 삼아 일반화의 이해에 접근하려 한다.¹³⁹⁾

[표6] 육지 해안지역의 여성 원혼 당신화

죽음의 유형	당신화	서사 내용	자료집
섬에 갇힘	원덕읍 갈남2리 (신남) 해신당	생업을 위해 총각이 처녀를 애바위에 내려주었으나 폭풍우로 인해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그후 고기가 잡히지 않고, 한을 풀어달라며 현몽을 한다. 처녀를 위해 남근을 깎아 봉헌한다.	동해안(삼척 31-44)

139) 이승철, 『동해안 어촌 당신화 연구』, 민속원, 2004, 265-394쪽; 표인주, 『공동체신앙과 당신화 연구』, 집문당, 1996, 388-398쪽. 이승철은 동해안 어촌 당신화 자료를 다루었고, 그에 따른 자료는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부록에 실고 있다. 이들 자료 중에 원혼 서사에 따른 자료만 살핀다. 표인주는 서해안 당신화 자료를 다루었고, 그에 따른 자료는 동물신격, 자연물신격, 조상, 원귀신격, 복합적, 이인계시형, 신령음조형, 현몽계시형으로 나누어서 부록에 실고 있다. 이 자료 중에 원귀신격의 경우를 주로 살핀다.

	신안군 장산면 다수리	생업을 위해 바다에 나간 사람들이 용을 보게된다. 용을 보고 소리친 처녀를 용에게 바치니 사람들이 탄 배가 움직이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용은 처녀를 섬에 두었고, 처녀는 섬에서 늙어 죽었다. 사람들이 처녀를 위해 제사를 지낸다.	전남(55)
남성의 겁탈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장낭자	장낭자가 남성에게 겁탈당하여 죽으려고 하니 이를 말리던 어머니와 함께 바다에 투신한다. 그 후 장낭자가 죽은 날이 되면 폭풍우가 휘몰아치니 장낭자의 원혼을 위무하는 제를 모신다.	전남(54)
남성의 부재 및 결핍	강릉 주문진읍 주문리 진이서 낭	현감이 진이에게 수청들라는 요구를 하자 이를 거절하고 자살하였다. 그 후 마을에 질병이 잦으니 진이를 위한 사당을 세우고 여성황이란 칭호를 주었다.	동해안(강릉 32-38)
	강릉 안인진 여서낭	두 가지 이야기가 있음. 첫째, 그네를 타다 실족한 기생을 위해 제를 지낸다. 둘째, 약혼한 총각이 바다에서 죽자 자살하니 마을에 흉사가 났다. 남근을 깎아 바친다.	동해안(강릉 -59. 강릉 -54)
	승주군 낙안면 이곡리 노암마 을 당신화	남성과 송여인은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남성이 과거 보러 가서 오지 않자 송여인은 실성하고, 노암 마을 공동샘에서 목숨을 잃는다. 그후 해월이알이 생겨서 만병을 고치는 특효약이 되고 송여인의 넋을 위로한다.	전남(52)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내촌 당 제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자 딸이 울다 죽었다. 그후 원혼으로 마을을 돌아다니니 선왕신으로 모신다.	전남(53)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 당산제	왕비는 왕을 기다리며 수절하다 죽어 원혼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왕비를 수호신으로 모시고 풍년과 행복을 빈다.	전남(57)
	곡성군 옥과면 옥과 2리 옥전 마을 당산제	공주가 장군을 사랑하다 거절당하자 한을 품고 죽어 원혼이 되었다. 무당들이 조장군과 공주의 상을 조각하여 제사를 지낸다.	전남(58)

	장성군 삼계면 유천마을	처녀가 파혼했던 남성이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잘사니 억울함에 다듬잇돌을 안고 자살하여 원혼이 되었다. 처녀는 죽은 후에 파혼했던 남성과 살고자 했으나 거절당한다. 마을사람들이 여성을 위로하기 위해 제사를 지낸다.	전남(59)
--	-----------------	------------------------------------------------------------------------------------------------------------------------	--------

위의 [표]의 자료는 동해안과 전남의 당신화 자료로 여성의 죽음 형태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서사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였다.¹⁴⁰⁾ 여성들은 섬에 갇혀서 죽는 경우, 남성의 겁탈로 죽는 경우, 남성의 부재에 따른 결핍으로 죽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섬에 갇히거나 겁탈에 의한 죽음은 외부 환경과 강압에 의한 타살로 이루어지고, 남성 부재와 결핍에 따른 죽음은 내재적 갈등에 따른 자살로 이루어진 것이다. 위의 당신화를 통해 제주 처녀당신과 견주어 보편성을 찾아보려고 한다.

장덕순과 표인주는 위의 자료들이 당에 얽힌 이야기를 담고 있고, 제의와의 연결성을 들며 당신화임을 정의한다.¹⁴¹⁾ 장덕순은 서사무가가 아닌 이야기로 되어 있는 당신화의 예로 죽령산신 다자구할머니, 일월산 황씨부인, 연평도 임경업 장군을 들고 있다. 표인주는 이들의 이야기는 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마을 사람들로서는 신이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전설이기 때문에 신화전설이라고 명명한다. 하지만 신앙 행위와 관련을 맺고 있기에 위의 이야기를 당신화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힌다.

이것은 제주의 본풀이 사례와 다른 양상이다. 제주도 본풀이는 사제자인 심방에 의해 구술된 것이라는 특징이 있고, 심방 이외에 구술되는 이야기는 전설이나 민담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주도에 전해지는 본풀이가 전부 의례 현장에서 부른 것은 아니다. 재현 형식을 띤 의례에서 구술되거나, 심방의 입을 통해서 의례시 이렇게 불렀었다라는 기억에 따른 조사가 자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본풀이 내용의 신뢰에 대하여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지만 많은 부분 심방의 말에 의존하는 상황에

140) 자료집과 관련한 표기는 표인주의 『공동체 신앙과 당신화 연구』는 전남으로 쓰고, 괄호 안에 자료편의 번호로 표시한다. 이 자료에서 원혼의 신격화 중 여자 원혼 당신화로 52-59번 자료에 해당한다. 이승철의 『동해안 어촌 당신화 연구』는 동해안으로 쓰고, 괄호 안에 자료편의 지역-번호로 표시한다. 이 자료에서 인물신격 중 원사 신격 당신화에서 서사가 있는 자료만 이용한다.

141)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서울:일조각, 1987, 35-36쪽; 표인주, 『공동체신앙과 당신화연구』, 집문당, 1996, 156쪽.

다.

심방이 구술한 제주도 자료와 다르게 위의 동해안과 서해안 자료는 일반인의 기억에 의존한 자료이다. 또한 구비 전승되고 있는 이야기를 신화라고 하고 있지만 대부분 전설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것을 구전신화로 인식하여 신앙과 연결하여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의례가 진행되고 있고, 그 의례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들고 있다. 현재 공동체 신앙으로 살아 있다는 것과 그 신앙의 토대가 되는 신격에 관한 이야기임을 들어 제주도 처녀당신의 경우와 서사적 맥락을 비교해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여성 원혼은 다음과 같은 보편성을 지닌다.

첫째, 인신공희의 흔적이 있으며 제물로 바쳐진 인물을 신격화하고 있다. 신안군 장산면 다수리 당신화의 내용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여성이 희생되는 서사를 보인다. 생업을 위해 바다에 나간 사람들 앞에 용이 갑자기 나타나니 한 처녀가 용을 보고 소리친다. 용이 소리친 처녀를 자신에게 내어주면 섬에 가서 살겠다고 한다. 사람들이 용을 보고 소리친 처녀를 바치니 그들의 배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용은 처녀를 섬에 두고, 처녀는 섬에서 늙어 죽었다. 사람들이 처녀를 위해 제사를 지낸다. 이 신화에서 처녀의 죽음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용은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고, 풍랑을 좌우하며 해상 안전을 책임진다. 사람들은 용신의 분노를 잠재워 해상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위 신화는 풍랑으로 인한 고립과 죽음, 처녀를 위한 제사로 제주 마라도 아기업계의 경우와 유사하다. 바다 일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풍랑과 같은 자연재해를 겪을 수 있다. 그로인한 불안함은 여성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희라는 고대적 제의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 마을 사람들은 처녀공희를 통해 안전과 풍어를 기대하며 의례를 행하는 것이다.

인신공희는 자연의 초월적 힘에 대한 숭배일 수 있고, 창조의 개념으로 완성을 의미하는 제의일 수도 있다. 신안군 흑산면 진리 당제 당신화와 마라도 아기업계의 공희는 신과 자연적 존재를 동일시하여 초월적 힘에 대한 경외 표현이다.¹⁴²⁾ 해남

142) 신안 흑산면 신화는 귀공자의 피리 소리에 반한 각시당신이 소년을 섬에 두는 조건으로 파도를 잠재워 사람들이 무사히 섬에서 나갈 수 있게 하고, 소년은 섬에 갇혀 피리만 불다 죽는다. 마라도 아기업계는 마라도에 같이 간 사람들이 높은 파도로 인해 갈 수 없으니 아기업계가 섬에 남겨지고 다른 이들은 아기업계의 남겨진 덕에 섬에서 나갈 수 있게 된다. 그 후 아기업계는 굶어 죽는다.

군 산이면 신농마을 당신화와 진안할망의 경우는 성의 완성이라는 목적에 의한 제물이다.¹⁴³⁾

장영란은 홍수 가뭄 같은 재해는 신의 분노에 의한 것이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의 분노를 사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¹⁴⁴⁾ 따라서 인신공희는 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의식인 것이다. 마라도 아기업계와 흑산면의 피리부는 소년은 신의 분노를 잠재우는 목적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엘리아대는 창조의 신화를 초목과 곡물의 기원에 위한 공희와 연관시키고 있다. 인간과 동물 공희의 의미는 단순히 수확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성스러운 힘의 재생이라는 의미이고,¹⁴⁵⁾ 실제로 추수 때 나타나는 힘의 재생을 위한 인신공희는 종자에 생명을 부여한 창조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처럼 창조는 생명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의 부여를 성의 완성과도 연관시켜볼 수 있다. 그랬을 때 힘의 재생이라는 의미는 스님이라는 공희와 처녀의 공희로 인해 제방과 수산진성의 완성을 이끄는 생명 부여의 창조행위인 것이다.

둘째, 원혼의 요인으로 남성의 부재 및 결핍에 따른 죽음의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바다로 나간 남성을 기다리다가 여성이 자살하는 형태를 띤다. 원혼 중에 이러한 형태가 가장 많다.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내촌 당제 당신화의 아버지가 고기잡으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자 딸이 기다리다 죽은 경우, 신안군 흑산면 진리 당제 당신화의 총각이 고기잡으러 나가서 돌아오지 않자 결혼을 약속했던 여성이 목메고 죽는 경우이다. 이처럼 여성은 남성을 보내고, 기다리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이처럼 여성이 죽은 후 당신으로 모셔진다. 남성의 부재와 결핍으로 인한 여성의 죽음은 제주도 골르락당의 오씨 아미와 유사하다.

골르락당 오씨 아미와 제주의 광청아기씨, 손각시는 유사한 서사를 공유한다. 혼사장애는 한국 전 지역에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한다. 제주에서는 골르락당 오씨 아미 외에 광청아기씨를 들 수 있고, 서울의 손각시 신앙과도 유사한 점이 있다.¹⁴⁶⁾

143) 해남군 산이면 신화는 길에 누워 자는 스님을 물어 제방을 완성하고, 성산 수산리 진안할망은 처녀를 성담 속에 넣고 완성한다.

144) 장영란, 「희생제와 희생양의 철학적 기능」, 『동서철학연구』68, 한국동서철학회논문집, 2013, 94쪽.

145)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은봉 옮김, 『종교형태론』, 한길사, 1996, 452쪽.

146) 현용준, 「광청아기(송동지영감본)」,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709쪽. 광청아기씨는 구좌읍 김녕리 송씨 집안을 수호하는 신격으로 혼인의 장애를 겪는다.

이들은 남성의 결핍으로 인해 죽음을 겪고 신격화되고 있다.

굴르락당 오씨 아미는 신분적 차이로 인해 남성과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결한다. 광청아기씨는 서울에 진상 간 송동지영감과 하룻밤의 인연으로 임신과 버려짐으로 죽게 되고, 손각씨는 손씨 집안 규수로 출가하지 못하고 죽는다.

해원 방법이 죽음의 요인과 결부되고 있다. 굴르락당 오씨 아미는 향교에 드나들던 사람들인 남성들에게 제사를 받고, 향교 사람들 수호을 수호한다, 광청아기씨는 송동지영감 집안에서 조상으로 제사를 받고, 그 집안을 수호한다. 또한 셋째 아들을 광청아기씨의 양자로 입적시켜 제사의 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손각씨는 여성들의 결혼 여부에 관여하며 부근당에는 남근을 바치기도 한다. 모두 죽음에 따른 결핍과 목적이 죽은 후 신앙의 형식으로 해결되고 있다.

셋째, 남성에 의한 겁탈로 인한 죽음이 있다. 여성들은 남성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는데 그로 인해 죽음을 겪고 신으로 좌정한다.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당신화의 경우 장 남자가 겁탈을 당하여 자살한다. 장 남자는 억울한 죽음에 따른 흥심으로 폭풍우를 일으킨다. 그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장 남자를 위해 제를 지냈다. 이와 유사한 서사는 제주도 처녀신 중 볼래낭 박씨할망과 토산한집이 있다. 이들은 남성에 의해 겁탈을 당하여 죽음을 맞이하여 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여성들은 겁탈을 당한 남성에게 복수를 하기보다 신앙민들에게 흥심을 주어 분노를 표출하고, 신으로 좌정하면서 위로를 받는다.

남성의 겁탈로 인한 죽음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겪는 불합리한 상황과 시대의 사회상에 따른 여성의 위치도 보여준다. 제주의 볼래낭 할망과 토산 요드레 본풀이에서의 죽음은 왜구의 침입에 따른 수난의 사회상을 보여주지만,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의 신화는 평범한 남성에 의한 겁탈이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일의 발생이다. 죽음의 과정이 힘센 자의 폭력과 억압에 의한 것으로 억눌린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여성들은 폭풍우와, 광증이라는 흥심으로 억압됐던 분노를 분출한다.

넷째, 원혼이 신격화되고, 풍어의 신으로 생산성 증대와 관련한 기능을 담당한다. 어촌 지역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신들이 풍어를 기원하기 위한 당신으로 좌정한다. 생산성에 따른 기원은 신앙민들에게 보편적이지만 중요한 요소이다. 제주 처녀신의 기능은 풍요와 안전이다. 생산성의 주요한 성격을 갖는 산육 및 생업신적 기능이 존재한다.

해안지역의 신앙의 기본적인 기능은 안전과 풍어이다. 생산성이라는 요인을 중요하게 관념하고 있으며 이는 임경업 장군, 최영 장군등의 남성 장군부터 이름 모를 여성까지 억울한 죽음을 거쳐 안전과 풍어의 신격으로 자리하고 있다.

여성 서낭에서는 생산성 증대로 남근을 바치는 행위가 행해지기도 한다. 원덕읍 갈남2리의 해신당의 신화는 처녀가 생업을 위해 섬에 들어갔다가 풍랑으로 나오지 못하고 죽은 후에 신이 되는 서사를 지닌다. 이 해신당은 산남마을에서 모시는 서낭당으로 해당에 속한다.¹⁴⁷⁾ 애랑이라는 처녀가 미역을 따러 섬에 갔을 때 파도가 세서 나올 수 없었고, 처녀는 죽게 된다. 그 후로 고기가 잡히지 않고, 해상 사고가 발생하니 사람들이 애랑을 위해 제사를 지냈다. 그러함에도 일이 해결되지 않다가 한 남성이 우연히 소변을 누게 되고, 애랑의 고맙다는 인사로 만선이 된다.

제주 처녀당신에서 마라도 아기업게당, 볼래낭 박씨할망, 토산 요드렛당의 경우는 생업 수호신적인 직능을 포함하며 풍어와 안전을 기원한다. 또한 마라도 아기업게당, 볼래낭 박씨할망은 일렛당의 성격도 지닌다. 제주 여신 신앙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렛당 신의 직능이 산육을 포함한다. 산육은 생산성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는 신앙이다.

2. 제주도 처녀당신의 특징

우리나라 육지부의 신화와 제주도 처녀신 본풀이의 비교를 통해 특징을 살펴보면 제주도 처녀신 본풀이의 소중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주도 처녀신 본풀이는 다른 지역의 신화와 보편적인 면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보편성 외에 제주도 처녀신 본풀이만 가지고 있는 특징도 존재한다.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른 지역의 원혼 신격화는 남성과 여성 모두 포함하지만 제주의 경우는 여성 원혼이 강조된다. 여성 원혼은 대체로 흥함을 주고 신격화하는데 남성 원혼의

147) 유형동, 「삼척 해신당과 성 인식, 그리고 해신당 공원」, 『아시아강원민속』 34, 아시아강원민속학, 2020, 87쪽. “해당은 해신당·해랑당·해서낭이라고도 부르는데 처녀신을 모시는 여서낭당이다. 해신당에는 남근을 깎아서 봉납한다. 남근을 봉납하는 신앙적 행위는 관광 콘텐츠화 하며 당 주변에는 관광객들이 놓은 남근들이 전시되어 있다. 해서낭의 위무는 어업민속에서 해상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행위이다.”

신격화의 경우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여성 원혼의 활성화는 여성성의 강조와도 의미를 같이 할 수 있다.

둘째, 제주도 본풀이에서는 처첩간의 양상이 포함되기도 한다. 처와 첩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처녀신 본풀이가 전승되며, 이러한 경우 처첩 간 갈등이 미약함을 보인다.

셋째, 제주 처녀신의 자료를 통해 심방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혈연 가계도에 따른 집단화 및 사회적 계층적 문제, 여성 원혼이라는 두려움이 주요 요인이다.

넷째, 처녀신의 신앙이 개별적인 의례의 형태를 띤다. 제주도 처녀신의 경우는 당신으로 좌정하고 있지만 신앙민이 개별적으로 기원하는 형식을 띤다.

다섯째, 단순하고 원초적인 형식을 띠는, 서사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허공에 기본풀이처럼 억울한 죽음과 재생, 저승과 이승을 경계 짓는 서사로의 확장까지 가능하게 한다.

제주도 처녀신은 위의 특징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자료임에도 지금까지 온전히 연구된 것이 없다. 제주도 처녀신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기에 제주도 처녀신의 서사를 통해 특징과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1) 여성 원혼의 강조

우리나라 육지부에서는 원혼으로 남성과 여성의 경우가 존재한다. 실패한 장군들이 당신으로 좌정하고 있으며 풍어의 직능을 가지고 있다. 제주에는 이와 달리 여성이 원혼으로 신으로 좌정하는 경우만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을 들어 제주도 처녀당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첫째, 제주 신화는 여성 원혼이 강조된다. 둘째, 제주 신앙이 여성성이 강하다. 이 두 논의는 제주도가 여성 중심의 신앙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독자성을 띠며 발전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육지 지역과 달리 제주도 처녀당신은 중심으로 봤을 때 여성 원혼이 강조된다. 원혼을 자의나 타의에 의해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제주의 본풀이에서는 여성 원혼이 신격화되는 경우만 존재한다. 왜 그런지 살펴보면 여성의 원혼의 강력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는 여성이 죽은 후 신

양민들에게 흉험 주는 대목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승철은 흔히 민간신앙에서는 남정보다는 여성이 원혼으로 되었을 때 그 원혼이 가지는 주술적 힘이 강하다고 믿어져 오고 있으며, 이는 가부장적인 사회 성격상 여성의 활동이 음성적이고, 그만큼 여성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억압이 심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한다.¹⁴⁸⁾

제주도의 원혼 양상이 남성과 관련된 희생은 없고, 여성들만 희생되고 있어서 여성 원혼이 신격화되는 본풀이가 존재한다. 이처럼 여성 원혼이 강조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를 제주도 사회의 여성 역할과 관련지어볼 수 있다. 정솔미는 문헌자료를 통해 여성 귀신은 조선 시대 후반에 갈수록 귀신이 여성화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 일차적으로 여성과 무속과의 친연성을 들었고, 중하층 여성을 체제 바깥의 존재로 여겨 위협적으로 본 남성의 시선과 여성들의 원망이 복잡하게 얽혀 나타난 결과로 보았다.¹⁴⁹⁾ 이에 따르면 여성 원혼은 사회적 변화 및 생활상에 따라 점차 강조된다고 하는 것으로 이 논지를 참고하여 조선시대 제주 여성의 생활사를 들어 여성 원혼의 강조되는 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조선 전기 발견되는 귀신의 여성화 경향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심화된다. 조선 후기 귀신담에서 여성·귀신·무(巫)는 더욱 긴밀히 관련되고 여성 귀신의 수는 더욱 많아지며, 급기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여자 원혼’이라는 발언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들이 억울하게 죽은 후에 흉험을 주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여성 원혼에 관한 두려움은 원혼의 한을 푸는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다. 신앙적 공포감 외에 여성은 남성과 달리 처녀로 죽으면 제사를 지내 줄 사람이 없다. 이로 인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원혼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점 또한 여성 원혼이 강조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조선 시대는 유교 체제가 갖추어졌으며 남성우위의 사고가 장악한 사회였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자 원혼을 신으로 좌정시켰을까 하는 점이다. 그것은 남자 원혼들보다도 여성 원혼이 강력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공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여자의 원혼을 신격화시켜 당신으로 좌

148) 이승철, 『동해안 어촌 당신화 연구』, 민속원, 2004, 86쪽.

149) 정솔미, 「조선시대 여성 신분에 따른 귀신 형상화 방식의 차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4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1, 182-189쪽

정시킨 것이라고 하였다.¹⁵⁰⁾

이러한 관념은 당신앙에서도 반영된다. 제주도 본풀이에서 억울하게 죽은 여성이 흉험을 주며 자신을 모시라고 한다. 이에 신앙민들은 여성을 모시며 그 흉험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으며, 애초에 여성 원혼에게 가졌던 두려움은 당에 가지 않으면 흉험을 받게 된다는 관념으로 변하면서 의례의 관습화가 이루어진다.

왜 조순덜 안오느냐 허멍 아프거나 흉험을 주는 거라. 일절 그런 거 어시난,
옛날 곶으민 아이 가민 허물도 불러주고, 아픔도 불러주고, 무소왕 거주만은
이젠¹⁵¹⁾

위의 구술 내용은 당에 가는 이유가 흉험을 피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신은 왜 자손들이 찾아오지 않느냐 하면서 아프게 하는 등의 흉험을 주는 것인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고, 옛날 같으면 당에 가지 않으면 허물도 불러주고, 아픔도 불러주기 때문에 무서워서 갔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전통 사회에선 질병에 걸리면 신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질병에 걸리면 심방에게 굿을 의뢰하였다. 혼이 육체에서 이탈함으로써 일어나는 병, 신령이 노여워하여 내린 병, 악귀가 접하여 일어난 병, 정명이 다 되어 일어난 병은 굿을 통한 초자연적 방법으로 심방이 고칠 수 있다.¹⁵²⁾ 이러한 관념은 심방은 신과 인간을 이어지는 매개자이며,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동시에 인간의 뜻도 신에게 전달하여 준다는 사고에 의한 것이다.

『제주풍토록』, 『남사록』, 『탐라지』 등에 “사람이 병이 나면 귀신이 노여워 한 때 문이라고 하고, 약 쓰기를 두려워한다”고 한다. 이는 질병 치료에 굿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길흉화복 모든 일을 신탁에 의해, 점을 쳐서 신에게 들었다는 말이다. 이러한 관념은 제주가 고립적인 섬이라는 환경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공간과, 출륙금지라는¹⁵³⁾ 역사적 사건으로 다른 지역과 문화교류

150) 표인주, 『공동체신앙과 당신화 연구』, 집문당, 1996, 212쪽.

151) 2023.5. 23. 김순아 심방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152) 제주도, 『제주의 민속』 V, 제주도, 1998, 25쪽.

153) 양정필, 「16세기 제주도의 위기와 유민 증가 그리고 출륙금지령」, 『제주도연구』59, 제주학회, 2023, 292쪽. 1570년대 전후부터 목사들은 제주인의 본토 출입을 통제하였고, 1629년에 유민의 발생과 인구감소를 막는 방책으로 출륙금지령을 내렸다.

가 뜸하면서 고대적인 성격들이 남아 있다. 고대로 올라갈수록 원혼에 대한 신앙적 공포는 더욱 크다. 이러한 관념이 무속사회에 녹아들어 갔을 것이다.

제주도 처녀당신을 통해 여성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위대한 어머니는 다산성과 풍요로움으로 우주와 지상계를 채워준다. 일뤼당의 신들은 여성이고, 아이를 출산한 여성신이다. 이들은 산육과 치병을 관장한다. 즉, 출산했던 여성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아 보는 것이다.

하지만, 처녀당신은 처녀의 원혼으로 출산하지 않은 여성이다. 과연 이들이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여성은 출산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처녀인 채로 죽은 여성은 가능성만 있는 것이지 출산하지 않았기에 생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처녀당신은 일뤼당신의 직능과 동일한 산육과 치병을 관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육지 지역의 여서낭은 처녀인 채로 죽은 원혼이다. 신앙민들은 여서낭을 위해 남근을 바친다. 이처럼 남근을 바치는 행위 또한 남성 정신과 시각의 산물이다. 남근을 깎아 서낭당 뒤편에 가져다 놓는 것은 당제나 별신굿에서 숯서낭과 암서낭을 한 곳에 모시는 것에 대해 신혼의 한 양상이며 모의 성행위로 간주한다.¹⁵⁴⁾ 남성과 여성의 모의 성행위로 생산력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관념이 들어있다. 처녀 여신은 남성의 결핍으로 인해 원혼이 생기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근을 봉헌하기도 한다. 남성이 원혼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냈으나 고기가 잡히지 않았고, 우연히 남성이 소변을 본 후 재앙이 그쳤다.¹⁵⁵⁾ 남성이 소변을 보고 재앙이 멈췄다는 내용은 남성의 정신적 무의식에서 나오는 시각으로 후대에 변이가 이루어진 서사이다.

여서낭에게 남근을 바치는 행위는 처녀신의 노여움을 풀어 해상에서의 안전성 보장과 생산성의 증대로 풍어를 의미한다. 여서낭은 처녀로 죽었기 때문에 출산을 한 적이 없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서낭 당에 남근을 바침으로 결핍이 충족되면서 생산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세속적 출산의 형

154) 편성철, 『삼척 해안지역 당신화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59쪽. “모의성행위는 별신굿의 제의에서도 반복되고 별신을 시작하기에 앞서 할아버지당과 할머니당을 한 곳에 모셔놓고 화해굿 혹은 합일굿을 하는 것은 신혼의 한 양상이다.”

155) 이승철, 『동해안 어촌 당신화 연구』, 2004, 386쪽. 자료 중 삼척-44. 원덕읍 갈남2리 당신화 내용.

태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모권제 아래에서는 남근상의 나무도 대지에 의존한다. 대지는 여성성이 지닌 창조적인 양상으로 초목의 생명을 지배하기 때문에 수태와 출산에 더 심층적이고 원초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¹⁵⁶⁾

제주의 처녀당신 또한 출산하지 않은 여성으로 생산성의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서낭과 다르게 제주도 처녀당에서는 의례 시 생산성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여성 당신의 직능과 일치하고, 의례는 여타 일렉당신처럼 개별적으로 행할 뿐이다. 처녀당신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여서낭의 모의 성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했음을 제주도 당신본풀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젠 누구말썽 아니라도 배 아픔 한 번 못해보고, 이젠 그냥 일생을 다 막
끄게 된 거 아니, 계난 큰 곳 할 때는 심방이 아지며는 신칼을 영, 영 손에
영 감주. 감으민 그 쇠, 그 신칼은 남즈의 연장을 여간하여서 악근 차세 한
차세로, 갱 그 본향을 청해당 안져 낱 악근 차세 한 차세로 감자. 감았으니
악근 차세로 굿하자. 엽댕이도 강 쿡쿡 찢르곡 영, 영 행 노리개를 해주게.
가슴도 강 연주곡 엽댕이도 강 연주곡 하는 것은 그 아기가 여즈 남즈 입장
결혼 했쟁해도 남녀 구별을 한 번, 성관계를 못해본 수복대길 털므로 행 감양
놀고, 놀양 연당 알로 풀어 맞자, 행 푸는 셈을 해주게.¹⁵⁷⁾

제주에도 남근 봉헌과 같은 모의 성행위가 있었다. 위의 내용은 중문 불목당에서 ‘수복대기 털’의 의례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배 아픔 한 번 하지 못했다는 것은 출산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이다. 여성이 출산을 못 해보고 생을 마치게 되니, 큰곳 할 때 본향을 청한 심방이 신칼을 남근처럼 여기면서 옆구리도 찢르고 한다. 즉 본향이 성관계를 한 번도 못 해봤으니 수복대기를 터는 것으로 논다. 강순희는 수복대기는 남성 성기를 상징하고, ‘수복대기 털’은 수복대기를 가지고 벌이는 모의적 성행위 제의라고 한다.¹⁵⁸⁾ 하지만 현재 이 제의는 사라지고, 제주 여성 신화는 고대의 여성신적인 면모로 생산성만 내포한 채 전하고 있다. 이처럼 모의 성행위와 같은 의례는 제주도 신앙에서도 행해졌기에 여성 결핍에 따른

156) 에리히 노이만 저·박선화 옮김, 『위대한 어머니 여신』, 살림출판사, 1989, 75-77쪽.

157)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2008, 400-401쪽, 김명선 구송.

158) 강순희,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에 나타난 서사 구조와 제의 양상」, 『실천민속학연구』 32, 273쪽.

행위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결혼과 출산을 한 여성이 일렛당으로 좌정하고 있고. 이 신앙은 제주도 전역으로 활발한 전파를 보인다. 제주 신앙에서 산육의 직능이 있는 일렛당의 활성화는 남근을 봉행하며 얻어지는 생산성이 필요하지 않다. 처녀당신은 제주 여성 당신앙에 기대어 일반화되어 간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 처녀당신은 여성성이 강하기에 홀로 좌정하여도 생산성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은 대지의 어머니이고, 남녀의 성이 상승해서 생명 창조와 원리로 작용하기 이전, 모든 인류며 인간 생명에 앞서서 마치 대지 그 자체이듯 최초의 인간 생명 창조와 제일 원리로서 작용한다.¹⁵⁹⁾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멕시코에서 출토된 출산하는 여신의 형상은 여지없이 신성한 의미를 지닌다. 프리에네에서 출토된 바우보 형상들을 보면 여성의 복부 성격은 초자연적 다산성을, 또한 바빌로니아 문명 시대의 음부 노출 그림들을 통해서도 상징하는 것은 역시 다산성이다.¹⁶⁰⁾ 이처럼 고대의 조각상을 통해 여성성을 확인할 수 있다. 동석기시대의 고고 유물과 사실적인 생식기를 표현한 암각화는 생명과 풍요 다산의 원천으로 그림을 통해서 우주 질서, 조상숭배와 종족의 번창, 동물의 번식과 풍요를 성취하려는 관념을 알 수 있다.¹⁶¹⁾

이처럼 풍요와 다산을 위한 사실적 표현은 고대의 예술 도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제주도의 여성 당신을 위해 남근을 이용한 행위를 제의에서 했었고, 이는 결핍을 채워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생산성을 위한 행위가 사라지고 처녀당신은 생산성을 기저에 깔고 처녀인 채로 산육을 담당한다. 이는 원시적 여성의 생산성에서 고대의 여성성을 지닌 모습으로 변화된 것인데 신성 탄생이 그것이다. 제주도 삼승할망에서 고대의 여성 성격이 남아 있다. 동해용국아기씨가 출산을 시키기 위해 옆구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 주지명왕 아기씨가 젖부기 삼형제를 출산하며 오목가슴과 옆구리를 통해 탄생시키는 장면에서 그러한 성격을 볼 수 있다. 삼승할망은 처녀지만 아이들의 출산을 관장하는 신이다. 아이가 태어남에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생산성의 증대에 깊게 관여한다. 이처럼 처녀임에도 출산과

159) 김열규, 「한국신화에서 찾는 원초적 여성상」, 『광장』 191호, 1989, 121쪽.

160) 에리히 노이만 저·박선화 옮김, 『위대한 어머니 여신』, 살림출판사, 1989, 218쪽.

161) 송화섭, 「시베리아 알타이 지역의 샤먼상 암각화」, 『한국무속학』16, 한국무속학회, 2008, 35쪽.

생산력의 신으로 좌정할 수 있는 것은 고대의 신성 탄생이 제주도 신화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류경희는 인도 문화의 여신들은 모든 생명체의 생성과 양육을 가져다주는 모성적 특성을 보임과 동시에 악마를 물리치는 강력한 여전사로서의 이미지로 여겨진다. 어머니는 자식을 낳는 생산력과 양육 능력, 보호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어머니를 언급했다. 이러한 여성이 남성을 낳았기 때문에 여신은 남신보다 강력하다고 하였다.¹⁶²⁾ 제주 처녀당신에도 생산, 양육, 보호의 여성성을 지니며 원초적 신앙, 고대의 신앙 관념이 두루 보이고 있다.

2) 처첩 관계에 따른 서사

제주도 처녀신 본풀이 화소에 처와 첩이 등장하면서 첩이 신격화하는 경우가 있다. 호근이무루 으드렛당의 경우 이씨 할망이 오좌수의 첩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본처가 마련해주는 집에서 생활하지만, 오좌수의 집안의 냉대와 멸시로 신병이 도져서 죽게 된다. 이 대목에서 본처와 첩의 갈등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오좌수의 아들들이 멸시하는 부분이 나오기는 하지만 처첩 갈등의 가장 중심이 되는 본처와 첩에서의 갈등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제주도 본풀이에서 처첩 관계와 관련한 대목을 보면, 갈등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문전본풀이의 여산부인과 노일저대귀일이똥은 처첩 관계이다. 큰부인인 여산부인이 첩을 대하는 태도가 포용적이다. 하지만 첩인 노일저대귀일이똥이 여산부인을 죽인다. 토산 웃당의 일렛한집 본풀이에서도 작은 부인이 마라도에 귀양 가 있는 큰부인을 데려온다.

가) “오좌수가 이거 어떤 일입네까? 놈의 처녀 팔즈 굿혀시니 살을 때를 따 까줍서.”¹⁶³⁾ (“오좌수가 이거 어떤 일입니까? 놈의 처녀 팔자를 그르쳤으니 살 집을 마련해주십시오.”)

162) 류경희, 「인도의 독립적 여신신앙과 여성-신화와 실제」, 『인도연구』 12권 2호, 한국인도학회, 2007, 69쪽.

163)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653쪽.

나) 작은부인님이 돌아와서, “큰부인은 어디 갔수가?” “이리 저리 부정하여 대정 마래섬으로 귀양정배 보내엿노라.” “그까짓 일에 귀양정배가 무신 일이 우까. 난 ㅎ를 멧백번 그른 이리을 허여집넨다. 나도 소국 고향으로 돌아가겠읍네다.” “그레면 어찌 ㅎ면 고향으로 안가겠느냐?” “귀양을 풀려 옵서.”

작은부인이 대정 마래섬으로 귀양 풀리레 간 보니 큰부인은 일곱아길 나드란 앓아시난, “설운 성님 귀양 풀리레 오랴수다.”¹⁶⁴⁾

(작은부인이 돌아와서, “큰부인은 어디 갔습니까.” “이리저리 부정해서 대정 마라도 섬으로 귀양을 보내엿노라.” “그까짓 일에 귀양이 무슨 일입니까. 난 하루에 멧백번 그른 일을 하게 됩니다. 나도 소국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면 고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귀양을 풀려 옵서.” 작은부인이 대정 마라도 섬으로 귀양을 풀리러 가 보니 큰부인은 일곱 아기를 낳아서 데려고 앓아 있으니, “설운 형님 귀양 풀리러 오랴수다.”)

가)는 호근이무루 으드렛당에서 이씨 할망이 오좌수를 찾으러 왔더니 큰부인이 첩의 살림을 마련해주는 내용이다. 나)는 토산 옷당의 일궈한집에서 작은부인이 마라도로 귀양가 있는 큰부인을 데려오는 부분이다. 작은 부인이 마라도로 귀양을 간 신중부인을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처첩간의 화합은 제주도 본풀이에서 종종 등장하는 내용이다. 처첩 관계에 따른 내용은 제주도의 여성들의 사회상을 적절하게 보여준다.

위의 사례처럼 제주도 본풀이에서 첩각시가 배척을 당하고 죽는 사례에 관한 본풀이나 설화는 많지 않다. 제주 생활에서 첩을 얻는 경우가 많았고, 큰부인과 첩은 살림을 따로 하여 지내면서 각자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간다.

위와 같이 처첩간의 갈등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제주도의 사회상과 연관된다. 제주도의 축첩 풍습은 일시적·시기적인 것이 아니라 예부터 내려오는 인습 같은 것이기도 하고, 제주 사회에 남성 부족의 영향도 있다. 다음의 자료를 통해 제주에서 남자들의 만연한 첩 두기의 이유와 첩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가) 성안의 호구는 565호이다. [남자는 壯年과 老弱을 합쳐서 690여 명, 여자는 장년과 노약을 합쳐서 1,100여 명]. 제주목에는 4면이 속해 있는데

164)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각, 2007, 607쪽.

2,890호이다.[남자는 장년과 노약을 합쳐 7,300여 명, 여자는 장년과 노약을 합쳐 1만여 명].¹⁶⁵⁾

나) 병이 있는 남자일지라도 아내가 많은 것은 8,9인에 이르고 여자는 치맛자락이 없어 다만 삼 새끼로 허리를 동이고 한 자 배로 새끼의 앞과 뒤를 꿰매어 그 음부를 가리울 뿐이다.

제주 남자는 배가 침몰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이 한해에 100여 인이나 된다. 그 때문에 여자는 많고 남자는 적어 시골 거리에 사는 여자들이 남편 있는 사람이 적다.¹⁶⁶⁾

가)는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이 선조 34년인 1601년 8월에 안무어사로 제주에 왔을 때 지은 여행일기로 『남사록』에 실린 내용이다. 성안의 호구는 565호이고, 남자는 장년과 노약자를 합쳐서 690명이고, 여자는 장년과 노약자를 합쳐서 1,100여명이다. 또한 제주목에는 남자는 장년과 노약을 합쳐 7,300여 명, 여자는 장년과 노약을 합쳐 1만여 명이다. 남성 여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를 다음 나)를 통해 알 수 있다.

나)는 임제가 1577년에 제주에 와서 본 것을 적은 내용이다. 다소 과장되어 보이지만 남자가 병이 있어도 아내를 8, 9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여자들의 옷차림에 대해서도 삼 새끼로 허리를 동이고 음부만 가린 형태라고 적고 있다. 16세기에 제주 사회에서 남자들은 보통 경제적 능력이 없어도 부인을 여럿 두는 것이 사회적, 문화적 풍토였다. 그 이유는 제주 사회의 남성 부족 문제에 기인하기도 하고, 예로부터 관습화되었던 생활의 지속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16세기에 제주에는 관의 수탈이 심하고, 재난이 계속되자 도 외로 출륙하는 남성들이 많았다. 종종 대에 제주도 유민 문제가 심각하자 조정은 여러 대책을 시행하였지만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고, 이후에도 제주도 유민은 계속 발생하였다. 사헌부에 의하면 1555년에도 제주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 무렵 제주도는 해마다 실농하여 창고가 고갈되었고, 이에 더해 큰 변(을묘왜변)을 겪어서 어떻게 할

165) 김상헌 저·홍기표 역, 『남사록』, 제주문화원, 2009, 104쪽.

166) 임제 저·박용후 역, 『南溟小乘』, 제주문화, 1989, 51-71쪽. 임제(林梯)가 절도사로 있는 부친을 뵈고자 선조 10년(1577)에 제주도에 와서 3개월간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적은 책이 『南溟小乘』이다. 제주도의 실황 등이 수록되어 당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계책이 없어 전라도 창고의 곡식으로 구휼해야 하는 형편이었다.¹⁶⁷⁾ 또한 바다 일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가 한해에 100여 명이나 된다고 하니 남성의 인구가 심하게 격감 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결혼했지만 혼자가 된 여성도 많고, 결혼하지 못하는 여성도 많아진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음이 처첩을 유지하는데 한몫한다고 볼 수 있다.

제주 사회에서 본부인은 큰각시로, 둘째, 셋째부인은 작은각시로 통한다. 큰각시와 작은각시는 한마을에 살며 대소사에도 함께 참여한다. 제주도 남성들은 작은각시에 대해 생활을 책임지거나 그 가솔을 이끌지 않는다. 작은각시는 집도 따로 살고, 생활도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몫이었다. 그래서 작은각시도 노동을 하고, 자신이 낳은 아이도 책임져서 키웠다. 작은각시는 시댁의 명절이나 대소사에 참여하기도 한다.

작은각시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사회적으로도 큰각시와 대등한 지위를 획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도 큰각시가 있는 본가에 들어가 살 수 없다. 큰각시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작은각시를 들이는 경우가 많기도 하였다. 이처럼 큰각시와 작은각시는 경제적인 독립, 아이의 공동 양육, 집안 대소사 참여로 공동운명체가 되기도 한다.¹⁶⁸⁾

이처럼 서로 처첩 간의 관계가 모두 원만한 것은 아니었다. 제주도가 처첩 관계에 조금 더 너그러웠다는 것일 뿐이다. 첩으로 있다가 본처가 죽으면 첩이 본처가 하던 일을 이어받긴 하지만 사회에서는 여전히 첩으로 대접받는다.

3) 심방 역할 강조

입무에 실패와 관련된 본풀이는 제주도에 한정되어 전승된다. 처녀신의 경우에 현씨일월, 호근이무루 요드렛당 이씨 할망이 이에 속하며 이들은 심방의 팔자를 타고났으나 주변 환경의 반대 및 좌절하여 죽게 된다. 기본적으로 조상신의 성격을 띠며 각 집안에서 모시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없는 심방 인물의 원혼이 나타나

167) 양정필, 「16세기 제주도의 위기와 流民 증가 그리고 출륙금지령」, 『제주도연구』 59, 2023, 285쪽.

168) 제주도, 『제주여성 전승문화』, 2004, 33쪽.

는 요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제주도 심방들의 집단화와 일반적이지 않은 존재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사회적 하층민으로서 심방의 계층이 입무에 따른 가족의 거센 반대를 이끌어 낸다. 사회적 천대를 받는 심방이라는 계층은 그들끼리의 결혼을 통해 가계(家系)를 이어간다. 제주도에서 심방은 가계를 통한 세습화를 이루고, 일반인들과는 다른 영험함과 능력을 내세우며 자신들만의 단골 판을 만든다. 제주도 심방의 세습은 혈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태를 취한다. 부모가 심방 일을 하니 자식이 부모의 무업을 계승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에서 심방으로 현재 가장 오래 세습한 자는 22대를 헤아린다.¹⁶⁹⁾

안씨 집안의 증조부는 학문이 뛰어나서 통정대부의 벼슬까지 받았는데 19대나 세습하고 있는 심방의 딸을 만나 결혼하였다. 천민인 무가의 딸과 결혼한 것이 안씨 집안의 수치가 되므로 할 수 없이 친족의 곁을 떠나야만 했다.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무업을 이어받아 심방이 되었다.¹⁷⁰⁾

위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심방의 위치가 천함을 나타내고 있다. 심방 집안인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는데 집안의 반대로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렇더라도 심방 팔자를 타고난 남성과 여성은 집안에서 대우하는 방식이 다르다. 남성은 심방이 되는 것에 큰 장애가 없이 무업을 이어나간다.

제주도에서 심방은 세습무와 강신무의 경우가 혼합된다. 제주도의 심방들은 집단성을 가지고 세습하여 나간다. 이 심방 집단은 서로가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공동체’이다.¹⁷¹⁾ 이들은 팔자를 그르친 자들이며 초공본풀이의 무조신인 삼명두에서 최초의 심방 조상인 유씨 선생까지 계보를 이룬다.

이와 같은 계보화는 의례를 통해 심방 집단의 동질감을 느낀다. 굿 의례시 공시풀이는 이러한 심방의 계보화 및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제차이다.¹⁷²⁾ 의례시 공시

169)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88쪽.

170)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89쪽.

171) 강소전, 「제주도 굿의 ‘공시풀이’고찰-이용옥 심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14, 한국무속학회, 2007. 148쪽.

172) 강소전, 「제주도 굿의 ‘공시풀이’고찰-이용옥 심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14, 한국무속학회, 2007. 139쪽. 제주도 공시풀이에서 ‘공시’는 조상을 뜻한다. 굿을 하는 공간에 내려온 옥황상제를 비롯한 일만팔천신을 젓드리에 따라 부르고, 여기에 초공 젓부기 삼형제를 비롯해 유씨

풀이는 길게 또는 짧게나마 풀고 있는데, 무업을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심방들의 가계(家系)는 이들만의 사회적 집단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회적 냉대는 그들만의 결속을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

둘째, 팔자 그르침과 심방의 사회적 위치에 따른 비속함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심방이 되는 길은 운명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갑자기 신병이 생기거나, 우연히 무구인 멩두 및 육간제비를 줍거나, 자신의 부모가 심방이라서 물려받거나, 심방인 배우자를 만나서 입문하는 경우들이다. 이처럼 자신의 의지가 아닌 선택된 자들은 운명에 대하여 팔자를 그르쳤다고 표현한다.

제주도 본풀이에서 심방 팔자를 타고 난 여성들은 가족의 반대라는 장애를 겪고, 심방이 되지 못한다.

남성형은 심방이 되는 것 자체에 큰 장애가 없다. 고대장본풀이처럼 이미 큰심방으로 등장하거나, 우렁이 김씨조상본풀이처럼 새롭게 심방으로 나선다 해도 이를 특별히 방해하는 이는 없다. 반면에 여성형에서는 예촌 양씨아미본풀이와 안카름 현씨일월당본풀이의 경우 어릴 때부터 매우 출중한 자질을 보이지만 무구를 갖추는 과정에서 비통하게 죽는다. 눈미 양씨아미본풀이에서도 훌륭한 자질과 소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자의 강력한 행동에 좌절하여 심방이 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원당할망본풀이처럼 이미 무업을 하고 있던 경우라도, 남편의 반대로 인해 무업활동을 못하게 된다.¹⁷³⁾

여성들에게 팔자를 그르치는 일은 집안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에 무업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그로 인해 여성은 죽음을 겪게 되고, 원혼이 되어 집안 조상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원혼은 기본적으로 죽은 여성과 관련한 해당 집안 조상으로 좌정한다.

가) 훗일곱 설 신병들어 그 헤 저헤 사는 것이 열다섯 십오세가 돼여지니,
(중략)

호근목을 오좌수를 배리고 샀더니, 오좌수는 흐르 삼시 식스흐레 가고 오

부인을 거쳐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심방의 길에 대해서 말한다. 따라서 공시풀이는 무조신을 비롯해 무업 조상들을 대접하고 멩두의 내력을 밝히며, 심방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풀어내는 이야기이다.

173) 강소전, 「심방 관련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탐라문화』3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65쪽.

고 흐던 차에, “너는 어떤 처녀가 거길 샀느냐?” 처녀 말이, “오좌수를 보고 샀읍네다.” “너 어디 사느냐?” “저는 조천관 이훈장 뜰입네다. 훗일곱설 신병 들고 열다섯 십오세가 됐었으니 원천강 썰기라고 이런 곤데 오고 보니 오좌수를 만났수다.”¹⁷⁴⁾

나) 옛 선씨 즈손, 신하천리, 선씨가 양반의 집이라,
뿔이 하나 낫는다, 시술에 빙이 들고 죽역살악 흐다가 일곱술에 살아나고,
또, 열다섯 시오세에 신병이 들어, 또, 죽역살악 흐여, 예레둑, 열아홉술에 살아나니,¹⁷⁵⁾

위의 내용은 어릴 때 신병에 걸리고 심방이 되야하는 팔자를 타고난 경우이다. 가)는 호근이무루 으드렛당의 이씨 할망이 일곱 살에 신병이 들었고, 나)는 현씨일월로 세 살에 병이 들어서 죽었다 살았다는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들은 신병에 의해 심방 팔자로 태어났다고 나타낸다. 이들은 팔자 그르친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사회적 천대에 따른 집안 반대로 좌절을 겪기에 무업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억울한 사정에 의해서 원혼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제주도 처녀신 중 심방 관련 본풀이는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와의 연관되어 있다. 현씨일월, 호근이무루 으드렛당본풀이는 입무 실패에 따른 원혼이다. 이처럼 입무 실패로 인한 원혼은 조상신본풀이 중에서 눈미 양씨아미본풀이, 원당할망본풀이가 있다.¹⁷⁶⁾ 현씨일월과, 호근이무루 으드렛당은 조상신 신앙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들의 공통된 화소는 심방 팔자를 타고났다는 것과 입무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 신이 되는 것이다. 집안 조상신에서 당신으로 확장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한다. 현씨일월 신앙은 현씨라는 마을의 집단화된 공동체라는 것과 부계인 현씨와 모계인 고씨에 의해 신앙이 가지갈라 가면서 분파되는 경

174)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653쪽.

175)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447쪽.

176) 현용준·강정식·김현선,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172-174쪽. 눈미 양씨아미본풀이는 조천읍 와산리 양씨 집안에서 조상신을 모시게 된 내력을 담은 신화이며 양씨아미가 심방이 될 운명을 타고 났으나, 오라비의 반대로 끝내 심방이 되지 못하고 죽고, 조상신이 된다.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94-695쪽. 원당할망본풀이는 심방 일을 하는 중에 양반의 소실이 되는 바람에 곳을 못하게 되자 자살하여 조상신이 된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제주 강씨형방이 서울 원당고을의 굿판에서 미모의 심방을 데리고 왔으나 곳을 못하게 하자 방안에서 동이처럼 사려 죽고, 조상신이 된다.

우로 다른 조상신의 모계 전파와 다르다.

심방은 신의 매개자로서 신과 인간을 잇는 중간자 역할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심방은 신의성방이라고 스스로를 부른다. 이는 당신으로 계시를 받고 신의를 받드는 거룩한 사람이란 뜻으로 오늘의 심방의 전신이 되는 것이고, 이는 인간이 신격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신의성방은 당신본풀이에서 당신과 만나는 최초의 사람으로 신의 명령대로 복종하고, 신앙민과 신의 매개자 역할을 하다가 사후에 당신으로 모셔지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은 구좌읍 동복리 본향당본풀이에 잘 나타나 있다.

가) 굴묵밭 일뢰중조님 불려도 인무불견이라 불려 봐도 대답 엇고, 앓아난 덜로 쳐다봐도 간간무례되었더라. 글로부떠는 할마님 앓아난 자리에 좋은 석상으로 대미리를 헐와. 앓일 디를 좌정헐였더니, 굿 잘 치는 신의성방 박씨할망 청혀여다. 두일뢰 열나흘 천변기도 대양청을 불리더라. 이 할마님이 상단궐 주당마다 꿈에 선몽을 시기기를, “나는 옥황에 올라갔다 느려왔닥 흘 테오니, 눈에 비카부댕이랑 생각지 말라.” 그런 선몽을 다 집집마다 시겼더라.¹⁷⁷⁾

(굴묵밭 일뢰중저님! 불려도 人無不見이라. 불려 봐도 대답 없고, 앓았던 곳으로 쳐다봐도 간데 온데 없이 없어졌더라. 그로부터는 할마님 앓았던 자리에 좋은 石床으로 만들어와서 앓을 곳에 좌정하였더니, 굿 잘 하는 신의성방 박씨할망 청해다가 두 이레, 열나흘 天變祈禱 대양을 치며 굿을 하며 불렀더라. 이 할마님이 상단궐 주당마다 꿈에 현몽을 하기를, “나는 옥황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테니, 눈에 보일까 생각하지 말라.” 그런 현몽을 다 집집마다 주었더라.)

나) 동복에 부락이 엇일 때, 동복의 와서 굴묵밭디 살면서 마을을 설촌하고 아이덜 녀도 들이명 살다 죽었는디, 죽으명 말씀헐뉘, “내가 죽거들랑 남녀구별을 몰라 죽엄시니 신당으로 위헐라. 그레민 인간번성 육축번성 오곡풍등 만물번성 시겨주마.” 하여 위헐는 신당입네다.¹⁷⁸⁾

(동복에 부락이 없을 때, 동복에 와서 굴묵밭에 살면서 마을을 설촌하고 아이들 녀도 들이면서 살다 죽었는데, 죽으면서 말씀하되, “내가 죽거든 남녀구

177)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385쪽.

178)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546쪽

별을 몰라서 죽었으니 신당으로 위하라. 그러면 인간번성 육축번성 오곡풍등
만물번성 시켜주마. 하여 위하는 신당입니다.)

위의 자료는 구좌읍 동복리 굴묵밭할마님 본풀이 내용이다. 굴묵밭할마님은 동복 마을을 설립한 인물이며, 신의성방이다. 가)는 진성기 자료로 굴묵밭할마님이 마을에서 심방일을 하던 인물로 죽어서 당신화하고 있다. 굴묵밭할마님께 기원하러 온 자손이 불러봐도 대답이 없으니 굿을 잘하는 박씨할망을 빌어다가 굴묵밭할마님을 오십사 청하니 내려오라서 저승과 이승을 오가니 바쁘기도 하여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 당을 메어오던 박씨할망이 죽을 때가 되니 그의 소미에게 무구를 물려주며 당을 잘 지키고 굴묵밭할마님을 위하라고 전한다.

나) 현용준 자료로 굴묵밭할마님의 또다른 자료이다. 동복 마을에 와서 살면서 아이들 낳을 들였다는 것을 보니 삼승할망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삼승할망이 죽으면서 자신을 당신으로 받아들여주면 풍요를 안겨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위의 동복 본향에 좌정한 굴묵밭할마님은 심방이면서 삼승할망의 역할까지 하는 인물이다. 이들은 본향당을 모시던 신의성방으로 인신이 된 경우이다. 다만 처녀당 신의 경우처럼 억울한 죽음을 겪지 않았을 뿐이다. 동복 굴묵밭할마님처럼 심방이 신격화하여 당신으로 좌정하는 일은 호근이무루 요드렛당이나, 현씨일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방은 신과 신앙민을 이어주는 매개자로서 신격화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4) 개별적 의례화

제주도 처녀신은 생산 풍요의 여성 직능에서 더 확장적인 모습을 보이고, 개별적으로 기원하는 의례의 형식을 띤다.

처녀당은 억울하게 죽은 여성을 신으로 모시고, 풍요를 관장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직능이 확장되고 있다. 생업 수호신, 산육·피부병, 치병, 승진·입시, 생산·물고·호적의 기능까지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직능은 제주 당신본풀이에서 여성신이 차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직능이다.

처녀신의 직능이 다양해지고 확장되는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민이 필요한 신앙이 보태지면서 변화하게 된다. 마라도 허씨 아기업게당은 어부와 해녀들이 다니는 생업 수호신에서 산육과 피부병의 직능인 일뤼할망의 신격이 덧보태진다. 그 위에 마을 사람들이 집안의 모든 일을 기원하게 되면서 본향신격처럼 관념하게 되는 것이다. 볼레낭 박씨할망당도 마라도 아기업게당처럼 직능이 확장되고 있다.

제보자: 메 행 강 올리곡, 메 3개. 옆엔 토지지관, 아래 층거리 이신단 서낭.

볼레낭 할망신디 왜 남자 심방은 못가느냐 여자 심방만 가주.

채록자: 그 당엔 볼레낭 할망당에 허물이나 부스럼이 많어나수과?

제보자: 응. 아니 가민 부스럼도 불려주고, 눈아피도 불려주고

채록자: 볼레낭 할망당에 안가서 제일 많이 주는 흥힘도 뭐마씨?

제보자: 아이 가민 눈아피.

채록자: 볼레낭 할망당에 가는 사람들은 애기들 아파도 가고?

제보자: 응. 애기들 때문에도 가고,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 잘되게 해줍센 허 영 역볼로 출령도 가고, 배 타는 바당에 가는 사람도 가고, 해녀들도 가고

(제보자: 메 가지고 가서 올리고, 메 3개, 볼레낭 할망 옆엔 토지지관, 아래층에 있는 곳엔 서낭. 볼레낭 할망한테 왜 남자 심방은 가지 못하느냐, 여자 심방만 가지.

채록자: 그 당에는 볼레낭 할망당에 허물이나 부스럼을 주는 일이 많았어요?

제보자: 응. 당에 가지 않으면 부스럼도 불려주고, 안질도 불려주고

채록자: 볼레낭 할망당에 가지 않으면 제일 많이 주는 흥힘은 뭐예요?

제보자: 가지 않으면 안질.

채록자: 볼레낭 할망당에 가는 사람들은 아이들 아파도 가고?

제보자: 응. 아이들 때문에도 가고,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 잘되게 해주십사 해서 일부러 차려서 가고, 배 타는, 바다에 가는 사람도 다니고, 해녀들도 다니고)¹⁷⁹⁾

볼레낭 할망당은 안질과 허물이 주요 직능인 일뤼할망이었지만 이 당에는 토지신인 대방황수당과 서낭신이 함께 좌정하게 되었고, 생업 수호와 본향의 직능이 덧

179) 2023년 5월 23일 조천읍 함덕리 김순아 심방과의 인터뷰 내용.

보태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 처녀신은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기능을 지니게 된다. 일상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결핍에 따른 안전과 풍요의 요건 위주로 신격의 직능이 움직여 가는 것이다. 아이의 건강과 농업·어업 또는 상업까지도 모두 수용하는 신앙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제주 여신당이 위의 마라도 아기업게당이나 볼레낭 할망당의 경우처럼 생업 수호에서 일렛당으로 변화되고, 그 위에 본향당의 직능까지의 변화 추세를 보인다. 이처럼 변화하는 당신앙의 양상은 여성성의 강화와도 연관된다. 특히 생업 수호와 관련된 해안쪽에 위치한 당일수록 더 활발하게 변화된 양상을 보인다. 당신앙의 주 신앙민인 여성들의 생활화에 따른 변화이다. 여성들은 생업과 육아가 기원의 주요한 핵심이다. 여성들의 핵심 기원을 위하여 당을 자주 찾고, 비는 형태로 반복과 일상에 의한 습관은 여성 신앙을 강화하게 한다.

여성 신이 풍농·풍어와 관련하여 생산성을 기원하는 공동체 신앙이 보편적이라면 제주도는 여성 신앙은 개별적으로 당에 가서 기원하는 비념 형태로 이루어진다. 토산요드렛당이나 토산 일렛당처럼 요드렛당, 일렛당 형태의 신격이지만 마을 신앙민들이 본향으로 인식하며 정기적 형태의 의례를 지내기도 한다. 하지만 제주도 처녀당은 당신으로 좌정하지만 마을 당곳의 형태와 같은 의례는 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기원할 일이 생길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찾아가고, 비념 형식으로 의례를 행한다. 처녀신 당에 갈 때는 개인이 소략하게 제물을 준비하고 가서 조용히 빌기도 하고, 심방과 동행하여 산받고 액을 막는 형식으로 기원하기도 한다.

위에 언급했던 마라도 아기업게당이나, 볼레낭 박씨할망당의 경우에도 본향과 같이 생각하며 기원하지만 당곳을 하지 않고, 개인별로 각자 찾아가서 의례를 드린다.

처녀당신 본풀이 중 조천읍 신흥리 볼레낭 박씨할망과 표선면 토산리 요드레한집은 왜구에 의한 유린에 따른 죽음, 흉험, 제향의 구조를 보인다. 두 본풀이의 직능은 치병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여기에 토산 요드레한집은 액막이가 추가된다. 두 본풀이의 신격에 따른 분화 양상은 다른데 보래낭당은 처녀신임에도 불구하고 본향신과 함께 좌정하여 본향당처럼 의례를 행하다가 지금은 당제가 사라진 상태이다. 토산 요드레한집은 사신으로 제주에 널리 퍼져 있는 요드렛당의 기초가 되는 당으로 남제주군을 중심으로 확장 분파된 양상을 보인다. 현재 토산2

리에서 행해지는 이 당은 해녀들이 주로 다니고 있다.

여신들은 당신앙에서도 공동체적인 무사안녕 같은 기원보다 개별적인 기능을 주로 한다. 공동체의 기원보다 개인적인 기원의 기능이 더 강하다. 그리고, 관청과 관련된 된 진안할망당 같은 경우에는 그 내력을 보면, 공동체와 관련된 내력을 가지고 있다. 불래낭할망당 경우에도 공동체에 관련된 마을 전체의 생업 풍요, 무사안녕을 비는 것보다 개별 신앙민들의 기원과 관련된 사항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다. 처녀당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으로 남자들이 가기에는 꺼끄러운 당이다. 억울한 처녀의 원한으로 인한 당이니 당에 가서도 번잡하게 의례를 지내지 않고 조용히 개인적인 비념 위주로 제사를 지낸다. 처녀당신의 경우에는 마라도 아기업거나 진안할망처럼 본향처럼 인식하며 공동체와 연관된 내력이 있다 하더라도 대개는 개별적으로 조용히 그렇게 의례가 진행되는 것으로 규정된다.

여성 신들은 당신앙에서도 공동체적인 특징이 있는 것보다 개별적인 기능이 강하다. 즉, 공동체의 기원보다 개인적인 기원의 기능이 더 강하다. 불래낭 할망당, 토산 알당은 각자 개인의 사정에 따른 비념을 한다. 마라도 아기업계당, 진안할망당 또한 공동체와 관련된 내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공동체의 기원에 따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기원의 대상이 된다. 당 신앙이 공동체와 연관된 내력이 있다고 해도 대개는 개별적으로 조용히 의례를 행한다.

5) 원초적 서사 확장의 가능성

제주 처녀당신 본풀이는 여성의 죽음과 신격화라는 요소가 중심이다. 제주 신화는 이러한 서사의 바탕에 더 확장된 신화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 죽음과 재생이라는 기본 서사에서 구송자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덧붙여지거나 변화되는 창출을 통해 원초적 서사로의 확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제주도에서 전해지는 <허궁애기본풀이>는 평범한 여성의 죽음과 재생, 이승과 저승의 넘나듦과 곱 가름의 서사로 구송자에 의해 창출된 신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본풀이에서 허궁애기라는 인물은 샤먼과 같은 존재로 처녀당신의 현씨일월, 조상신본풀이의 양씨아미처럼 심방이라는 역할에 따른 공유를 보인다.

김헌선은 <허궁애기본풀이>가 다채로운 변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담당층

이 갖는 창조성이 원인이라고 한다. 또한 제주 지역의 무속은 부담없이 다른 갈래의 소재 차용을 얘기하면서 무가의 형성과 생성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¹⁸⁰⁾

진성기 채록본 <허궁애기본풀이>의 서사는 널리 알려진 콩쥐팥쥐 민담과 허궁애기 이야기를 접목하고 있다. 이 서사에는 콩쥐팥쥐와 허궁애기라는 인물을 동일시하고 있다. 이 본풀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콩쥐가 죽음과 재생을 거치고 복수하는 서사로 일반적인 콩쥐팥쥐 민담 이야기다. 뒷부분은 이러한 민담 뒤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콩쥐와 동일시되는 허궁애기가 저승과 이승을 오가다가 저승과 이승의 곱을 가르는 서사가 붙는다. 이처럼 콩쥐팥쥐와 허궁애기의 결합양상 서사는 진성기 본이 유일하다. 다른 허궁애기 이야기와 다른 서사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김현선은 진성기가 채록한 강을생의 구연본이 대단히 긴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무녀라는 점을 들어 자료의 신뢰성을 강조하였다.

이 자료의 핵심적 화소는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면서 자신의 가족과 저승의 살림을 도맡아서 진행하던 특별한 존재가 이승 사람의 잘못으로 이승과 저승의 단절이 생기는 이야기다. 이 본풀이는 이승과 저승의 곱 가름에 관한 사연이 기술됨으로써 천지왕본풀이에 나오는 인간 세상의 규칙을 바로잡는 창세신화의 면모도 보인다.

다음은 <허궁애기본풀이>의 내용을 간략하게 나눈 것이다.¹⁸¹⁾

- ① 콩쥐가 어머니를 여의자 새어머니가 들어와서 팥쥐를 낳는다.
- ② 콩쥐는 계모의 구박으로 고난을 겪는다.
- ③ 소, 새, 까마귀의 도움으로 청의도령과 결혼한다.
- ④ 팥쥐가 콩쥐를 물에 빠뜨려 죽인다.
- ⑤ 콩쥐는 꽃과 구슬의 모습을 거친 후 재생한다.
- ⑥ 콩쥐는 팥쥐를 죽여 젓갈을 담아 계모에게 먹인다.
- ⑦ 콩쥐가 아이를 낳고 살다 염라왕의 부름을 받고 가게 된다.

180) 김현선, 「서사무가와 고소설의 서사구조 비교-〈허궁애기본풀이〉와〈콩쥐팥쥐전〉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교육논총』4,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42쪽.

181)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614-623쪽.

- ⑧ 허궁애기의 간청으로 밤엔 이승, 낮엔 저승을 오가게 된다.
- ⑨ 저승에 가지 않은 허궁애기는 시어머니로 인해 차사에게 혼을 뺏긴다.
- ⑩ 그 후로 인간이 죽으면 다시 오지 못하는 법이 생긴다.

위의 ①~⑦은 콩쥐팥쥐 내용이고, ⑧~⑩은 허궁애기 내용이다. 이 본풀이에서 콩쥐는 죽었다 재생한 자이다. 신화에서 여성은 죽음과 재생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신격화된다. 콩쥐는 신격화되기 전에 어머니의 혼정에 의한 돌봄을 받는다. 돌봄을 받는 과정에서 신화적 요소가 들어있다. 콩쥐가 죽음과 재생의 과정을 거치고 복수를 한다. 일반 콩쥐팥쥐 이야기는 여기까지의 서사가 결말부분이다. 하지만 허궁애기본풀이에서 이 다음에 허궁애기의 서사가 붙으면서 콩쥐와 허궁애기를 동일시하고 있다. 복수를 끝내고 아이를 낳은 허궁애기는 하늘 옥황의 부름을 받아 저승에 가게 되고, 이승과 저승을 곱 가르는 법을 마련하게 된다.

위 본풀이는 결혼한 여성의 죽음으로 처녀당신의 처녀의 죽음과는 다르다. 하지만 위 본풀이에서 여성의 억울한 죽음과 신격의 모습, 샤먼이라는 인물에 따른 서사는 처녀당신에서 여성의 억울한 죽음과 신격화, 심방의 성격을 지니는 본풀이와 유사하다.

<허궁애기본풀이>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첫째, 허궁애기본풀이에는 이승과 저승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허궁애기로 인해 하늘과 인간 세상의 곱 가름 법칙이 생긴다.

김헌선과 권태효는 <허궁애기본풀이>가 천지개벽 시의 상황이 설정되고 있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불분명하던 시기의 상황이 돋보이는 자료라고 한다. 허궁애기가 죽음으로 이승과 저승을 오가던 삶을 끝내며 혼돈을 정립하며 세사의 질서가 확립되는 의미 있는 신화임을 말하고 있다.¹⁸²⁾

<허궁애기본풀이>가 의례시 차사본풀이 뒤에서 구연되고 있으며,¹⁸³⁾ 까마귀와 적패지 화소와 연결되어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인간 죽음의 기원을 제시하는 신화

182) 김헌선, 「한국 구전서사시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연구』4, 1997, 380쪽; 권태효, 『최초의 죽음』, 지식의 날개, 2022, 200쪽.

183) 윤정귀, 「<허궁애기본풀이>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59쪽. 윤정귀는 오인숙 심방이 구연한 채록본에서 <허궁애기본풀이>는 아무 때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을 때 <귀양풀이>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차사본풀이>에 삽화적으로 끼어들어 있다고 하였다.

이다.¹⁸⁴⁾

가) 허웅애기 때문에 이승과 저승이 더 곱갈랐덴 허주게. 이제 사름이 귀신과 생인을 온다간다허당 허웅애기 때문에 저승과 이승이 백지 한 장으로 차이가 나난 생사름은 귀신을 보지 못하고 귀신은 생사름을 놀아 땡기명 본덴 허주게, 옛날엔 돌도 말을 한다, 낭도 말을 한다행 다 헤나신디, 허웅애기 때문에 다 말모르기가 되어부렸주.¹⁸⁵⁾

(허웅애기 때문에 이승과 저승이 더 나누어졌다고 하지. 이제 사람이 귀신과 생인을 오다 간다 하다가 허웅애기 때문에 저승과 이승이 백지 한 장으로 차이가 나니, 살아 있는 사람은 귀신을 보지 못하고 귀신은 살아 있는 사람을 놀아 다니며 본다고 한다. 옛날엔 돌도 말을 한다. 나무도 말을 한다 해서 다 했었는데, 허웅애기 때문에 다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지.)

나) 고.량.부 삼성 뭐 몇 사람 나오란 뭐 헨 때주게. 몇 사람 정도 나온 때이다. 그땐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아주 그저 뭐 이제 하늘에는 해도 두 개 이제 들도 두 개 그러면 낮이는 막 이제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고 그러히는 이제 시절이었던 7라. 이제 허웅아기라 헨 이제 그 허웅애기가 뭐 열다섯 살엔가, 무슨 옛날엔 아주 어린 때,¹⁸⁶⁾

(저 고.량.부 삼성 뭐 몇 사람 나와서 뭐 할 때다. 몇 사람 정도 나온 때이다. 그땐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아주 그저 뭐 이제 하늘에는 해도 두 개 이제 달도 두 개 그러면 낮에는 막 이제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고, 그렇게 하는 시절이었던 것 같아. 이제 허웅아기라 하는 이제 그 허웅애기가 뭐 열다섯 살엔가, 무슨 옛날엔 아주 어린 때)

위의 자료 중 가)는 조천읍 선흘리 부의함의 자료로 허웅애기로 인해 이승과 저승이 나누어졌음을 말한다. 허웅애기로 인해 살아 있는 사람은 귀신을 보지 못하고, 귀신은 사람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돌이나 나무, 짐승 같이 자연물들도 다 말을 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 허웅애기가 이승과 저승을 단절을 시켰기 때문에 서로

184) 정제호, 「<허웅애기본풀이>에 나타난 ‘선의의 악인’과 저승관의 의미」, 『구비문학연구』44, . 2017, 115쪽.

185) 제주대학교 국어교육연구회, 『백록어문』 10, 1994, 153쪽.

186)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639쪽.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나)는 안덕면 덕수리 윤추월의 자료로 <천지왕본풀이>의 내용 중 원초적 신화의 모습이 보인다. 세상에 해와 달이 두 개씩 있어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하는 세상이고, 사람과 귀신이 오가는 때로 소별왕과 대별왕이 질서를 잡기 전 창세신화의 모습을 보인다.

둘째, 허궁애기는 하늘 옥황에서 선택된 자이고, 저승과 이승을 넘나들 수 있는 인물로 샤먼의 성격을 지닌다.

콩쥐의 고난 극복 방식에서 신화적 모습을 볼 수 있고, 신화적 요소는 콩쥐를 특별한 인물로 만드는 장치적 역할을 한다. 즉, 콩쥐를 둘러싼 신화적 장치들은 신성성의 인물로 형상화한다. 콩쥐를 도와주는 소와 새, 까마귀의 역할에서 소의 죽음에 따른 처리에서 의례의 형태를 볼 수 있다. 소가 팔쥐의 삼을 뽑아주는 대목에서 똥을 싸는 바람에 죽는다. 소가 죽기 전에 콩쥐에게 자기의 살은 팔쥐 모녀가 먹을 것이고, 콩쥐에게는 뼈와 국물만 얻게 될 것이니 뼈는 청대밭에 국물은 찬장 밑에 버리라고 한다. 이 부분은 소의 재생을 위한 행위이다.¹⁸⁷⁾ 나중에 콩쥐가 굶구경 갈 때 청대밭에 버렸던 뼈는 옷과 신발로 찬장 밑에 버렸던 국물은 탄머리로 재생한다. 이처럼 제주 허궁애기 서사에 신화적 색채가 짙게 가미된다. 소의 희생은 콩쥐와 정의도령의 만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로 콩쥐가 결혼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또한 이 본풀이는 소의 죽음이 옷과 타래로 재생되고, 콩쥐의 죽음이 꽃의 재생, 한단계 더 나아가 재탄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신화이다.

진성기본에서 콩쥐는 아이를 낳고서 허궁애기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저승에 부름을 받고 가게 된다. 그로 인해 허궁애기는 저승과 이승을 오갈 수 있는 인물이 되고 있다. 허궁애기가 신직으로 좌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승과 이승이라는 공간을 오고 갈 수 있었던 시대에서 이승과 저승의 단절이라는 질서를 잡는 인물이다. 이승의 낮과 밤, 저승의 낮과 밤을 번갈아 오가는 존재자가 허궁애기이다. 허궁애기가 이승과 저승을 오가게 된 것은 옥황상제의 허락에 의한 것이다. 이승과 저승 출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일이 가능하다는 자체만으로 특별한 인물임이 드러난다.

187) 김현선·김희선, 「제주 민담 <손 없는 색시>의 심층심리학적 해석: 채순화 구연 <배나무 배조주 똥> 각편을 예증삼아」, 『탐라문화』 7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22, 21쪽. 재생과 재탄생을 구분하고 있으며, 재생(reincarnation)의 과정을 거쳐서 극복된 형태로 재탄생(rebirth)이라고 말한다.

허궁애기처럼 저승 출입, 샤먼의 역할을 보이는 여성으로 바리공주를 들 수 있다. 바리공주는 죽음 인도신이며 샤먼의 기능도 함께 지닌다.¹⁸⁸⁾ 허궁애기 또한 입무자와 같은 인물로 이승과 저승을 오갈 수 있도록 신에게 선택된 자이다. 허궁애기는 아이들을 놔두고 저승으로 가게 된다. 이는 허궁애기가 바랐던 일은 아니다. 허궁애기는 아이들을 보러 저승에서 내려왔으나 시어머니로 인해 저승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처럼 허궁애의 억울한 죽음과 샤먼적 성격은 바리공주와 유사하다. 바리공주는 가족과 결별하고 저승여행을 하면서 만신의 몸주로 등극하게 된다. 김헌선과 김희선은 바리데기의 고난이 무병을 앓는 사례자의 체험과 같다고 할 수 있고, 신체가 절단되는 고통을 극복하고 저승여행을 통해서 복귀하는 이야기로 새로운 존재로의 전환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처녀당신 또한 무병의 사례처럼 극심한 고통을 극복하고 신으로 재생하는 현씨일월, 조상신의 양씨아미와도 서사를 공유할 수 있다.

제주도 처녀당신의 특징을 통해 여성 중심적 신앙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처녀의 원혼만이 신으로 좌정하고 있으며, 이 신들이 좌정한 당은 개별적으로 다니는 공간이다. 또한 여성이라는 원초적 가능성을 함의하고 있다. 이에 처녀당신은 여성 중심 신앙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188) 권태효, 『최초의 죽음』, 지식의 날개, 2022, 208쪽.

V. 신격화의 요인과 신앙의 의미

제주도 당신본풀이 중 처녀당신의 평범한 여성으로 억울한 죽음을 겪고 신격으로 좌정한다. 처녀당신은 무업의 팔자를 피해 집을 떠났으나 결국 운명에 굴복하게 되는 이씨 할망, 타고난 심방 팔자에 순응하려 하지만 실패와 좌절을 겪고 죽은 현씨일월, 신분차이로 이루지 못한 사랑에 목숨을 버린 오씨 아미, 겁탈에 저항하지 못하고 죽은 박씨할망,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제물로 바쳐지는 진안할망과 아기 업게이다.

처녀당신에서 죽음을 겪은 처녀들은 나약한 하층의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들이 신격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장에서는 보통의 여성들이 신격화되는 요인을 억울한 죽음, 여성신의 직능과 신앙민의 관계성에 있음을 알고 다룬다. 또한 버려지고 희생되는 존재에 대해 공동체가 나서서 제향해야 무탈하다는 신관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평범한 여성들이 신격화가 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여성 신에 대한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룬다. 처녀당신에서 여성 죽음에 누가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주체가 결정된다. 즉 죽음에 있어서 가해자와 처녀당신과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신앙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 신격화의 과정

통과의례를 거치지 못하고 자살 또는 타살을 당한 원혼은 원한의 강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마을신으로 좌정시켜, 그 원혼을 달래주고 수호신으로 받든다. 원혼을 신격화하는 경우는 남성과 여성 모두 존재한다. 남성의 경우는 장군이 많고, 실제 인물이 죽어서 신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장군들은 민중의 소망을 실현시켜 주는 영웅으로서 풍어의 직능을 맡는다. 여성은 평범한 인물로 남성에 의한 결핍으로 인해 자살하여 신격화되는 경우가 많다.

인물의 신격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몇몇 연구자에 의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표인주는 억울한 원혼의 흥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 신으로 제향한다고 하였고, 이승

철은 처녀 원혼은 해상의 안전과 풍어를 책임지는 신으로 여기며 그들이 주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 신으로 좌정시킨다고 하였다.¹⁸⁹⁾

서종원은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신격화되는 요인에 대하여 언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인하는 차원의 논의를 펼쳤다.¹⁹⁰⁾ 아쉽게도 단종·남이·최영·임경업 등 장군들의 사례를 들어 논의를 펼치고 있어서 여성 원혼의 신격화 양상과는 차별점이 보인다.

김효경은 원혼은 정상적인 죽음을 겪지 못한 원혼들이며, 이러한 원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원혼이 해원되면서 오히려 그들을 돕는 선한 신령으로 탈바꿈한다는 관념에 기초하여 집단적으로 해원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⁹¹⁾

이처럼 원혼의 신격화 요인을 두려움에 의한 것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억울한 죽음을 겪은 인물은 강한 원혼으로 사람들에게 휴험을 주기 때문에 원혼을 대접하며 재앙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원혼을 신으로 모셔 제향하면 원혼의 요구사항이 해결되는 것이며 재앙도 사라진다고 한다.

제주도 처녀당신 또한 여성이 억울한 죽음을 겪고 신앙민에게 휴험을 주는 경우가 많다. 신앙민은 두려운 마음에 여성을 신으로 모시기도 한다. 하지만 두려움과 휴험이 신격화되는 요인의 전부는 아니다. 처녀당신의 서사에 휴험이 없는 여성들도 신으로 좌정하고 있다. 휴험은 분노를 표출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일 뿐이고 휴험은 신들의 직능과도 연결할 수 있다. 신앙민들은 자신들에게 생긴 병이 신의 의지라고 생각하는 관념에 기인하여 그 병의 치료를 위해 신을 찾는다. 이러한 면에는 신앙에 기대고자 하는 신앙민의 의식이 존재한다.

이 논문은 원혼의 발생 동기와 해원 방식에 주목한다. 앞서 여성들의 억울한 죽음에 따른 요인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처녀당신의 직능과 성격으로 신앙민들과의 관계성을 살폈다.

제주 처녀당신의 죽음 양상은 다양하지만 그들이 신격화하는 요건은 양상과 관

189) 표인주, 『공동체신앙과 당신화연구』, 집문당, 1996, 209쪽; 이승철, 『동해안 어촌 당신화 연구』, 민속원, 2004, 154쪽.

190) 서종원, 「실존인물의 신격화 배경에 관한 주요 원인 고찰」, 『중앙민속학』,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2009, 99-100쪽.

191) 김효경, 「한국 마을신앙의 인물신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66쪽.

계없이 동일하다. 평범한 여성이 신격화되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논의하려고 한다. 첫째, 죽으면 신이 될 수 있다는 관념이 들어있다. 죽음을 겪은 자들이 신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죽음은 이들이 신이 되는데 있어 통과의례와 같다. 죽은 이들은 제사를 받지 못하는 처지의 원혼이기 때문에 흉험을 주며 자신을 알아달라고 한다. 그들의 요구에 따라 신앙민은 제향하며 흉험을 피하려고 한다. 둘째, 신앙민은 여성들의 고통에 따른 죽음에 공감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이다. 고통을 겪고 죽은 자들은 상처 입은 치료자이다. 또한 상처 입은 단골들이 이들에게 가서 위안을 받는다. 이와 같은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처녀당신의 신격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처녀당신처럼 죽어서 신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두려움이라는 기제가 작용한다는 논의들이 많았다. 그 두려움에는 억울한 죽음이라는 요소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서는 두려움만이 신이 되는 조건이 아니며, 그 외에 다른 요인들이 있다는 점을 밝히며 그동안 단편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에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1) 억울한 죽음

본문에서 논의하는 사항은 원초적 신관념인 모든 것이 죽고 재생된다는 관념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동·식물의 죽음과 재생이라는 순환성, 여성의 죽음이 곡물이 되는 생산성, 사람의 죽음이 개인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수호신이 되는 것들을 통해 죽음이 갖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죽음은 신으로 가는 통과의례의 단계이다. 통과의례는 부활과 영혼 재생 의례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비록 영혼은 이승을 떠나서 저승으로 통합되었으나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의 힘으로 저승에서 이승으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⁹²⁾ 이와 관련하여 죽음과 재생을 다음과 같이 관념할 수 있다. 동물과 식물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순환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하이누웰레는 죽은 후 곡물신이 되고,¹⁹³⁾ 자청비는 하늘로 올라가서 농경

192) 반겐넵 저·전경수 옮김,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85, 231쪽.

193) 김혜정, 「신화학의 고전:<하이누웰레 신화>」, 『시민인문학』28,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신이 되고, 쯤지맹왕아기씨는 당주집을 지키는 신이 된다. 이처럼 죽음을 겪고 신으로 좌정하는 경우는 보편적이다.

고대 신화는 산신, 수신 등 자연물에 인격성과 성적 특질을 결부시켰다. 애니미즘, 토테미즘처럼 주변의 동·식물과 자연이 신앙대상이었듯이 주변 인간의 죽음도 신앙 대상으로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평범한 인간의 죽음도 신성화된다. 이처럼 처녀당신은 죽으면 신이 될 수 있다는 속성을 지닌다.

무속에서는 흔히 억울하게 죽은 영웅들이 신으로 신앙되기도 한다. 임경업 장군이나 최영 장군 등이 신격화되고 있다. 임경업 장군은 서해안 여러 어촌에서, 최영 장군은 개성 덕물산과 추자도 등에서 당신으로 좌정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실존 인물이지만 억울한 죽음으로 생을 마친 인물들이다. 임경업 장군은 역모와 관련하여 옥사를 당하기도 한 인물로 내륙과 해안지역에서 마을신으로 모셔지고 있다. 그는 서해안 일대에서 조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그가 이 지역의 생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풍어의 기능도 지니고 있다.

최영은 고려 후기의 무신으로 실존 인물신 중에서 가장 다양한 형태로 모셔지는 인물이다. 최영은 덕물산 인근의 내륙 지역, 추자도, 남해안 일대, 그의 출생지라 할 수 있는 충남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 등에서 마을신으로 모셔져 있다. 최영 장군은 보호의 신이기도 하고, 어망편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신으로 모셔진 것이다. 최영이 왜적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장수로서의 능력 뿐만 아니라, 생업신으로서의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외에도 어촌계 여성 신격 중에는 바닷가에서 비정상적으로 죽은 이후에 신격으로 모셔진 경우가 많다. 이는 흥어와 해상 사고 후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모셔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남성성의 결핍을 가지고 죽은 여성신격은 그 결핍의 증거로 자신이 좌정할 마을에 흥어와 인명사고라는 재앙을 내림으로써 자신의 힘을 과시한다.

제사를 지내 줄 후손이 없이 죽었을 때, 마을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지연적인 후손을 획득하게 되고, 당신으로 제향을 받는다. 제사를 지내 줄 후손도 없고, 소속

2005, 246쪽. 하이누엘레 신화는 인간과 코코넛 야자 꽃의 결합으로 태어난 하이누엘레라는 소녀가 인간에게 살해되고, 그녀의 사체로부터 여러 가지 구근식물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구근식물 기원신화이다.

도 확실하지 않은 영혼일지라도 마을의 당신으로 좌정하기도 한다. 당신으로 좌정하게 된 동기는 이들의 행위에 대한 보답에서 출발한다.

비정상적인 죽음은 공포감을 자아낸다. 조선시대 여제의 대상인 무사귀신은 불행하게 죽은 자들이다. 이들은 좋은 죽음을 얻지 못한 자이자 제사를 받지 못하고 의탁할 곳 없는 존재이다. 후손 없이 죽은 자의 문제는 위험을 뜻하는 ‘여(厲)’의 논의에서 이들은 산 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었고, 이들에게 적절한 제사를 함으로써 위험을 해소한다고 인식한다는 의미의 여제를 행하였다.¹⁹⁴⁾

‘원혼’은 정상적으로 죽은 영혼보다 원한이 깊기에 ‘해원(解冤)’이 쉽지 않은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들은 귀신이 되어서 공중에 떠돌면서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한국의 무속 신앙은 이 관념을 바탕으로 하여 ‘원혼’의 위해를 막고자 조상이 원혼이 되지 않을 길을 택하였다. 자손이 없어 아무런 제향을 받지 못하는 존재들을 ‘조상 맺음’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제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무속 신앙 관념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해 왔으며, 제주도 조상신 의례 양상과 유사성을 보이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류진옥은 ‘맺은 조상’은 그 내력담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자손과의 ‘조상 맺음’을 통하여 ‘조상의 자격을 획득’한다고 하였다. 조상의 자격을 얻어 집안의 기제사와 명절 제사에 제향을 받는 존재가 되면서 원혼은 더이상 위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고 조상의 번성을 약속하는 조상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¹⁹⁵⁾

처녀당신에서 여성의 죽음은 혼사장애를 겪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결혼을 했으나 자식이 없거나, 처녀의 몸으로 사건을 겪어서 죽게 되는 제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의 죽음이다. 이러한 죽음은 원혼이 되어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고통감을 만든다. 처녀신의 본풀이에서도 억울한 죽음을 겪고 복수를 하거나, 흥함을 주기도 한다. 이처럼 예로부터 제사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제향을 해야한다는 관념이 있었다. 처녀신에서 억울한 죽음에 따른 두려움이 신격화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194) 김유리, 「조선시대 여제 설행과 무사귀신의 문제」, 『역사민속학』 50, 한국역사민속학회, 2016, 77쪽

195) 류진옥, 「제주도 조상신 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32쪽.

제주도 당신 중에 여신의 직능으로는 산육과 치병, 생업 수호, 기자, 승진 및 시험이다. 처녀당신의 직능도 이와 일치한다. 조동일은 서사시는 세 단계로 전개된다고 한다. 그는 처음에 신앙서사시 또는 창세서사시가 있고, 다음이 영웅서사시 또는 건국서사시가 있고, 그다음에 예사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일상적인 관심사를 다루는 범인서사시 또는 생활서사시가 있다고 말한다.¹⁹⁶⁾ 제주도 당본풀이에는 신앙서사시, 영웅서사시, 생활서사시 유형이 두루 분포한다. 처녀당신도 또한 이와 같다.

허남춘은 제주도 본풀이 속에 원시에서 고대로 변모하는 과정의 것도 있고, 고대에서 중세로 변모하는 시기의 것도 있고, 근대 이행기적 특성을 담은 것도 있다고 한다.¹⁹⁷⁾ 즉 서사시는 중층적이면서 복합적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처녀당신 본풀이는 이처럼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서사를 지닌다. 이 본풀이의 생활서사시 속에 고대적 현상이 있기도 하고, 영웅서사시의 모습도 있다.

수산 진안할망당과, 마라도 아기업게당 본풀이에는 역사적 사건과 생활환경의 문제를 담고 있는 생활서사시에 인신공희라는 원시적인 신앙 형태가 녹아들어 있다. 토산 알당 본풀이에서 으드레한집은 바다의 생업을 관장하는 여성 여웅의 모습과, 왜구의 겁탈이라는 역사적 사건까지 보태지고 있다. 처녀당신 본풀이에서 무책임한 남성이나 외부적 강압으로 수탈을 당해 온 힘없는 여인들의 모습과, 사회체제를 비롯한 여러 억압에 대한 사회 고발적인 면을 볼 수 있다.

2) 고통 공감 정서

당신양에서 주요한 요소는 신앙민이다. 신이 좌정하여도 아무도 제항하지 않으니 직접 단골을 정한다. 단골은 심방일 수도 있고,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일 수 있다. 신이 단골을 직접 찾아가는 것처럼 신앙민과 신의 관계는 중요하다. 신과 신앙민의 소통은 신앙 형성의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여성 당신은 대부분 흥함을 주거나, 직능을 표출하며 존재를 내보인다. 신앙민은 이런 적극적 표출에 대한 응답으로 제

196)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34-35쪽.

197)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의 원시·고대·중세 서사시적 특징과 변모』, 『도남학회』 23, 도남학회, 2011, 10쪽.

향을 한다. 처녀당신 또한 처녀당신은 죽음을 겪은 여성으로 신앙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신으로 좌정한다.

처녀당은 고통받았던 여성과 고통받는 여성이 함께하는 공간이다. 신과 신앙민의 치유와 관련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남을 겪는 것, 그것이 상처받은 치유자 원형이다. 사람들이 상처를 겪으면서 죽고, 재생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처녀당신은 질병을 주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어 서로 관계를 맺게 한다. 이러한 질병은 신과 신앙민이 서로의 존재를 연결해주는 요소이며 치유로 전환된다.

[표기] 가해자와 신앙민의 관계

신명	죽음의 가해자	질병	신앙민
호근이 ¹ 무루 ² 드레 ³ 이 ⁴ 씨할망	오좌수 아들	치병(신병)	오씨 집안
현씨일월	자살	치병(신병)	현씨 집안
골르락당 오씨아미	향교 사람들	-	향교 사람들
볼레낭 박씨할망	왜구	치병(안질, 피부병)	여성
토산오드레한집	왜구	치병(신병)	여성
마라도 허씨 아기업게	생업 공동체	치병(안질, 피부병)	생업 공동체
진안할망	마을 공동체	-	마을 공동체

[표기]에서 보면 왜구에 의한 죽음 외에 가해자가 결국엔 여성들을 모시는 이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데에는 질병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오씨아미와 진안할망을 제외한 여성들은 병의라는 수단을 이용해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신병을 일으키게 하여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거나, 심지어 화재를 일으키며 강하게 억울함을 표하기도 한다. 이들이 일으키는 질병을 통해 신앙민들이 여성신을 제향하며 상처를 치료한다. 위의 표에는 현실적인 치병으로의 치유만 나타나지만 신앙민들의 정신적 치유 또한 함께 이루어진다.

해원과 상생, 공동체가 서로 사는 것, 사자가 치유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것이다.¹⁹⁸⁾ 상처 입은 자가 병을 고친다는 말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치료자가 먼저 병고를 겪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병을 겪은 자가 겪지 않은 자보다 병을 잘 이해하여 잘 고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¹⁹⁹⁾ 여기에서 처녀당신은 죽음을 겪은

198) 김현선, 『제주도 큰심방 이중춘의 삶과 제주도 큰굿』, 민속원, 2013, 101쪽.

자로 상처 입은 자에 속한다. 또한 상처입은 자로 병을 치료하는 인물로 샤먼을 들기도 한다. 위의 [표기]에서 보듯이 죽음을 겪은 처녀당신은 신앙민들에게 치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한다.

처녀당신은 본향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있어서 이 신들은 삶과 죽음을 다룬다. 그렇다고 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은 아니다. 태어난 이를 호적에 올려 삶이 지속되고, 죽음에 이른 이를 차사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삶과 죽음에 개입하는 자이기도 하다.

이처럼 강하고, 포용적인 여성의 모습은 처녀당신에서도 찾을 수 있다. 처녀당신과 신앙민이 서로 신앙 합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신앙민이 죽은 여성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이다. 처녀당신은 신앙민들 주위에 있는 여성이고, 그들 자신이고, 우리이다. 따라서 자신과 같은 여성의 고통에 공감하고, 존재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교감이 이루어진다.

고통 공감 외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인물들을 신격화하는 데는 동질감도 작용한다. 동질감은 서로 비슷한 처지의 고통을 안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게 한다.

당신앙에서 신앙민의 주체는 여성이다. 하지만 기원의 대상은 신에게 비는 신앙민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다. 남편, 즉 대주가 먼저이다. 남자 어른 중심이고, 여성 신앙민들은 당에 가서 앉아 있지만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다. 물론 잠수굿이나 영등굿을 할 때는 예외이다. 이 굿의 기원 대상이 생업의 주체인 해녀들이기 때문에 그녀들을 위한 굿이다. 이 외에 당에서는 자신이 아닌 가족을 위해서 빈다.

처녀당신이 제향 받을 수 있는 이유도 신앙민들이 감정적인 자아화 및 공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신앙민은 정성으로 신을 찾는다. 자식과 가족에 관한 정성이 깃든 마음은 소지를 가슴에 품는 행위와 같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소.’ 라는 간절한 기도와 같다. 당에 다니는 신앙민들은 대체로 여성들이며 결혼 후에 당에 다니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이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 과정을 아픔을 가진 처녀당신에게 가서 자신의 고통을 빌고 치유 받고 온다.

샤머니즘에서는 죽음과 죽음으로 인한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는 현상에 관한 형이상학적·심리학적 해석이론보다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처

199) 이부영,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도서출판 한길사, 2012, 595쪽.

리하느냐에 주의를 기울인다. 샤먼은 이론가이기 전에 ‘치료자’이다.²⁰⁰⁾ 영산은 남녀 모두 비명으로 변사하거나 횡사 또는 원통하게 죽은 자의 원령이며, 남영산과 여영산을 비롯하여 수많은 영산이 있으며, 이들 모두가 부정한 악령이며 소위 원귀도 역시 이 부류에 속한다.²⁰¹⁾ 영산에서 중요한 것은 원한이다. 이러한 원한은 억울한 죽음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원한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요구를 표출한다. 그런 표출과 요구에 따른 성취는 원한을 해소하게 한다. 자신을 제향해주기를 바라는 원혼은 신격화를 통해 고통이 치유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처녀당신 또한 고통을 치유한 신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치유방식은 샤먼의 입무방식과 유사하고, 고통과 고난을 겪고 통과한 자는 치료자가 되는 것이다.

샤먼은 고통을 겪고 죽음과 재탄생을 겪으며 고통이 치유된다. 시베리아 샤마니즘에서의 입문에는 혹독한 규칙을 지켜야하고, 동물 모습을 한 영신들에게 자기 육신을 먹이로 내맡긴다. 이처럼 자기 육신의 해체를 통해서만 성취되고, 이는 죽음과 재생이라는 입무의례 양식을 포함하고 있다.²⁰²⁾

고통이 치유된 자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 신앙민들은 고통을 겪은 여성 신을 찾아가서 자신의 고통을 내보인다. 그들이 처한 고통과, 질병, 흉험을 신과 대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고통을 이겨낸 자와 고통을 겪고 있는 자의 깊은 대면을 통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료할 수 있다.

처녀당신에서 여성은 타인에 의한 고통으로 죽음을 겪는다. 굴르락당의 오씨아미는 향교 사람으로 인해, 호근이무루 으드렛당의 이씨할망은 오좌수 아들로 인해, 볼래낭 박씨할망과 토산한집은 내부의 약함과 왜구로 인해, 진안할망은 마을 공동체로, 마라도 허씨 아기업게는 해녀 공동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죽음을 맞이한다. 하지만 이 여성 신들은 오씨아미는 향교 사람들을 수호하고, 이씨할망은 오씨 집안을 수호하는 조상으로, 진안할망과 아기업게는 마을 공동체와 해녀 공동체를 돌보는 신으로 좌정한다. 이처럼 처녀당신은 고통을 극복하고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이들을 치유하며 ‘상처입은 치유자’가 된다.

200) 이부영,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도서출판 한길사, 1976, 421쪽.

201) 赤松智城·秋葉隆, 심우성 역, 『朝鮮巫俗의 研究(下)』, 동문선, 1991, 111쪽.

202) 미르치아 엘리아데 저·이윤기 옮김, 『샤머니즘』, 1992, 115쪽.

2. 신앙의 의미

원한을 풀어주는 장치는 공동체신앙의 제의이며, 굿은 해원을 위한 장치이다.²⁰³⁾ 마을 공동체는 억울하게 희생된 처녀에 대한 제의를 지내면서 마을 문제 해결에 대한 회피의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상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또한 원혼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함께 공존한다.

처녀당신의 경우에 왜구에 의해 유린당한 경우도 있고, 인신공희로 희생되기도 한다. 왜구에 의해 유린당한 볼래낭 박씨할망, 토산 으드레한집의 경우는 외부적으로 가해를 당하면서 내부적 위안을 받고 있다. 입무 실패로 죽는 호근이무루 으드렛당과 현씨일월, 제물로 바쳐지는 공희로 마라도 허씨 아기엽게와 진안할망당은 개별적으로 가해를 받고 공동체에서 위안을 받는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서로 위안을 주고받음에 대해서 살펴본다.

왜구의 출몰로 여성들이 겁간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역사적 사건과 연결시켜 보면 내부적인 문제를 외부적인 문제로 돌려버리는 경향이 있다. 왜구의 겁간이 문제가 되는 볼래낭 박씨할망이나 토산 으드레한집의 경우가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 내부의 문제가 있었고 그 위에 외부적인 문제가 덧씌워지는 상황에 대하여 공동체의 책임회피를 볼 수 있다.

처녀당신의 신 같은 경우는 억울하게 죽은 존재로 상처 입은 존재이며 신앙민들도 거의 같은 처지일 것이다. 처지를 교감할 수 있는 신격과 인간의 만남이다. 위안을 주고 위안을 받기도 한다.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대등해지는 일면이 있다. 신앙민이 처녀당신을 제향하는 것은 억울하게 죽은 신을 위무해 주기도 하는 것이고, 내가 위무를 받기도 하는 것이다. 즉, 서로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다.

처녀신의 경우 죽음과 제향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죽음의 주체는 신앙의 주체와 관련이 있다. 호근이무루 이씨할망의 죽음에는 오씨 아들이 깊게 개입되어 있다. 오씨 아들의 푸대접에 신병이 도져서 죽게 된다. 그래서 죽음에 개입하게 된 오씨 집안에서 이씨 할망을 모신다.

현씨일월의 죽음에는 현씨일월의 환경적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무업의 재능

203) 표인주, 『공동체신앙과 당신화 연구』, 집문당, 1996, 300-301쪽

도 있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현씨일월은 자신의 무업을 지지해주고, 기반이 되는 오라비가 죽음으로 입무의 실패와 좌절로 죽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상단골을 정하는 고민에서 아버님을 따라 현씨로 할지, 어머니를 따라 고씨로 할지 고민한다. 현씨일월의 직접적인 가계구성원인 현씨 집안에서 일월로 모시기 시작한다.

불래낭 박씨할망과 토산한집은 왜구의 성적유린으로 죽음을 겪는다. 왜구는 제주 해변가에 자주 출몰해 여러 나쁜 짓을 했던 무리들인데 아무도 제주 여성을 도와주지 못한다. 이처럼 사회의 비겁한 자들의 폭력에 의해 죽음을 맞기에 불래낭 박씨할망은 남자들을 배제한 여성들만 제향한다.

마라도 허씨 아기업게와 진안할망은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제물로 바쳐지며 죽게 된다. 이 할망의 죽음에 깊숙이 개입한 마을 공동체 모두가 이 신을 제향한다.

굴르락 오씨 아미는 사회의 계급적 체제에 속한 남자와 사랑을 이루지 못한 슬픔에 죽음을 선택한다. 굴르락 오씨 아미의 죽음에는 사회적 체제와 향교의 남성이 책임자다. 따라서 굴르락 오씨 아미에 제향하는 주체는 향교에 다니는 남성들이다. 이처럼 처녀신의 죽음의 요인과 신앙의 주체는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무사귀신(無祀鬼神)은 조선 초 여제(厲祭)의 도입과 함께 등장하는 용어이며, 여제는 무사귀신에 정기적으로 제사하는 의례이다. 재난을 예방하는 하나의 대책으로 명으로부터 조선에 도입되었다. 여제가 도입된 계기는 태종 1년(1401) 수창궁(壽昌宮) 화재 사건이다. 궁궐 내에서 큰 규모의 화재가 발생하자, 권근은 억울하거나 분한 마음을 품고, 먹을 것을 찾는자를 방치하면 재난의 원인 될 수 있기에 그들에게 제사하는 여제의 도입을 주장하였고, 억울한 죽음과 제사를 받지 못하는 무사귀신에게 제사하는 여제가 조선의 사전체계에 마련된다.²⁰⁴⁾

이처럼 정상적이지 못한 죽음을 맞이한 자를 위로하는 제의가 국가 차원에서 행해졌다는 것은 원혼은 위험과 결부될 수 있다는 사고 속에서 원혼이 일으키는 흉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컸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망자들은 화재를 일으키거나, 질병을 주어 아프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러한 이들을 위로하여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고, 재발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제사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망자, 그중에서 처녀 원혼이라는 존재는 더욱 강력한 두려움을

204) 김유리, 「조선시대 여제의 설행과 무사귀신의 문제」, 『역사민속학』50, 한국역사민속학회, 2016, 76쪽.

수반한다. 이들의 죽음은 개인과 개인의 죽음 보다 개인과 공동체에 관한 죽음이 많으며, 공동체에서 제향하고 있다. 즉, 어떠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따른 죽음의 요건이 제향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원혼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제향하는 것이 해원의 핵심이다. 해원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일과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하는 이들이 제향을 해야하는 것이 핵심이다. 처녀의 죽음을 함께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고통도 동반한다. 한 마을에서 일어나는 배고픔과 삶의 고단함에 따른 죽음, 사고로 인한 죽음은 공동체 일원의 책임이라는 공생 의식을 수반한다. 처녀들의 죽음은 개인적인 죽음 보다 공동체와 관련한 죽음이 많다. 즉, 어떠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따른 죽음의 요건이 제향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신앙민과 관계 맺기를 통하여 제향을 받는 것은 해원의 한 부분이다.

우리 옆에 사는 이씨, 허씨, 박씨할망을 신격화시키는 것이 제주의 신앙형식인데 나와 비슷한 사람이 상처를 입었을 때 더 가깝게 다가가고, 동질감을 느껴서 치유라는 것이 가능하다.

처녀신 중에 볼래낭 박씨할망과 토산 으드레한집의 경우에는 왜구의 겁탈로 죽음을 겪는다. 여성의 고통스런 죽음은 흉험 표출과 제향을 받음으로 해소된다. 이처럼 고통과 상처는 승화라는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당을 찾는 여성 신앙민들이 위안을 얻는다.

원혼은 많은 층위가 있다. 깊은 좌절과 상처를 받았고, 죽음의 고통을 느꼈으며, 죽음의 승화를 통해 고통을 회복하며 신앙민들을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죽음까지 가는 극한의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다.

원한을 가진 처녀당신의 신이 가슴속에 맺혔던 원통함을 푸는 것을 해원이라고 하면 신의 해원은 신앙민들에게 위안을 잘 받았을 때이다. 신들은 제향을 받음으로 죽음이 승화된다. 이러한 승화는 신앙민들에게 위안을 주게 된다.

입무 실패로 죽는 호근이무루 으드렛당과 현씨일월, 제물로 바쳐지는 공희로 마라도 허씨 아기업게와 진안할당은 개별적인 가해를 받고 공동체적 위안을 얻는다. 이 처녀들은 홀로 희생을 당하지만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의 안전을 보호해 준다.

축원은 신인동락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통로이다. 신이 즐거워야 인간세계에 복을 주게 되고, 인간들의 삶 역시 풍요와 안녕을 얻을 수 있다. 신앙의 주요 관점은 기원과 화답이다. 신은 대접받음에 대한 화답으로 인간들의 기원에 응대한다. 신앙민의 기원은 거창한 것이 아니며 소박하다. 가족의 무사 안녕만을 빌 뿐이다. 신 또한 신앙민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처럼 기원과 제향, 그리고 화답은 서로 상응하며 상생한다.

어떤 일로 공서 축원은 올립기는 옷이 없는 이 공서 아납네다. 밥이 엇어 공서가 아납네다. 옷과 밥은 가락오락 빌어서도 옷이곡, 얻어 밥입네다. 만물중인 어려운 건 우리 인생입네다만은 저 산천 푸십세는 입스월들 돌아들민 산천마다 잎과 꽃이 돈앙 산천 유수가 뿔네다. 우리 인생은 초로 인생이라 그날 제수 불련허민 토랑잎에 낀 이슬만도 못하곡, 부름 앞이 촛불과 같은 인생입네다

~

영 허시니 다 펜안허게 험서. 우선은 막을 펜안허게 허곡, 동네가 펜안허게 허곡, 가정이 펜안허게 허곡 오늘 이디 오랑 가는 즈순덜 다 펜안허게들 도와주곡, 건강허게들 다 도와주곡, 모든 일이 다 소원성취허게 허여사 험네다. 영 허영 신이 축원 올려드립네다.²⁰⁵⁾

심방은 의례를 통해 신앙민들의 축원을 신에게 올린다. 축원을 올리는 이유를 옷이 없어서도 아니고, 밥이 없어서도 아니라고 한다. 세상에 사는 인간은 한낱 미물에 불가하므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토란에 낀 이슬만도 못하고,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인생이라고 하며 불안전하고, 나약한 인간임을 설명한다. 그러니 이처럼 나약한 인간이니 정성을 다하여 축원을 올리니 잘 보살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다. 마을 당에서 의례를 하는 관계로 마을이 편안하기를 빈다. 그다음이 가정의 평안이다. 건강과 소원성취를 빌고 있다. 이처럼 정성스런 축원은 신에게 닿고 신은 화답하여 무사 안녕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제주도 남성 당신은 권위적인 모습과 통제권을 행사하고, 권력을 내보이며 마을 본향으로 좌정한다. 하지만 여성신은 자신의 직능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여 인정받는

205) 2022년 5월 28일 성산읍 수산리 진안할망 당제 재연 채록 내용.

다. 신앙민이 원하는 요소가 생업수호에서 산육과 치병, 마을 수호로 변화된다. 일
렛당이었던 당이 본향의 성격을 띠는 신앙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산육과
치병처럼 전문적인 직능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직능으로 확장되고 있다. 여성 신은
이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면서 신으로 좌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신과 신앙
민은 서로의 존재에 상호성을 지향한다. 이처럼 여성과 여성의 만남에 따른 관계
맺기는 연대기적인 관습화와 습관화가 되면서 신앙이 지속되어진다. 여성 단골들은
당에서 자신의 안위보다 가족의 안위를 위해 빈다. 이런 여성들에 의해 본풀이가
기억되고, 전승되고 있으며, 여전히 진행중이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고
있다.

VI. 결론

원혼의 신격화는 한국 당신화에서 보편적이다. 남성 인물 신격보다 여성 인물 신격이 더 많은 나타나는데, 이는 신앙민의 주체가 대부분 여성인 점이 주요하다. 제주 외에 육지부의 원혼의 신격화 양상은 장군과 같은 남성과 일반 여성이 역울한 죽음 후 신격화된다. 남성 원혼은 모략에 의한 죽음인 경우가 많고, 여성은 남성의 부재 및 결핍에 의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생산성을 기본으로 하며 당신으로 좌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여성 원혼의 특징이 강하며 죽음의 요인은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로 나타난다.

이처럼 처녀당신의 여성의 죽음은 역사적·생활 환경이 반영된 것이다. 여성의 죽음 후 신격화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을 통해 사회적 요건이 신화에 반영된 것이다.

제주도 당신본풀이 중에 처녀당신 본풀이의 서사 구조에 따른 죽음의 양상과 심층적 전개를 통하여 깊은 내면에 숨어 있는 제향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죽음이라는 서사를 공유하고, 죽음과 관련된 이들이 제향한다. 따라서 죽음의 인과성을 따져 죽음을 맞이한 여성과 제향하는 주체와의 관계 맺기를 통한 제향의 이유를 알아보았다. 제주도 처녀당신의 서사에 나타난 죽음과 직능, 신앙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작업을 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처녀당신에서 여성의 죽음을 자살과 타살이라는 형태를 통해 죽음의 요인과 신격화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처녀당신의 여성이 겪는 죽음의 형태는 제주 사회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기억의 소산과 그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공동체의 책임과 역사의 고통이 내포되어 있다. 외부적으로는 왜구의 침입에 따른 고통, 고립되고 거친 환경의 역사, 또 작게 개인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사회계층으로 인한 사건들로 인한 자결들이 연관된다. 이처럼 평범한 여성들의 죽음에 역사적 사건 및 생활 환경이 내포되어 있고, 여성의 신격화 요인에 죽음이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처녀당신의 직능이 제주도 여성 당신의 직능과 일치함을 들어 작은 범주인 처녀당을 고찰함으로써 큰 범주의 여성 당신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처녀당신의 직능과 성격을 고찰하는데 제주 여성 당신과 견주어 살폈다. 처녀당신의 직능은

신앙민과 신앙을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매개체다. 직능은 생업 환경의 변화로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신앙민이 필요로 하는 직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처녀당신의 직능이 여성들이 주로 기원하는 성격의 것과 남성들이 주로 기원하는 성격의 것으로 나누어서 살폈다. 여성들 관련 기원 당은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변화하는 반면, 남성들 관련 기원 당은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신앙이 바뀌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처녀당신의 신앙 형태의 양상을 살펴보고, 생활·사회적 환경 요인으로 인한 분파와 형성을 보인다는 것을 살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 바다에서 건너오는 신으로 높은 위상을 가졌던 여신들이 남성 중심 사회로의 변화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여성 신의 입지가 좁아지고 밀려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여성들이 신이 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신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마을마다 그런 당들이 남아 있다는 거고, 남아 있던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생활적인 요인으로 시련을 겪은 신앙민들이 가까이에 있는 당에 가서 의례를 행한다. 이처럼 여성신앙민들의 관심과 접근성으로 일뤼당이 점차 본향화 되어가고, 강화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제주도 처녀당신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피면서 제주 처녀당신의 연구의 가치를 찾아보았다. 보편성은 인신공희 흔적이 있고, 여성의 죽음에는 남성의 부재 및 결핍에 따른 죽음의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성의 겁탈로 인한 죽음, 풍농·풍어의 신으로 생산성 증대와 관련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제주도 처녀당신의 특수적인 면은 여성 원혼이 강조되고, 처첩의 서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심방 역할이 강조되고, 신앙면에서 개별적으로 의례화가 진행되고 있다. 죽음과 재생이라는 서사를 통해 허웅애기본풀이와 견주면서 서사 변용 및 확장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넷째, 처녀당신과 신앙민의 관계성을 주목하여 고통 공유라는 측면이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이는 평범한 여성이 신격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녀당에서 평범한 여성이 신격화가 되는 과정은 죽음을 거쳐야만 한다. 죽음은 입사 의례와도 같은 것이다. 가장 낮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흑독한

고통을 겪게 한다. 이처럼 가장 비루한 인물의 입사 의례는 오히려 신성성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죽음은 제주 사회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기억의 소산과 그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공동체로서의 책임과 역사의 고통이 내포되어 있는 화소이다. 왜구의 침입에 따른 고통, 사회체제에 따른 고통, 고립되고 거친 환경적인 역사, 또는 더 작게 들어가면 사회 계층으로 인한 사건들이 연관된다.

처녀당신은 생활서사시이면서 원시·고대와 중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녀당신 본풀이에 역사적 사건과 생활환경의 문제를 담고 있으며, 인신공희라는 고대 제의라는 신앙 형태가 녹아들어 있다.

신의 기능은 신앙민과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또한 신앙민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바탕으로 관계 맺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계 맺기는 신앙민이 느끼는 고통 공감의 정서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처럼 신앙민이 느끼는 감정은 처녀당신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위무를 주기도 하고, 위안을 받기도 하는 그런 관계로의 진전에 주요한 요소이다. 처녀당신의 신격화에 있어서 결론은 억울하게 희생된 처녀에 대한 제의를 지내므로 마을 문제 해결에 대한 회피의 책임감에서 조금이라도 상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또한 원혼의 두려움에 관한 마음도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제의를 지낸다. 정리하면, 원혼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감의 마음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처녀당신은 고통과 죽음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고통스러운 죽음 후 신이 되는 것은 승화의 단계로 나아감이다. 이처럼 극심한 고통을 겪은 신을 바라보는 신앙민은 여성이 겪었던 고통의 감정을 공유한다. 공유한다는 것은 신앙민들이 겪는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 고통이 치유된 자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처녀당신은 이러한 자격을 갖춘자라고 할 수 있다.

처녀당신에서 여성은 타인에 의한 고통으로 죽음을 겪는다. 굴르락당의 오씨아미는 향교 사람으로 인해, 호근이마루 으드렛당의 이씨할망은 오좌수 아들로 인해, 볼래낭 박씨할망과 토산한집은 내부의 약함과 왜구로 인해, 진안할망은 마을 공동체로, 마라도 허씨 아기업게는 해녀 공동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죽음을 맞이한다. 하지만 이 여성 신들은 오씨아미는 향교 사람들을 수호하고, 이씨할망은 오씨 집안을 수호하는 조상으로, 진안할망과 아기업게는 마을 공동체와 해녀 공동체를 돌보

는 신으로 좌정한다. 이처럼 처녀당신은 고통을 극복하고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이들을 치유하며 ‘상처입은 치유자’가 된다.

죽으면 신이될 수 있다는 기본 관념이 있었다. 이러한 관념이 처녀당신에서 여성의 신격화에 기본적인 요건이 되었다. 이러한 관념 위에 여성의 억울한 죽음과 사회적 상황들을 덧보태고 신앙화하며 전승된다.

이 논문은 제주도 당신본풀이 중에서 원혼 신격을 대상으로 하여 서사에 드러난 죽음 및 신앙의 의미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제주도 원혼 신격을 처녀당신으로 정의하고, 육지 지역과의 원혼 신격을 비교함으로써 제주도 처녀당신이 지니는 특수성을 밝히는 작업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신의 죽음은 신격화하는데 중요한 요건이고, 이러한 신앙은 가장 후대에 형성됐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인신이라는 신앙의 형성 시기를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기에 과제로 남긴다. 여기에 해안지역의 인물신 뿐만이 아니라 내륙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두루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원혼 신격의 형성 및 성격에 대해 제대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 당신화에서 처녀당신이 차지하는 범주는 한정적이지만 여성 당신과 견주어 볼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처녀당신 자료에 관한 가치 정립과 당신화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참고문헌]

<단행본>

- (사)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 서귀포시권』, 2009.
- 강정식, 『제주에서 할망을 묻다』, 제주돌문화공원, 2018.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편』, 민속원, 1974.
- 권태효, 『최초의 죽음』, 지식의 날개, 2022.
- 김상현 저·홍기표 역, 『남사록』, 제주문화원, 2009.
- 김석익, 『탐라기년』, 영주서관, 1918.
- 김현선, 『제주도 큰심방 이중춘의 삶과 제주도 큰굿』, 민속원, 2013.
- 남제주군 제주대학교박물관,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1996.
- 무라야마 지준, 『조선의 귀신』, 동문선, 1990.
-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8.
- 문순덕, 『역사 속에 각인된 제주 여성-제주 열녀들의 삶』, 각, 2007.
-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은봉 옮김, 『종교형태론』, 한길사, 1996.
- 미르치아 엘리아데 저·이윤기 옮김, 『샤머니즘』, 가치, 1992.
- 반겐넵 저·전경수 옮김,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85.
- 수산1·2리마을회, 『수산리지』, 2021.
- 에레히 노이만 저·박선화 옮김, 『위대한 어머니 여신』, 살림출판사, 1989.
- 이부영,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도서출판 한길사, 2012.
- 이승철, 『동해안 어촌 당신화 연구』, 민속원, 2004.
- 임제 저·박용후 역, 『南溟小乘』, 제주문화, 1989.
- 장덕순·조동일·서대석·조희웅,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2006.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9.
- 赤松智城·秋葉隆, 심우성 역, 『朝鮮巫俗의 研究(上)』, 동문선, 1991.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연구회, 『백록어문』 15, 1999.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연구회, 『백록어문』, 10, 1994.
- 제주대학교 국어교육연구회, 『백록어문』, 5, 1988

제주대학교박물관, 『북제주군의 문화유적(Ⅱ)』, 1998.
 제주도, 『제주여성 전승문화』, 제주도, 2004,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의 이야기유산』, 제주학연구센터, 2018.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 서귀포시권』,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9,
 제주특별자치도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 제주시권』,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3』, 20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연구원, 『제주문화원형-설화편2』, 201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가 펴낸 우리고장 이야기: 서귀포시Ⅳ. 남원읍』, 20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가 펴낸 우리고장 이야기: 서귀포시Ⅴ. 안덕면·대정읍』, 2014.
 제주특별자치도여성특별위원회, 『제주여성의 삶과 공간』, 제주문화, 2007.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조성윤·이상철·하순애,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진성기, 『남국의 무속』, 민속원, 1987.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16.
 표인주, 『공동체신앙과 당신화연구』, 집문당, 1996.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제주도 서귀포시 남제주군편』, 1983.
 허남춘, 『제주도본풀이와 주변 신화』, 보고서. 2011.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현용준, 『제주도 마을신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현용준, 『제주도민담』,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6.
 현용준·김영돈·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96.

<논문>

- 강경민, 「제주시 조천읍 와산불뚝당제의 특징과 공동체에 관한 고찰」, 『한국무속학』 45, 한국무속학회, 2002.
- 강소전, 「심방 관련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탐라문화』 36,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강소전, 「제주도 무녀 삼승할망 고찰」, 『한국무속학』 42, 한국무속학회, 2021.
- 강소전, 「제주도 굿의 ‘공시풀이’ 고찰-이용옥 심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14, 한국학회, 2007.
- 강순희,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에 나타난 서사 구조와 제의 양상」, 실천민속학연구 (32), 실천민속학회, 2018.
- 강정식, 「제주도 당신본풀이의 전승과 변이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2002.
- 강정식, 「한국 제주도의 해양신앙」, 『도서문화』,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2006.
- 고광민, 「당본풀이에 나타난 갈등과 대립-송당, 세화, 서귀당본풀이의 경우」, 『탐라문화』 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3.
- 고광민, 「당신들의 역할분화와 그 신앙형태」, 『비교민속학』, 비교민속학회, 1985.
- 고광민, 「제주도 처녀당 본풀이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고은영, 「제주도 서사무가 당나미 문씨아기당 본풀이에 나타난 복합적 성격의 양상」, 『한국무속학』 35, 한국무속학회, 2017.
- 권선경, 「여성 원혼의 존재양상과 성격화의 의미-서울지역 호구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6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 권태효, 「여성거인설화의 자료 존재양상과 성격」, 『탐라문화』 37,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 권태효, 「인간 죽음의 기원, 그 신화적 전개양상」, 『한국민속학』 43, 한국민속학회, 2006.
- 권태효, 「제주도 김통정이야기의 당신화 및 전설로의 변용양상」, 『구비문학연구』 8, 1999.
- 권태효, 「제주도 서귀본향계 본풀이의 자료적 성격과 양상」, 『한국무속학』 22, 한

- 국무속학회, 2011.
- 김건태, 「18-19세기 제주도 여성의 결혼과 출산」, 『대동문화연구』 6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9.
- 김도현, 「삼척 해안지역 마을신앙 연구」, 『역사민속학』 21,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 김동섭, 「토산당 본풀이 연구」, 『제주도사연구』 11, 제주도사연구회, 2002.
- 김열규, 「한국신화에서 찾는 원초적 여성상」, 『광장』 191호, 1989.
- 김영일, 「남해안 당신(堂神)설화의 비극적 특성에 관한 연구」, 『가라문화』 11,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1994.
- 김유리, 「조선시대 여제 설행과 무사귀신의 문제」, 『역사민속학』 50, 한국역사민속학회, 2016.
- 김현선, 「<삼승할망본풀이>의 여신 투쟁이 지니는 신화적 의미」, 『민속학연구』 17, 국립민속박물관, 2005.
- 김현선, 「무속에서 섬기는 불교적 신앙대상」, 『정토학연구』 29, 2018.
- 김현선, 「서사무가와 고소설의 서사구조 비교-<허궁애기본풀이>와<콩쥐팍쥐전>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교육논총』 4,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5.
- 김현선, 「제주도 당본풀이의 계보 구성과 지역적 정체성 연구」, 『비교민속학』 29, 한국비교민속학회, 2005.
- 김현선, 「제주도 돛제와 궤네깃당 본풀이 연구」, 『탐라문화』 3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 김현선, 「제주도 안덕면 당신본풀이의 구비전승적 위상」, 『비교문화연구』 5,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1999.
- 김현선, 「제주도 토산당 웃당본풀이와 알당본풀이의 비교」, 『한국사상과 문화』 19, 한국사상문화학회, 2003.
- 김현선, 「한국 구전서사시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연구』 4, 1997.
- 김현선·오정아, 「<세화리당신본풀이>의 식성 갈등 구조-이달춘 구연본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23, 한국무속학회, 2011.
- 김현선·김희선, 「제주 민담 <손 없는 색시>의 심층심리학적 해석: 채순화 구연 <배나무 배조주뜰> 각편을 예증삼아」, 『탐라문화』 7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2022,
- 김혜정, 「신화학의 고전: <하이누웰레 신화>」, 『시민인문학』 28,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 김호성, 「토산여드렛당신본풀이」의 여성 폭력 양상과 의미, 『한국무속학』, 한국무속학회, 2021.
- 김효경, 「한국 마을신앙의 인물신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류경희, 「인도의 독립적 여신신앙과 여성-신화와 실제」, 『인도연구』 12권 2호, 한국인도학회, 2007
- 류진옥, 「제주도 조상신 ‘광청아기씨’ 신앙의 형성 배경 고찰」, 『한국무속학』 42, 한국무속학회, 2021.
- 류진옥, 「제주도 조상신 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류진옥, 「제주도 조상신본풀이의 형성과 전승」,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문무병, 「제주도 무조신화와 신굿」, 『비교문화연구』 5,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9.
- 문무병, 「제주도 바닷가 마을의 민간신앙」, 『어하어장』, 한국어촌어항협회, 2007.
- 배윤정, 「김통정 이야기의 전승과 역사의 재구성」,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서종원, 「실존인물의 신격화 배경에 관한 주요 원인 고찰」, 『중앙민속학』 14, 중앙대학교 한국민속학연구소(현 한국문화유산연구소), 2009.
- 송화섭, 「시베리아 알타이 지역의 샤먼상 암각화」, 『한국무속학』 16, 한국무속학회, 2008.
- 양영자, 「토산 알당 한집 본풀이 연구」, 『영주어문학회지』 7, 영주어문학회, 2004.
- 양정필, 「16세기 제주도의 위기와 유민 증가 그리고 출륙금지령」, 『제주도연구』 59, 제주학회, 2023, 2
- 양진건, 「朝鮮朝 濟州三邑 鄕校의 新勑,重勑,移建에 關한 研究」, 『교육사상연구』 19, 한국교육사상학회, 2006.
- 유달선, 「제주도 당신본풀이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유형동, 「삼척 해신당과 성 인식, 그리고 해신당 공원」, 『아시아강원민속』 34, 아

- 시아강원민속학, 2020,
- 이경하, 「제주도 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서사시의 양상과 의미」, 『한국구비문학연구』, 한국구비문학회, 1999.
- 이기옥, 「도서와 도서민, 마라도」, 『제주도연구』, 제주도연구회, 1984.
- 이남옥, 「김통정 설화 연구」, 『탐라문화』29,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 이소윤, 「제주도 역사 전설과 그 본풀이에 나타난 기억서사의 형성원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이현정, 「제주도 나주 출자 뱀 신앙 연원 고찰-조선조 나주목 일대 용신 신앙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5, 국문학회, 2022.
- 이현정, 「제주도 서사무가 <할망본풀이>의 형성원리 연구-<할망본풀이>와 <일렛당본풀이>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이현정, 「조천리 순흥 안 씨댁 <나주기민창조상본>의 특수성과 전승 의미」, 『무속학회』 44, 2022.
- 장기영·최문정·박정재, 「신라 월성 서성벽의 축조 공정과 인신공희」, 『영남고고학』 92, 2002.
- 장영란, 「희생제의와 희생양의 철학적 기능」, 『동서철학연구』 68, 한국동서철학회 논문집, 2013.
- 장주근, 「제주도 당신신화의 구조와 의미」, 『제주도연구』 3, 제주도연구회, 1986.
- 정솔미, 「조선시대 여성 신분에 따른 귀신 형상화 방식의 차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1,
- 정제호, 「<허궁애기본풀이>에 나타난 '선의의 악인'과 저승관의 의미」, 『구비문학연구』 44, 한국구비문학회, 2017.
- 정진희, 「당본풀이로 당본풀이 읽기-제주 <세화 본향당 본풀이>의 사례-」, 『고전문학연구』 53, 한국고전문학회, 2018.
- 정진희, 「제주도 당본풀이의 유형과 변천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정진희, 「제주도 본풀이의 젠더 담론과 그 여성문학적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 조현설, 「제주 본풀이에 표현된 집단기억과 제주인의 정체성 연구」, 『고전문학연구』

- 구』 58, 한국고전문학회, 2020.
- 차옥송, 「제주도 신화와 제주도 여성의 정체성」, 『한국종교』, 한국종교학회, 200
- 편성철, 「삼척 해안지역 당신화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허남춘, 「제주 신화 속의 해양교류와 해양문화」, 『탐라문화』 52, 제주대학교 탐라
문화연구소, 2016.
-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의 원시·고대·중세 서사시적 특징과 변모」, 『도남학회』 23,
도남학회, 2011.
- 허남춘, 「칠성과 부군(府君)」, 『비교민속학』 58, 비교민속학회, 2015.
- 현승환, 「제주도 신화와 공동체 그 현대적 변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22, 한국구
비문학회, 2006.
- 현용준, 「무속신화 본풀이의 형성」, 『국어국문학』 26, 국어국문학회, 1963.
- 현용준, 「제주도 무신의 형성」, 『탐라문화』 창간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2.
-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뱀신화와 신앙 연구」, 『탐라문화』 15,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1995.
- 홍기표, 「을묘왜변 제주 대첩의 재조명과 역사적 의의」, 『제주연구원』 57, 2023.
- 홍태한, 「서해안 입장군 풍어전설의 의미」, 『고향논집』 7, 경희대학교 대학원원우
회, 1990.
- 황루시, 「강릉지역 여서낭신화 연구」, 『구비문학연구』 24, 한국구비문학회, 2007.

<기타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제주의 마을 성산읍 수산2리』

(<https://www.jeju.go.kr/vill/susan2/intro/folk.htm>)

The Death of *Cheonyeodangshin* and Its Devotional Significance

Kyoung Min Kang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ostgraduate
Program in Koreanology
Th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deaths of *cheonyeo* [maidens] and its significance construed in the narratives of *cheonyeodangshin* [deities enshrined at *cheonyeodang*, or shamanic shrines for maiden deities], one of Jeju's *dangshin bonpuri* [narratives of shamanic rituals performed for *dangshin*, or the deities enshrined at local shrines].

It is a common narrative that a *cheonyeodangshin* experiences an undeserved death and undergoes the process of deification. Therefore, this paper defines the vengeful deities specific to Jeju as *cheonyeodangshin*, further examin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ir deaths. The paper also attempts a comparative analysis of *cheonyeodangshin* and the vengeful deities in other parts of Korea so as to demonstrate the distinctiveness of Jeju's *cheonyeodangshin*. The process aims to discuss the factors in establishing the values of *cheonyeodangshin* and in deifying ordinary women. The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lies in that it helps initiate a broadened discussion of altar

myths that has been conducted on the discrete *bonpuri* [narratives of shamanic rituals].

The previous studies of Jeju's altar myths mostly emphasized the genealogical categoriz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deities, as well as their discrete narratives. In hopes of contributing to the expanded research of Jeju's altar myths, this paper focuses on the *bonpuri* of *cheonyeodangshin* that play a key role in Jeju's female-centered altar myths. In this context, *cheonyeodangshin* is conceptualized to represent Jeju's altar myths evolving around vengeful spirits, while studying the concept in the *bonpuri* of Hyeonssi-irwol, Bollaenang bakssi halmang [an elderly lady surnamed Park who is also known as Bollaenang halmang], Tosan yodeurehanjip, Jinanhalmang, Marado aghieopghe, Ossiami of Golleurakdang shrine, and Issihalmang of Hogeunimoru yodeuretdang shrine. As these *bonpuri* relate to the common narrative of women who faced an undeserved death and were later deified, this paper concentrates on how the female characters died and what characteristics and faiths the relevant deities feature.

In essenc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ignificance of devotional rituals by examining the types, as well as an in-depth progression of death following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e *bonpuri* of *cheonyeodangshin*. To this end, the types of death are divided into suicide and homicide, focusing on the causality of the deaths of *cheonyeo*. The deaths are subsequently categorized into the deaths of women due to failed shamanic initiation, social systems, rapes by Japanese *wokou* pirates, and human sacrifice. In a broader context, these deaths take place due to inner conflict or community-related social conflict. The analysis of the deaths of women based on these categorizations helps us to understand that Jeju's historical events and the state of the times are connoted in the local *bonpuri*.

Cheonyeodangshin account for a very small portion of Jeju's female *dangshin*. However, this minor category of *cheonyeodangshin* allows for an overall examination of Jeju's female *dangshin* and their aspects. This is because the voc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cheonyeodangshin* are identical to those of female *dangshin* in general. This approach helps discover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deities, which feature complexity and multi-layeredness due to the nature of faith following the changing needs of its devotees. *Dang* [shamanic shrines or altars] represent a space created for women, and the characteristics of *dang* change centering on women. This suggests that faith alters to meet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Examining the universality and distinctiveness of Jeju's *cheonyeodangshin* involves the establishment of the values found in the related materials. In comparison with the myths with similar narratives on other parts of Korea, the myths in Jeju and on the Korean mainland both recount the traces of human sacrifice and the deaths due to the absence or deficiency of men. The universality of the myths is also represented in the narratives where a woman experiences death due to rape by a man and becomes a deity of prosperous agriculture and fisheries who serves to increase productivity. The distinctive features of Jeju's *cheonyeodangshin* include the emphasis on femininity, the narrative of wives and concubines, and the highlighted role of *shimbang* [shamans in Jeju]. In terms of rituals, Jeju distinctively performs individual ceremonies, rather than communal ones. Additionally, the death and regeneration of *cheonyeodangshin* suggest the possible transformation and expansion of the narratives.

In the deification of *cheonyeodangshin*, the undeserved death of a woma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otees and the woman play an important role. *Cheonyeodangshin* experience an agonizing death and

resuscitation, which enables its devotees to share the pain that the women suffered in the narratives. And sharing comprises an essential element that helps heal the pain the devotees suffer. This process forms faith where the devotees are pacified and consoled through prayers to *cheonyeodangshin*. As such, the faith of *cheonyeodangshin* in Jeju resulted from mixed factors, which include the emotional empathy with those women who experienced an undeserved death and the reflection of the social state of the times.

This paper illuminates *cheonyeodangshin*, one of the female *dangshin*, in an attempt to expand the scope of research on the faith of *dang* that has been discussed with a focus on the discrete narratives of *bonpuri*. The research findings suggest that the deification of ordinary women has come to feature greater distinction with a reflection of the regional state of the times. It also identifies the values and significance of Jeju's unique faith of *dangshin*.

Keywords: Jeju, vengeful female spirit, *cheonyeodangshin*, faith, suicide, homicide, death, deification, shamanic initiation, Japanese *wokou* pirate, human sacrifice, wife and concubine, *shimbang*, rite, maiden deity, Hogeunimoru yodeuretdang shrine, Bollaenang halmangdang shrine, Hyeonssi-irwol, Tosan aldang shrine, Tosan yodeurehanjip, Marado aghi-eopghedang shrine, Jinanhalmangdang shrine, Ossiami of Golleurakdang shrine, female *dangshin*